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일상 속 여성들의 ‘이야기’ 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실존적 의미

- 소설, 연극, 영화를 중심으로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방예림

일상 속 여성들의 ‘이야기’ 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실존적 의미

- 소설, 연극, 영화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백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방예림

방예림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원장 조항만 (인)

부위원장 백진 (인)

위원 최춘웅 (인)

초 록

아파트 발코니에 대한 논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전용면적 확장을 위한 서비스 면적, 개인의 취미를 즐기기 위한 자투리 공간, 큰 집을 보관하는 수납공간 등-으로서 그 기능을 한정시켜 진행되어 왔다. 현재 발코니는 확장을 염두에 둔 평면계획으로 인해 도면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축되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벽면율의 적용과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비일상으로 인해 주거생활의 변화로 발코니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황의 배경으로서 발휘되는 발코니가 내재하고 있는 역할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공간이 주변시로 사라짐으로써 상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관찰한다. 상황의 개연성을 위해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인의 삶의 모습과 일상적인 상황을 관찰한다. 상황 속 인물들의 관계 형성과 관계의 성격 변화 등을 관찰한 후, 공간의 연출과 구성방식을 이해하도록 폴라주와 다이어그램 해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

상황의 기반으로 발코니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 구조를 가진 소설, 연극, 영화의 형식을 갖춘 작품을 선정한다.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부의 일상을 보여줄 수 있는 리얼리즘의 장르를 갖추고 아파트 발코니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삽화〉와 〈아주 오래된 농담〉, 조정란의 〈2007, 여름의 환〉 소설 세 편, 이영은의 〈발코니 Text & Context〉 연극 한 편, 김도영의 〈82년생 김지영〉, 손지수의 〈베란다〉 영화 두 편을 통해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담긴 작품을 선정하여 발코니가 인물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작가는 발코니라는 배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

했는지 알아본다. 이 분석을 토대로 발코니가 지니는 의미와 상징성을 추론한다. 작품의 형식은 소설, 연극, 영화로 한하여 각 장르가 갖는 표현 방식에 유의하여 분석한다. 예컨대, 소설에서는 발코니의 서술적 묘사를, 연극에서는 발코니를 표현하기 위한 무대 장치, 배우 동선, 소품 사용 및 극 전개 양상을,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연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적 요소로써, 장면 구성방식인 미장센 (mise-en-scene)을 살펴본다.

주거는 여성의 공간으로,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으로 고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보편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외부에서 각자 개인의 사적 시간을 보내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달리 집에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결핍은 결정적이라고 보여진다.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거공간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구축되어 왔으며,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결국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이 편중화될 뿐, 근본적인 여성해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오늘날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개인의 기호성향에 대한 존중이 보편화되어 여러 유형의 여성상이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 주거건축은 자녀가 있는 부부중심의 가족유형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족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다.

발코니는 주방의 보조공간, 외부 작업공간으로서의 마당의 기능을 내부화한 공간으로 국내 아파트에 도입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중 여성 전업주부들의 일상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재생산되었다. 여섯 편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발코니의 상징과 가치는 모두 서로 다르면서도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희생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발코니는 타인(다른 여성)을 상기시키며 공감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연극에서는 여성이 사회로부터 각인된 수치심을 이겨내고 같은 아픔을 가진 타

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영화에서는 발코니에서 사회적/제도적 억압을 딛고 자아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통해 발코니는 여성 전업주부들의 일상적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주체적인 삶을 되찾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발코니는 여성, 특히 주부들에게 자기희생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공간 또는 도피처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발코니가 도피처가 되기 위해 기여하는 공간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발코니는 주거 내 외부공간으로서 단열을 하지 않아 외기의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거실의 바닥면보다 낮고, 가사노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한 방수 기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발코니의 찬 바닥 때문에 사용자는 대부분 슬리퍼를 신는데 우리나라의 ‘방 문화’에 따라 방에서 나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외부에 나감을 뜻한다. 따라서 집에 갇혀있는 여성들은 밖에 나가는 대신 발코니에서 외부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갈망을 해소한다. 발코니에서는 공통적으로 밖을 바라보는 자세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집 내부 거실 등을 등지고 밖을 향하는 모습이다. 인간은 신체를 가지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을 향해 정면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밖을 향해 바라보는 자세를 통해 발코니의 주 사용자인 여성들은 자신의 관심 대상이 집 밖의 세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사용되면서 폭이 1.5미터 이상부터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법률에 따라 발코니는 1.5미터 간격의 폭을 갖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 좁은 폭의 공간은 협소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기 불편하고 입식가구를 들여놓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가족들이 찾지 않는 ‘불편한’ 공간인 발코니는 여성들이 자신만의 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여성에게 집의 의미는 국내 역사적인 사건에 의한 남성의 부재에서 기인한 다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인 가치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을 최대화하고자 발코니는 전용면적의 확장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물리적 공간으로써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발코니의 부재는 여성들의 유일한 사적 공간이자 도피처의 상실을 야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실은 오늘날 사회의 변화-미투운동을 비롯한 페미니스트 운동과 강압적인 가부장제도에 대한 저항-를 마주하여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차 사람들은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발코니를 찾기 시작하였다. 여성 주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발코니에 대한 필요성이 코로나-19라는 비일상에 의해 공동의 경험으로 확산되었고, 발코니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및 수업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발코니 확장으로 얻은 알파룸을 홈오피스나 홈카페 등 가족 구성원의 소유에 구매 받지 않는 공유 전용공간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주요어 : 발코니, 여성과 주거, 이야기 속 공간적 배경, 코로나-19와 주거공간

학 번 : 2020-25484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	3
제 3 절 연구방법과 이론적 배경.....	15
제 4 절 연구대상 및 선정 근거.....	22
제 2 장 한국 주거사 내 발코니의 의의	29
제 1 절 발코니 정의.....	29
제 2 절 국내 발코니의 변천.....	40
제 3 장 소설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모습	53
제 1 절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	55
제 2 절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64
제 3 절 조정란 〈2007, 여름의 환〉.....	79
제 4 절 소결.....	84
제 4 장 연극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모습	86
제 1 절 극단 김장하는 날 〈발코니 Text & Context〉.....	88
제 2 절 소결.....	98
제 5 장 영화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모습	99
제 1 절 김도영 〈82년생 김지영〉.....	101
제 2 절 손지수 〈베란다〉.....	112
제 3 절 소결.....	121
제 6 장 여성의 관점에서 본 발코니의 의미	123
제 1 절 여성과 발코니의 상관관계와 그 의미.....	123
제 2 절 발코니의 부재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128
제 7 장 결 론	131
제 1 절 연구의 결론.....	131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46
제 1 절 이영은 작가와의 인터뷰.....	146
제 2 절 손지수 감독과의 인터뷰.....	154
Abstract	157

표 목차

[표 1-1]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1 -발코니 공간적 의미.....	4
[표 1-2]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2 - 발코니 계획 요소 및 가이드라인 제시.....	5
[표 1-3]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3 - 발코니의 확장 및 전용면적화	6
[표 1-4]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4 - 확장형 발코니의 영향.....	8
[표 1-5]	한국 여성정책의 변천	10
[표 1-6]	여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평면의 변화.....	11
[표 1-7]	작품형식에 따른 표현방식의 비교·대조.....	28
[표 2-1]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베란다의 공간 구축 방식.....	30
[표 2-2]	발코니에 관한 법 및 자치법규.....	40
[표 2-3]	시대별 아파트 평면 내 발코니의 모습의 변천의 예시.....	42
[표 6-1]	이야기로부터 도출한 발코니에서의 상황과 의미	125
[표 7-1]	작품 별 등장하는 발코니의 유형별 분류.....	132
[표 7-2]	작품 별 발코니의 모습을 유추한 다이어그램 종합.....	133

그림 목차

[그림 1-1] 이야기 속 일상의 배경으로서 공간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18
[그림 1-2] 연구자료 선정 근거.....	27
[그림 2-1] 형태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31
[그림 2-2] 이집트와 인도의 발코니.....	36
[그림 2-3] 런던 베드포드 광장에 면한 타운하우스의 발코니	37
[그림 2-4] 근대 유럽의 아파트 발코니.....	38
[그림 3-1] 〈저문 날의 삼화〉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62
[그림 3-2] 〈아주 오래된 농담〉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77
[그림 3-3] 〈2007, 여름의 환〉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83
[그림 4-1] 〈발코니 Text & Context〉의 공연 포스터.....	88
[그림 4-2] 〈발코니 Text & Context〉 마당극 형식의 무대 연출.....	93
[그림 4-3] 〈발코니 Text & Context〉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95
[그림 5-1] 김지영이 발코니에 서있는 장면들을 풀라주하여 나타낸 다이어그램	106
[그림 5-2] 〈82년생 김지영〉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109
[그림 5-3] 주방 발코니에 앉아 멸치 내장을 손질하는 주인공.....	113
[그림 5-4] 발코니에 갇힌 주인공이 땀을 흘리며 멸치를 손질하는 장면...115	115
[그림 5-5] 〈베란다〉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118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파트의 발코니라는 공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전용면적의 확장을 위한 서비스 면적,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는 장식적 공간,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적 요소 등)으로 여겨져 왔다. 도시 내 집중된 주거밀도로 인해 한국의 도시에 적층형 집합주거 형태가 발전하였으며, 아파트의 발코니는 전통주거 내 외부공간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주거의 계승과 집합주거 내 외부공간으로의 사용 측면에서 아파트 발코니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발코니는 외기에 노출된 구조를 갖는 노대 등으로 1958년 건설된 종암아파트와 함께 우리나라 건축에 도입되었다. 발코니는 전통주거의 마당을 대체하기 위한 외부공간으로 기능하였으나, 이후 1980년대 새시 설치 규제 완화로 반-내부화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2005년 발코니의 면적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전용면적 증가를 위한 서비스면적으로 전략하여 완전히 내부공간으로 흡수되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당연시되는 확장형 발코니의 성행으로 분양 시 발코니 대신 내부 공간으로 시공되어 보급되고 있다. 발코니를 정의하는 형태적 특성과 현대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적 모습의 괴리는 발코니의 존재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주거 공간의 사용 양상 및 주거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그 중 발코니는 자연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두되어 “종전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단순히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놀이공간, 라운지, 화단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활

용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¹⁾

본 연구는 현재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가 가지는 의미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는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취하였던 제한된 접근 방식에서 바라본 단편적인 발코니의 모습을 보다 더 확장하여,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발코니가 갖는 다양한 관점과 위계가 형성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발코니의 다층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객관화된 개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보편화된 상황을 통해 기저에 있는 발코니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깊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전업주부라는 특정 개인의 관점으로부터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여 발코니에 내재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발코니의 역할과 잠재적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발코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1) 남성우, 조상규,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로서 국내외 발코니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 2 (2021): 121

1.2 선행연구

1.2.1 발코니에 대한 논의와 계획 양상

선행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가장 관련이 있는 20개의 연구자료를 네 가지 유형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코니의 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발코니 계획 요소 및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연구, 발코니 확장 및 전용면적화에 관한 연구, 확장형 발코니의 영향에 관한 연구로 유형을 나누어 해당 논문 20편을 선정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발코니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의미를 토대로 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진행되었고, 확장에 대한 각 입장의 관점과 의의, 그 영향에 대해 서술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거시설의 평면을 분석하는 방법과 현장답사 및 설문 조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기존의 연구들은 발코니가 사용자 측면에서 수용되는 의미와 선호도, 그리고 계획했던 의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 양상을 우려하여 확장형 발코니의 실태 및 영향, 역으로 비확장된 발코니에²⁾ 거주하는 세대가 겪는 불편함의 모순 등을 지적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2) 비확장 발코니는 확장형 발코니의 도입으로 거주자의 선택으로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김민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및 비확장 발코니의 계획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 8 (2009): 146

1) 발코니의 공간적 의미

[표 1-1]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1 - 발코니 공간적 의미

저자 및 출판연도	제목	유형 및 연구방법
정미란, 임소연, 안옥희 (1999)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지수인 (2009)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잡지 및 평면분석
지수인 (2010)	도시주거의 발코니에서 나타나는 내부이용 및 외부표현 특성	문헌고찰
이문규, 정영철 (2021)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건축법적 쟁점과 과제	법규검토 및 문헌고찰

발코니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설문조사, 평면 분석 및 법규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발코니 공간은 친환경적이고 가사공간과 휴식공간으로서 사용되므로 복합적인 생활행위의 장(場)으로 이용되어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³⁾ 지수인(2009)은 여성잡지를 대상으로 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대중이 받아들이는 발코니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발코니의 의미를 “전통주거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과 같은 의미”로 설정하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것을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것을 “상업·정치적 논리의 반영공간”으로 설정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는 외부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소멸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문규, 정영철(2021)의 연구는 2021년 최근 사회적 상황-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중의 인식 변화로 인한 발코니의 의미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3) 정미란, 임소연, 안옥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0, 2 (1999): 52-59

2) 발코니 계획 요소 및 가이드라인 제시

[표 1-2]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2 - 발코니 계획 요소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저자 및 출판연도	제목	유형 및 연구방법
백성진, 심우갑 (2002)	기능확장형 발코니 공간의 특성 연구	평면분석
박철수 (2004)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설계관행 탈피방안 연구	문헌고찰
김민규 (2009)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및 비확장 발코니의 계획에 대한 연구	평면분석 및 인터뷰
서봉교, 최정오 (2011)	LH 공사 발코니 확장형아파트 단위세대 평면계획 경향에 관한 연구	평면분석

발코니의 의미와 공간의 특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설계할 때 유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례조사를 통해 각 발코니의 주거공간 내 위치에 따른 형태적 유형으로 분류하여⁴⁾ 기능과 공간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박철수(2004)는 아파트 발코니의 내부공간화에 따른 문제를 ① 건축밀도의 허구성, ② 거주자의 안전 미확보, ③ 공간사용에 따른 비용 지불의 불합리, ④ 외관의 획일화와 경관의 단조로움, ⑤ 공간 사용상의 생활 불편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확장형 발코니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준옥외공간으로서 개념을 전환하며 내·외부 사이의 심리적, 환경적 매개공간임을 역설하고 있으며, 발코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소극적이었던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아파트 발코니 설계의 발전을 기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

김민규(2009)는 “발코니 확장에 밀려 등한시되고 있는 비확장 발코니와 대피공간의 위치, 면적 및 용도 등의 기초적 자료 및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으며, 확장 후 발코니 사용 방식에 따른 공간 설계를 기능에 따라

4) 연구대상을 안방과 거실의 전면발코니, 현관의 전실발코니, 주방과 식당의 전·후면 발코니, 측면 또는 측벽옥실발코니 등으로 유형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백성진, 심우갑, “기능확장형 발코니 공간의 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2, 2 (2002): 211-214

5) 박철수,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설계관행 탈피방안 연구: 법령정비 방향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 4 (2004): 67-76

① 인접실 면적 확장형, ② 기존 개실의 기능을 분리 및 강화하는 개실강화형, ③ 새로운 실의 기능을 가지는 알파룸 확장형⁶⁾, ④ 가변형 평면에서 가변의 효율을 높여 주요 기능을 강화하는 복합형 등 네 가지로 평면유형을 나누어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⁷⁾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 및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발코니의 확장 및 전용면적화

[표 1-3]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3 - 발코니의 확장 및 전용면적화

저자 및 출판연도	제목	유형 및 연구방법
진경일, 안병욱 (2003)	아파트 실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실의 장단변비 변화와 거주자의 선호도 조사	평면분석 및 설문조사
박인석 (2006)	발코니 확장, 이대로 좋은가?	법규검토
김선영, 오찬옥 (2012)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평면분석 및 설문조사

발코니와 관련된 연구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발코니를 확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으며, 학계에서는 이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전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아파트 “구매자”들의 선호와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와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건축법이 맞물려 수반된 결과임을 분석하고 있다. 무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6) 알파룸이란, 아파트 평면 설계 상 남는 자투리 공간으로,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며, 사용자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다. 알파룸은 중소형아파트에서 효율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중대형 평면보다 국민주택 규모인 84 m² 이하 규모의 평면에서 자주 사용된다. 알파룸은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허가되면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주거평면들이 대량으로 계획되며 그 과정에서 현대인들의 요구-서비스면적의 최대화 및 활용-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 트렌드로 급부상하였다. 이에진, 최정민, “근미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알파룸 공간의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1, 2 (2019): 424

7) 서봉교, 최정오, “LH 공사 발코니확장형아파트 단위세대 평면계획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 1 (2011): 146-153

면적으로 제공되기를 원하는⁸⁾ 수요자들과 이에 부응하려는 건설업체들과는 반대로 발코니의 무분별한 확장의 폐단을 막으려는 정책자들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발코니 확장이 본격적으로 합법화되었으며, 이후에는 확장을 전제로 하는 발코니 유형을 ‘확장형 발코니’라 하였다.

박인석(2006)은 발코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방안과 함께 발코니 면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도시 주거지의 개발 밀도의 왜곡 및 재건축을 촉진하는 등 다수의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장형 발코니의 도입 이후 반강제적인 확장으로 인해 피해를⁹⁾ 입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공간 내 위치에 따라 확장여부의 선호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00년대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사용자의 거주 패턴을 수용하고자 2005년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가 모두 완화되었다. 발코니 확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용자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지지하는 여론에 밀렸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설치한다는 점은 거주공간의 다양화와 개인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확장을 원하지 않는 분양 이후 전입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며 비확장 발코니에 대한 별도의 설계지침이 미비하기에 비확장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8) “확장형 발코니에 대한 예비 입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재산상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314

9)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발코니 공간이 내부공간화 되므로 그만큼 난방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외부소음을 이중으로 막아주던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방음효과가 줄어들며, 수납공간 등의 가사보조공간 없어지는 등의 문제를 거주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밀도, 외관 등 아파트 공간의 외부적인 문제점보다 거주자가 생활하면서 실내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김선영, 오찬욱,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 2 (2012): 158

4) 확장형 발코니의 영향

[표 1-4] 발코니의 연구 주제의 유형 4 - 확장형 발코니의 영향

저자 및 출판연도	제목	유형 및 연구방법
박경옥, 이상윤 (2008)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분양된 아파트 평면의 발코니 특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	평면분석
신현수, 김동훈 (2018)	발코니 확장제도가 단위세대 평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평면분석
이범훈, 장동민 (2018)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건축 밀도의 변화	평면분석
윤효진 (2019)	아파트의 주동형태 및 확장형 발코니에 따른 단위 세대 평면계획 변화특성	사례조사
조상규, 김영현, 남성우, 김신성 (2020)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용화 방안	법규검토 및 문헌고찰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아파트 평면을 비교함으로써 “발코니 확장은 당초 발코니 합법화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거주자의 욕구에 맞게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기능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기존 공간의 면적 확대에 주로 치중하고 있었다”고¹⁰⁾ 결론을 내리고 있다. 확장으로 인한 전용면적의 증가는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용적률보다 주거밀도에 영향을 미친다.¹¹⁾ 또한 외기에 노출되는 주거면적을 증가하기 위해 ‘오픈형 발코니’를 필수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벽면율을¹²⁾ 제한하는 등 설계지침을 새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석의 틀로 발코니가 분석되었지만, 발코니가 내포하고 있는 상황적 의미에 대한 분석과 역사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코니 확장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벗어나 발코니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10) 박경옥, 이상윤,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분양된 아파트 평면의 발코니 특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군 이하지역의 아파트 평면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 2 (2008): 67

11) 이범훈, 장동민,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건축 밀도의 변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집 19, 9 (2018): 298-303

12)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벽면율’이란 외벽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단,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한다.)

1.2.2 여성과 주거에 대한 담론

진정화(2001)에 의하면 “주거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은 함께 삶을 영위하지만 주거에서 얻는 느낌과 태도는 각기 상이하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거는 ‘여성의 장소’로 믿어져 왔다(A Woman’s Place is in the Home).” 이에 반해 남성들에게 집은 자신의 ‘성(城)’으로 인식해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여성을 안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주거는 보편적으로 여성에게 본인의 모든 삶이 투영된 공간으로써 자아의 정체성이자 자아실현의 결과로 인식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³⁾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에 있어 안방, 부엌, 발코니 및 다용도실, 드레스룸이 여성적 공간으로 거론되며 있으며, 안방 외 이는 모두 서비스공간이다.¹⁴⁾ 전통 주거에서의 안채와 달리 안방은 여자들만의 방이 아니다. 안방을 제외한 여성적 공간은 모두 가사일을 하는 곳이거나 가족들과 공유해야 하는 공간이다. 요약하면, 근대, 도시 내 여성들의 장소는 ‘집’으로, 주거 내 여성들의 공간은 가사노동의 공간 및 서비스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다음 [표 1-5]는 김준, 조민재, 김원중(2013)을 참고하여 여성정책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근대 이전 한국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에 따라 남성을 따라 부창부수(夫唱婦隨)하는 수동적 존재로 여겨졌으나, 1920년대 생활개선 운동을 통해 근대적인 여성상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충실한 주부, 가정의 운용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주부”를 지향하는 가치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¹⁵⁾ 이후 1980년대가 되어서야 여성운동과 노동자 인권운동의 여파로 인해 여성정책이 수립되었다.

13) 진정화, “특집-여성과 주거공간”, 건축(대한건축학회) 45, 3 (2001), 47

14) 김준, 조민재, 김원중, 207

15) 김용범, “일제강점기 여성지에 나타난 생활개선 담론의 경향 고찰: 주생활 및 부엌개량の内容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 4 (2011) 53

[표 1-5] 한국 여성정책의 변천

연도	여성정책의 특성
1960년대	여성을 위한 국가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1970년대	여성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여성을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나 활동이 없었다.
1980년대	여성이라는 개념이 교육정책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	1990년대 초에 제1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여성발전 기본법, 남녀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 기업 지원법 등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독립적 행정부처인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여성 정책 책임 관제, 여성 정책 조정 회의 등이 생겼다. 가족법이 개정되었으며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었고,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기인육성법 등이 제정되었다.
2010년대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여성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서 더 나아가 양성평등 이념실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성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주거공간도 발맞추어 변화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거구조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편의를 위한 피상적인 변화만 일어났을 뿐,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1950년대에 보급되었던 국민주택은 본채와 분리되었던 부엌을 본 건물 내부로 들여왔다. 그러나 온돌 난방방식과 아궁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엌의 바닥의 높이는 거실의 바닥보다 낮았고, 이는 이용 및 이동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이후 난방과 취사의 열원분리는 부엌공간의 입식화를 가능하게 하여 부엌으로까지의 동선을 단축하고 단차를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다.¹⁶⁾ 1980년대 이후부터는 주부가 전담 하였던 가사노동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엌과 식당은 거실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고, 이는 거실과 함께 통합하여 주방을 주거 중심으로 배치

16) 김혜정, 35-36

하는 등 평면구성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¹⁷⁾ 그러나 여전히 여성 전업주부를 휴식 중인 가족을 보조하는 역할로 고착화하고, 부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표 1-6] 여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평면의 변화¹⁸⁾

시기	여성 정책	공간 형태	의의
198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함 여성을 위한 국가 정책이 존재하지 않음 		부역의 고립 및 가사노동이 가족의 일상사와 분리
1980년-1990년대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평등교육의 인식 및 여성 교육의 시작 남녀차별 개선 지침 선택 제1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부역, 식당 영역이 생활공간의 중심으로 발전
1990년대 후반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부의 설립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 정책 기본 계획 시행 		공간의 독립성 및 사적인 기능 강화, 다양한 요구 반영

17) 최병숙, “수도권 신도시 근교 농촌 아파트 주거의 내부 공간구조 변화: 주부인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 2 (2010) 15

18) 김준, 조민재, 김원중, 208 표 1 참고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평면양식과 과학적인 가전제품이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집은 여성에게 휴식의 장소는 아닌 듯싶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예전에 누리지 못한 많은 평등권을 부여받은 듯싶지만 집은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휴식의 장소라기보다는 새로운 노동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¹⁹⁾ 즉, 가족 구성원의 ‘선택적’ 참여에 가사노동의 강도는 낮아졌으나 아직도 그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왜냐하면 “도시형 핵가족형태가 늘어나게 되어, 부부중심의 가정에서 전적으로 가정 내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전업주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노동의 성적 역할 분담과 공간 분리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뉘게 되면서 ‘전업주부’는 가정 내 산업노동자로 인식”되었기²⁰⁾ 때문이다.²¹⁾

김주현(2016)에 의하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1인 가족의 경우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안락한 공간을 즐기는 것과 그것을 마련하는 것 모두 자신의 몫일 것이다. 반면 가족은 공동의 공간을 위해 마땅히 n분의 1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가부장제의 집-가정 담론이 수행되는 가정 살림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성, 특히 주부에게 할당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적·정책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은 행해져 왔으나 이를 반영한 가정생활과 주거공간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수평적 구조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선택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있다. 더불어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이 적정 나이가 되면 혼인을 하여 남편의 수입으로 가사를 경영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통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서도 계속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여성(워킹맘),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생활을 지속하는 여성(딩크

19) 진정화, 51

20) 조혜영, 조현신, 471

21)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엌〉(1927)은 핵가족 맞벌이 주부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효율성이 가부장제의 성별노동을 더욱 강화했다.” 김주현, “집과 가정: 젠더와 주거 디자인”, 한국여성철학 26 (2016) 58

족),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여성(비혼여성) 등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²²⁾ 이는 주거의 양상으로도 이어져 “최근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제도에 편입하지 않는 비혼 동거 가족이 늘어나고, 이혼집산하고 유동하는 삶의 양식들이 나타나면서 셀터, 홈리스, 이주, 셰어링, 비박과 같은 주거 디자인과 집-가족의 담론이 점점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²³⁾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가치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생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 형식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의 거주형태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²⁴⁾ 신유진(2020)에 의하면 “한국의 주거규범(housing norms)은 오랫동안 ‘아파트’, ‘분양’, ‘중산층’을 골자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택 수요 충족의 수단으로써 대단지 아파트는 한국 도시 중산층 계급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을 보면 “1인 청년 → 2인 커플, 부부 → 3인 이상의 유자녀 → 4인 가구로의 연계성 강화 및 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도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²⁵⁾ 따라서 비혼여성들은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한편 1인가구의 급증으로 아파트의 대안으로써 등장한 ‘도시형생활주택’은 투자상품이 되어 소형주택의 전반적인 질을 저하시켰다. “1인 가구를 위한 양질

22) 여성들 중에서도 일부는 사회적인 압력을 무시하거나 가사일을 우선시하는것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가부장제도의 악습과 시대착오적 전통을 답답해 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사회가 정한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낀다. Bonnie Loyd, “Women, Home and Status”, 이경희 옮김, 김대년 외 4인, *여성의 삶과 공간 환경*,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32

23) 김주현, 64

24) 신유진,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살기(living together)’: 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2

25) 신유진, 40, 국토연구원(박미선), 국토정책(국토연구원) Brief, 2018 : 8 재참조

의 주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와 자가, 원룸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불안정성과 안정성, 잠시 머물 곳과 오래 거주할 곳이라는 속성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하위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이들은 상위의 주거 형태로, 이른바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길 열망하는 구조가 직조된다.”²⁶⁾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적·제도적 배경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대안적 거주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²⁷⁾ 더 이상 1인 가구 주거의 형태는 임시거주 방안이 아닌 영속적인 거주 형태가 되었다. 신유진(2020)의 연구는 이와 같은 비혼여성들이 셰어하우스에 함께 모여 사는 거주형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집합주거의 틀 안에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접목되었을 때의 장단점과 현 도시건축 및 주거공급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집은 여성에게 사회적 구속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개인의 방 하나 없는 곳으로 고립되는 공간이다. 여성의 인권 향상과 인식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도시건축적 측면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을 형성한 여성은 집에 매여 가사노동자로서 희생을 강요받고, 가족 형태를 꾸리지 않는 여성은 주거 공급 및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안정적인 집과 자유와 자아실현 중 선택해야 하며, “여성의 지형학, 즉 여성의 세계, 여성의 공간 만들기, 그 속에서 살아감은 기존 용어가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요구”하며 앞으로의 주거건축의 방향을 암시한다.²⁸⁾

26) 신유진, 3

27) 아이를 갖지 않지만 결혼을 한 여성들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청약제도의 우선순위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8) 김주현, 50

1.3 연구방법과 이론적 배경

건축계획의 관점에서 본 발코니는 “발코니를” 사용하는 관점에서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건축을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고 발코니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발코니를 대상화하여 그것의 효용성에 대해 논하기보다, “발코니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여 장소로서의 발코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일상을 관찰하여 실존적 의미를 조사한다.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공간이 기여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발코니가 주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의 기반으로써 물러나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주변시(peripheral vision)를 사용하여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간이 상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상황의 반복으로 굳혀진 관습이 공간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상황의 개연성을 위해 리얼리즘을²⁹⁾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인의 삶의 모습과 일상적 상황을 관찰한다. 상황 속 인물들의 관계 형성과 관계의 성격 변화 등을 관찰한 후, 공간의 연출과 구성방식을 이해하도록 플라주와 다이어그램 해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후 분석 결과를 통하여 기능과 법적 규제에 제한되어 있던 한국의 아파트 발코니의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에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발코니라는 공간이 현대사회에서 왜 필요한지 고찰한다.

29) 리얼리즘은 현상 세계의 모방 및 묘사를 지향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이며, 리얼리즘 문학작품은 다음을 특징으로 한다: ① 시대와의 재현적 연관성, ②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이념적 시대상에 대한 고찰, ③ 작품 속에 그려진 사회적·개인적 삶의 형태간의 인과관계, ④ 시간적·공간적 세부묘사의 정확성, ⑤ 등장인물의 자세한 심리묘사. “리얼리즘”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검색 2022.06.10]; 인터넷주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9888&cid=60657&categoryId=60657>

1.3.1 이론적 배경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 1819~1877)가 일으킨 리얼리즘은 신적 존재 또는 권위적 상징에서 인간들의 사소한 일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하이데거는 “일상으로서의 전환은 현대적 도시성의 특징을 드러”내며, 그의 영향을 받은 앙리 르페브르는 일상과 그 반복은 도시성의 특징이라고 정의한다.³⁰⁾ 르페브르에 의하면 일상(日常)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고유한 상태이고, 가장 사회적이면서도 가장 개인적이며,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함축적이다.³¹⁾ 그는 일상성의 개념은 한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시스템들의 공통된 분모로써 그 자체가 기준이자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일상생활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반복해왔다. 이 반복 속에서 변주가 일기도 하지만 이 변화 자체도 또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일상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역사는 되풀이되어 나타난다.

상황의 연속과 반복은 이와 같은 순환적 성격 때문에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습이 된다. 상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곧 공간이다.³²⁾ 반복되어 나타나는 상황, 시퀀스(sequence) 속에서 공간은 그 배경으로써 의미가 재생산된다. 공간 또는 건물이 생산되는 의도는 개인적일 수 있으나, 그 공간의 쓰임과 의미가 형성되는 것은 일상에 의한 재생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30) 이현재, “현대도시의 일상성 분석을 위한 페미니즘의 개념적 제안: “사회적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일상과 “수행적 반복”으로서의 일상실천”, 시대와 철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 26, 2, (2015): 163

31) “The everyday is therefore the most universal and the most unique condition, the most social and the most individuated, the most obvious and the best hidden.” H. Lefebvre, “The Everyday and Everdayness”, *Everyday Life*, Yale French Studies(Yale University Press) 73, (1987): 9

32) “공간과 사건은 하나의 상황을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으로, 상황을 비물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 사건이라면, 상황을 물리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건은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로써 어떤 특수한 일보다 일상적인,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을 일컫는다. 송혜진, “엔·엔가와와 뒷마루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야기에서 발췌한 ‘상황’의 구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 44

주거(housing)는 사회적 구조의 기본단위인 가정(family)을 이루는 공간(familial space)으로, 일상생활의 터로서 개인에게 친숙한(familiar) 공간이다.³³⁾ 창조와 생산을 위한 기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생활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한 토대이며, 일상을 지지하는 공간으로서 주거공간은 창조와 생산을 전제로 하는 물리적 배경이다. 따라서 공간의 생산과 발전을 논하기 앞서 주거공간의 일상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 중 특히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는 집에 머물러 ‘집안일’을 하며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존재이다.³⁴⁾ 주부의 일상이 성-고착화된 것은 종교적, 제도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사회적 답습에 의해 진행되었던 이유도 존재하였다. 특히 르페브르는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육아, 돌봄 노동 등 자본주의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생산활동을 일상의 영역으로 포괄하여 ‘사회적 재생산’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³⁵⁾ 여성해방과 페미니즘은 수동성의 반복 및 관성을 깨고 여성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는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일상적 상황을 통해 재생산되는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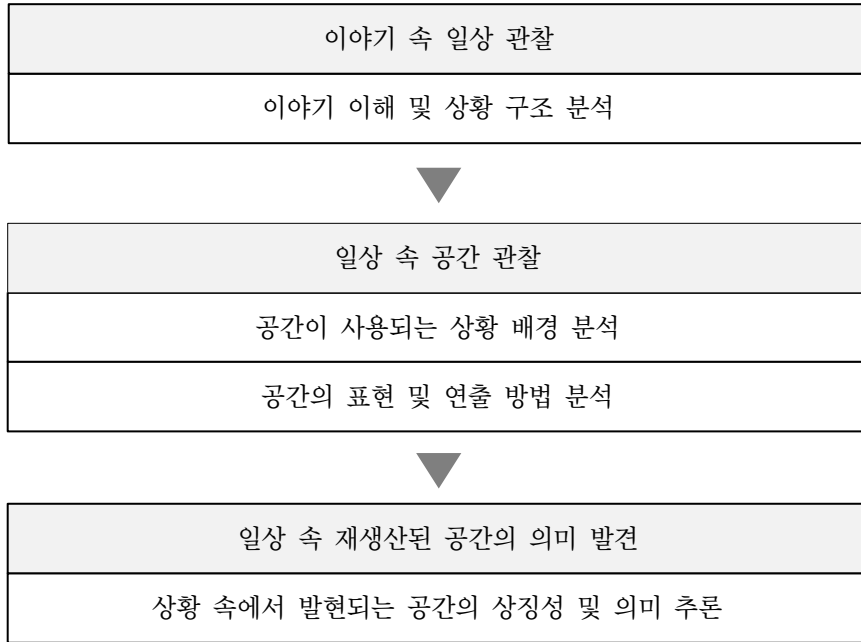
33) *Familial space, linked to naturalness through generality, is the guarantor of meaning as well as of social (spatial) practice. Shattered by a host of separations and segregations, social unity is able to reconstitute itself at the level of the family unit, for the purposes of, and by means of, generalized reproduction. The reproduction of production relations continues apace amid (and on the basis of) the destruction of social bonds to the extent that the symbolic space of 'familiarity' (family life, everyday life), the only such space to be 'appropriated', continues to hold sway. What makes this possible is the way in which 'familiar' everyday practice is constantly referring from representations of space (maps and plans,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systems, information conveyed by images and signs) to representational space (nature, fertility). Reference from the one to the other, and back again, constitutes an oscillation which plays an ideological role but replaces any clear-cut ideology. In this sense space is a trap - and all the more so in that it flees immediate consciousness.*

H.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h, Blackwell(Oxford U.K. & Cambridge U.S.A.), (1991): 241~242

34) "Home is, however, a highly gendered space. As Mike Featherstone(1995) states, gender has been an important issue of everyday life, particularly at home. Simone de Beauvoir also refers to home as 'woman clings to routine.'(1988, 61)" 이근혜, 안은희, "1970년대 단편소설 속 일상 경험 분석을 통한 '집'으로서의 아파트 의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 6, (2020): 51 Featherstone, M., *Undoing Culture: Globalization, Postmodernism and Identity*, (London: Sage, 1995); De Beauvoir, S. *The Second Sex*. (London: Picador, 1988) 재인용

35) 이현재, 171-172

1.3.2 이야기 구조 속 공간적 배경으로서 갖는 공간의 의미



[그림 1-1] 이야기 속 일상의 배경으로서 공간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일상을 통한 공간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이야기 구조를 사용한다. 이야기는 작가의 경험과 상상이 담겨있어 허구적이지만 있음직한 일상을 다룬다. 또한 이야기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도 개연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타당한 상황과 공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일상생활을 읽어냄으로써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의미 탐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담긴 작품을 선정하여 발코니가 인물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작가는 그 발코니라는 배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했는지 조사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발코니가 지니는 의미와 상징성을 추론한다. 작품의 형식은 소설, 연극, 영화로 국한하여 각 장르가 갖는 표현 방식에 유의하여 분석한다.

1.3.3 주거공간 분석 시 여성 전업주부의 관점이 가지는 중요성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인 발코니에서 여성 전업주부라는 고유한 관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부는 일차적으로 여성을 의미하는 성 구분된(sexed) 용어이며, 그 중에서도 결혼이라는 가족제도 안에서의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가족화된(familied) 용어이고, 기혼 여성과 가사노동자의 위치를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화된(gendered) 용어이다. 주부는 우리말에서는 주인 아내/며느리(主婦)를 지칭하지만, 영어에서는 집부인(housewife)으로서 사적 공간 및 가사노동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³⁶⁾ 따라서 주부의 상황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주부는 한국의 사회 관습의 토대인 가부장제의 원리를 생존 양식으로 겪어내며, 주거공간은 단순히 자신이 사는 집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존재를 구축하는 기반이기 ³⁷⁾ 때문에 의미가 있다.

전통주거에서는 유교에 근거한 문화를 바탕으로 마당, 대청과 같은 가족 공용공간을 사이에 두고 사랑채, 안채 등 독립된 채의 구성으로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였다. 즉, 주거 근대화로 인하여 “계급에 따른 공간 분화의 절대성이 주거 건물 배치개념에서 상실되기 시작” 하였으며³⁸⁾ 기능과 효율 중심의 주거 내 공간 배치가 우선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현상은 전통 사회에서의 하위계급이 도맡아 하던, 또는 여러 세대의 종친들이 어울려 살며

36) 박혜경, “신자유주의와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한국여성학(한국여성학회) 26, 2 (2010): 128

37) “주부는 일정한 여성상으로 ‘이미지화’되어 온 것과 달리 시대별 국가 담론에 의해 구성적으로 의미화되어 온, 사회구성적 존재”이다. 선우은실, “〈저문 날의 삽화〉 속 주부 화자의 젠더 정치성: ‘주부’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젠더 문제 및 주부 공간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우리문학회) 69 (2021): 431

38) 김혜정, “우리나라 근대 주거 공간의 변천을 통한 여성 주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 (1997): 34

나누었던 가사노동을 ‘전업주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게 되었다.³⁹⁾ 그로 인해 부엌은 주부의 공간 또는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식당과 함께 가족이 머무는 공간으로서 부엌의 위상은 높아졌다.⁴⁰⁾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개선운동’을 비롯한 위생과 기능적인 입식 가구의 도입 등으로 가사노동의 환경 조건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⁴¹⁾, 여전히 여성 전업주부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철수를 비롯하여 이근혜·안은희, 최선영, 정미선, 손종업 등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건축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한국문학, 사회학, 여성학 등)에서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한국 사회와 주거공간 특히 아파트의 표상을 연구하고 있다. 그녀의 소설 속의 모습을 통해 여성 주부에게 집은 단순 주거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그의 소설은 각 시대별로 일어나는 국가적 재난(일제시대의 징집, 한국전쟁으로 인한 징집과 피난, 분단 이후 반공세력 척결을 위한 심문 연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의 부재로 필연적으로 생기는 우리나라 여성 전업주부와 집의 관계를 드러낸다.⁴³⁾

여성 주부들은 집을 ① 지켜야 하는 살림⁴⁴⁾으로, ② 식모살이와 샴바느질과

39) 조혜영, 조현신,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1970년대 이전 한국 부엌의 공간 변화”, 기초조형학연구(한국기초조형학회) 13, 1 (2012): 471

40)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서울: 시공문화사, 2003) 95

41) 조혜영, 조현신, 472-473

42) 여성들은 집에 대한 소속감의 장소, 정체성의 기반, 피난처,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는 등 감정적으로 중요한 생활의 중심지라고 인지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중립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에 더 연관하여 생각한다. 신혜경, “기혼취업여성이 느끼는 도시주거환경”,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서울: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1999) 103

43) “박완서의 소설은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러한 특징 역시 전쟁 체험과 무관할 수 없는데,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남성 인물들의 잇단 죽음은 모계(母系) 중심의 가족 형태를 구성하게 했고, 이때의 모녀관계는 참혹한 기억을 공유하게 되면서 애증의 감정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3) 30

44) 부친 역곡 고택 가옥주는 비록 여성이지만 종손인 아버지가 대를 잇지 못하여 유일하게 물려받은 재산인 가옥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다. 가옥주에게는 고택은 ‘개인의 경제적 자산’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본래의 뿌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6.25 전쟁으로 가옥주를 비롯하여 집안의 여성들은 피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집을 지켰다고 회고한다. 또한 집안의 남성들은 출세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하여 일부다처제 살림을 꾸리기도 하였지만, 난세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여성들은 집에 남았다. 오민정, 류성룡, “구술생애를 통한 주거의 의미에 관한 이해: 부친 역곡 고택 가옥주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3, 2 (2022): 61-62

같이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일터로, ③ 문간방에 임차인을 들여 임대료로 생활을 경영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④ 요동치는 부동산 경제를 기회 삼아 자산을 증식시키는 재산으로 여긴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여성들은 식모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전업을 할 수 없는 주부들은 집에 일감을 가져와 부수입을 얻었다. 이는 한국 주거공간 내에 “식모방”으로, 해방촌과 같은 달동네에 편물업이 발달하는 등 건축·도시적 양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복부인”⁴⁵⁾과 같은 용어를 통해 사회를 점철했던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과 가내 경제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부들이 복덕방을 다니며 ‘마이 홈’을 마련하는 등 부를 축적해야 했던 당대의 모습을⁴⁶⁾ 알 수 있다.⁴⁷⁾

이처럼 한국은 고유한 여성과 집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기반으로 일상을 구축하는 여성 전업주부들의 관점으로 주거공간 중 발코니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를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5) “주택 문제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은 중산층의 시민윤리가 근본적으로 성별 분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은 이 문제를 침묵하고 외면함으로써 공적 사회에서 시민성을 보장받아왔고, 여성은 그 이면에서 자기 손을 더럽히는 것을 감수하며 도시 중산층 가족의 물질 토대를 쌓아올렸다.”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파주: 창비, 2021) 308

46) 박완서의 <낙토의 아이들>에서는 화자의 아내가 ‘아파트 업자’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가장의 위치를 잃은 것에 대해 자존심을 상해한다. 지리학 교수인 자신이 이전에 아내에게 출장을 ‘답사 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아내도 투자할 땅을 알아보러 자신에게 ‘답사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 한다.

아내와 탁 사장은 지금 어디쯤을 답사하고 있을까. 그들의 소위 답사란 어떤 모습일까. 나는 뱃속이 아니꼬운 것 같은 기분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아내는 땅을 사기 위해 보러 가는 일을 꼭 답사라고 했다. …… ”여보, 나 답사 갔다 올게.” 이 소리는 본디 내가 아내한테 하던 소리였다. 무릉동으로 이사오기 전 전셋집으로 전전할 때 나는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이 한마디를 던지고 며칠씩 집을 비울 수가 있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집을 떠날 때면 아내는 고독한 듯 그러나 존경스러운 듯 나를 배웅했었다. 박완서, <낙토의 아이들>, 조그만 체험기, (서울: 문학동네, 2001) 263-264

이처럼 아내들은 자·타의적으로 ‘복부인’이 되어 가내 경제를 책임졌다. 이에 남편들은 그들을 나무라면서도 기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벌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 질투와 자격지심을 표하기도 했다.

47) “여성들은 (산업화 시기 남성의 최대 생산성 유지를 위해) 현모양처의 역할은 물론, 실질적 경제활동까지 요구받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박철수,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년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주거공간의 인식과 체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 3 (2014): 191-201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 2”,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5): 144 재인용

1.4 연구 대상 및 선정 근거

1.4.1 연구 대상 선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성”의 “일상 속의 “상황”이 드러나는 “발코니”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설정하였다. 한국 아파트의 발코니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택한 작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함에 있어 현실을 기반으로 한 주거공간의 표상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의 삶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관점 또는 입장에서 서술한 작품이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1. 아파트 발코니 또는 베란다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
2.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를 다루며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한 리얼리즘 작품
3. 여성 전업주부를 화자로 설정하거나, 주인공으로 선정한 작품

1) 소설

한국 현대사회의 흐름은 땅과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을 부추겼고, 부동산 투자 아닌 투기는 땅과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소유물로 대상화시켰다.⁴⁸⁾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현대소설은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아파트 단지 중심의 도시개발과 그로 인한 풍속의 변화를 다룬 문학 적 범례로서 유의미하다.”⁴⁹⁾

48) 이철호, “‘무소유’ 시대: 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과 그 의미”, 개념과 소통(한림과학원) 27 (2021): 146

49) 이철호, 146

“현대 한국문학 속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도시소설’이라는 주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하며 이와 같이 도시소설을 다루었던 한국 현대작품의 작가들의⁵⁰⁾ 작품 중 아파트 발코니가 등장하는 소설을 선택하였다.⁵¹⁾ 예를 들어 박완서 소설의 배경으로 묘사되는 서울의 건축과 도시의 모습은 수치로 나타낸 타 연구의 결과값만큼 현실적인 고증이⁵²⁾ 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소설에 투영하였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보편성을 가졌기 때문이다.⁵³⁾ 예컨대, “박완서는 문학사 기술의 측면에서 중산계급의 소시민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중산계급’과 ‘소시민성’은 한국 전쟁부터 산업화 시기의 개인성을 아우르는 것으로 박완서의 작품 세계가 아우르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⁴⁾ 또한 박완서 자신도 주부였으므로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역사, 식민지와 전쟁,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감춰진 소시민들의 희생과⁵⁵⁾ 같이 작가의 메시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박완서 작가의

50) 1980 년에 이르러 시대 상황과 맞물려 아파트 표상이 크게 확장되지 않지만 송영, 작영한, 박완서, 강석경, 양귀자 등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1990 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자본주의적 성숙은 한편으로 사적영역에 대한 관심의 증폭과 다른 한편으로 사적 소유 욕망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설 속 아파트 표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최수철, 이문열, 정소성, 조정래, 이창동 등 남성작가와 박완서, 서영은, 김지원, 강석경, 양귀자, 김향숙, 은희경, 김형경, 오정희, 이선, 한강, 공선옥, 윤영수, 차현숙, 전경린 등 많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 년대소설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하진, 신경숙, 정이현, 정미경, 김인숙, 권지예, 전경린, 이치은, 김윤영 등의 여성작가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복거일, 문순태 등 중진 남성작가들의 작품에도 나타난다.

정미숙, “박완서 소설과 ‘아파트’ 표상의 문화사회학: ‘아파트’ 표상과 젠더 구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 (2012): 307-332

51) 정미숙, 309-310

52) 박철수는 연구대상으로서 박완서의 문학작품이 갖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공간과 장소의 사실에 대한 재현 가치, 2) 도시 중류가정의 삶의 복원재로서의 가치, 3) 근현대 서울주거사의 독본적 가치, 4) 가족사와 공간소비와 일반성 추론자료로서의 가치, 5) 작가의 이주경로에 의한 사실확인 자료로서의 가치. 박철수,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 2 (2006): 64-66

53) “대중소설은 당대의 문화적 성과물과 실천 행위들을 만들고 소비하는 대중들이 공유하는 행동과 이데올로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 박완서의 소설은 1970 년대 수도 서울의 주거공간을 점유하고 이용하였던 대중들의 통상적인 공간 인식과 체험을 복원하는 좋은 소재가 된다.” 박철수,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 년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주거공간의 인식과 체험” 191-201

54) 선우은실, 431

55)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때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언젠가는 저자들을 악인으로 등장시켜 마음껏 징벌하는 소설을 쓰리라는 복수심이었다. ... 증언의 욕구가 이십 년 동안이나 틈을 들였다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최초의 욕구가 증오와

소설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도와 더불어 함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여성 전업주부와 집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다작한 박완서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조정란, 한강, 김정희 등의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자료로 참고하였다.

2) 연극

허은(1991)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극의 리얼리즘은 서양의 리얼리즘보다 전통적인 마당극의 형태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⁶⁾ 일제 강점기부터 서양으로부터 극의 도입에 대항하기 위한 전통 극의 보존 및 근대화하기 위한 분투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극에 적극적으로 마당극이 대두되었던 것은 70년대 초에 “4.19 이후의 민족주의적 각성과 그 후의 전통탈춤 복원운동” 및 대학가에서 유행하였던 창작탈춤 때문이었다. 이때 창작탈춤은 전통 연희인 탈춤의 형식을 빌려 현실문제를 극화하여 표현하였고, 이후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마당극을 통한 광주의 진상을 알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현실과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⁵⁷⁾ 따라서 한국의 리얼리즘 연극은 서구적 리얼리즘의 영향이 아닌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마당극의 재발견을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리얼리즘 연극은 사회적 현실의 결합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예술작품의 계몽성을 내재하고 있다. 80년대 사회의 저항운동으로서 마당극의 형태를 빌려 진화해 온 우리나라 리얼리즘 연극은 서양의 리얼리즘의 양식을 차용하나,

복수심에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증오와 복수심만으로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 우리 가족만 당한 것 같은 인명피해, 나만 만난 것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나만 겪은 것 같은 국민의 고통이 실은 동족상잔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박완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기나긴 하루*, (파주: 문학동네, 2012) 32-33

56) 허은, “80년대 한국연극의 리얼리즘과 90년대의 전망”, *오늘의 문예비평* 1991 여름호 통권 2, (1991): 76-79

57) 허은, 79, 정지창, “한국사회의 저항운동과 마당극”, *현상과 인식*(한국인문사회과학회) 43, (1988): 29-50, 참조 재인용

무대, 구성, 연기, 대사 등의 마당극의 표현방법을 계승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발코니 특성과 여성과의 삶 속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삶에 더 밀접한 국내 극단의 작품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발코니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며 여성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연극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에 적절한 이영은 작가가 연출한 극단 김장하는 날의 〈발코니 Text & Context〉를 선정하였다. 〈발코니 Text & Context〉는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장면들과 극 안팎을 넘나들며 관객과 소통하는 구조를 통해 마당극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의 삶의 단편과 초상들을 풀라주함으로써 〈발코니 Text & Context〉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 및 혐오적 감정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작품 분석을 통해 여성 전업주부들의 관점에서 발코니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 영화

영화는 예술 작품의 형식 중에서도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현실성에 가까운 예술이다.”⁵⁹⁾ 영화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그 중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을 주된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일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리얼리즘 영화를 다루던 체사레 자바티니(Cesare Zavattini)는 “일상에 대한 리얼리즘 영화

58) 당시 리얼리즘 연극의 작가 및 연출가의 예시로 윤대성과 주인석을 예로 들 수 있다. 윤대성은 우리나라에서 서사극 기법뿐만 아니라 마당극적 기법을 무대에서 사용하며 리얼리즘 연극을 창작했다. 그의 작품에는 〈사의 찬미(1988)〉, 〈방황하는 별들 1989〉, 〈망나니(1969)〉 등이 있다. 또한 주인석은 80년대 ‘광주’ 세대로서 정치적 문제를 마당극의 양식과 비슷해 보이는 브레히트의 서사극 형태를 통해 드러낸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통일밥〉 등이 있다. 정지창, “리얼리즘 연극과 서사극”, 문학과 사회(문학과학지성사) 1990년 가을호 3, 3 (1990): 1277-1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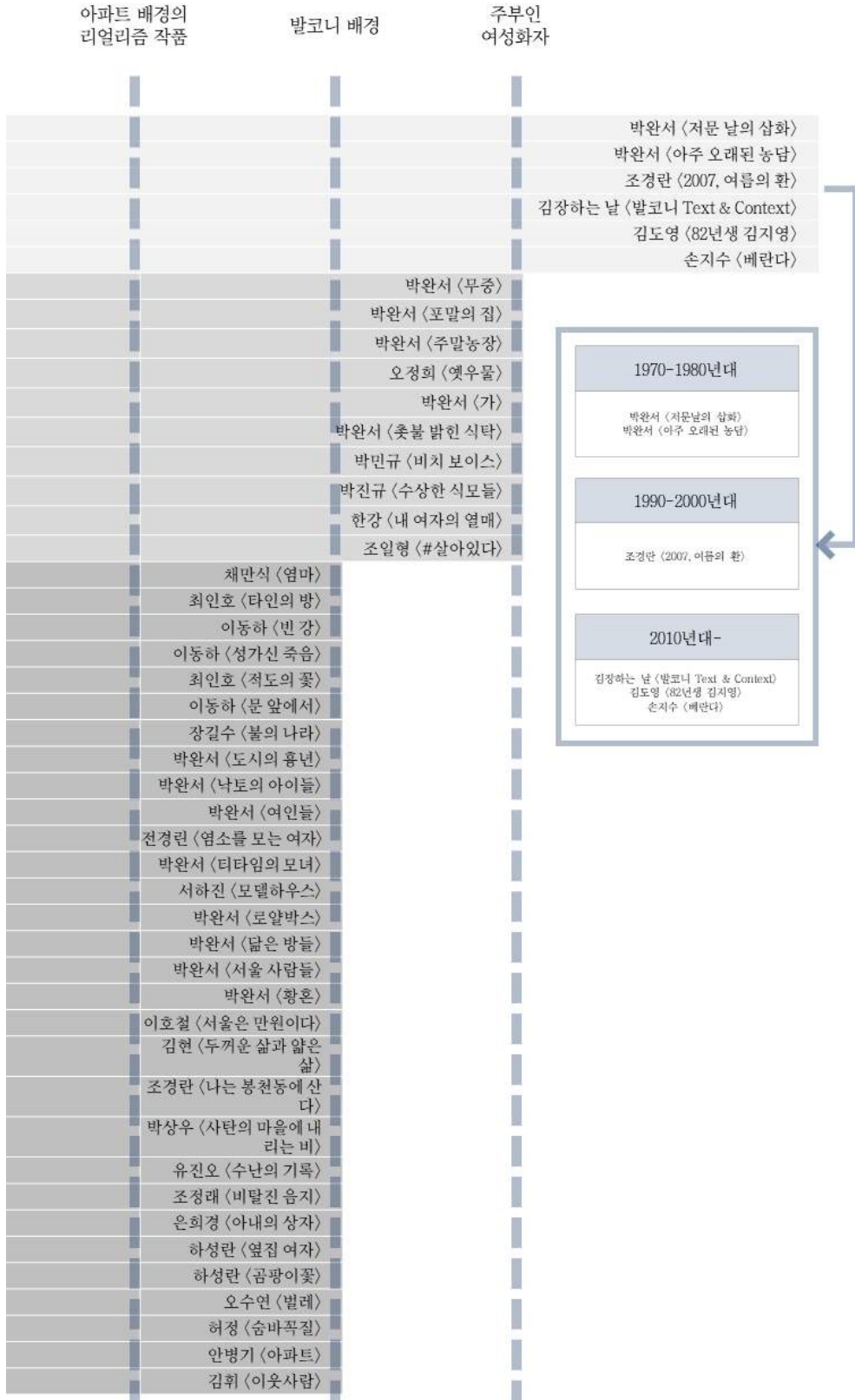
59) 진승현, “리얼리즘 미학에 나타난 미장센의 내적 의미 연구: 홍상수 영화의 일상과 리얼리즘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2 (2015): 131

를 ‘비현실적인 환상을 주는 대신 현실의 사실성, 그것을 다루는 영화’로 규정하였고, 그에게 영화는 평범함과 현실성 있는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⁰⁾ 따라서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한 영화 장르는 본 연구의 방향과 일맥상통 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다루었던 기준에 맞추어 김도영 감독의 〈82년생 김지영〉과 손지수 감독의 〈베란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82년생 김지영〉은 조남주의 동명소설을⁶¹⁾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지만, 영화와 다르게 소설에서는 발코니가 배경으로써 사용되지 않아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독자들에게 현대 사회의 실상을 나타내기 위해 통계와 수치를 통해서 여성들의 불합리한 현실과 소설에서 일어나는 일이 특정 허구의 상황이 아닌 도처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임을 강조한다. 영화는 소설과 다르게 상황에 더 집중하여 작중 이야기의 공공성을 일상적인 배경을 통해서 나타낸다. 본 연구는 발코니라는 공간이 일상적 배경으로써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찰하는 쟁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설을 참고하되 대신 김도영 감독의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주된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60) 진승현, 133, Cesare Zavattini, “Some Ideas on Cinema”, *Signs and Sound XXIII*, 2, (1953): 10-12, 재인용

61)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2019)



[그림 1-2] 연구자료 선정 근거

1.4.2 작품형식 별 분석방법

상황은⁶²⁾ 사건과 배경으로 구성되어, 사건이 주요 이야기의 인과관계를 주도한다면, 배경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전의 발코니에 대한 연구는 발코니를 대상으로 또는 상황을 주도하는 사건으로 관점을 취하였다면, 본 연구는 발코니가 사건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써 나타나는 의미에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황 속 사건과 동시에 배경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분석하는데 있어 표현방식이 모두 서로 다르므로, 일관된 분석틀을 설정하기 위한 분석체계를 수립하였다.

[표 1-7] 작품형식에 따른 표현방식의 비교·대조

소설	연극	영화
글	무대의 (물리적) 형태	카메라 프레임
대사와 지문으로 직·간접적으로 전달	무대 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	세트장위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
사건을 글로 전개하는 표현양식	행동이나 사건의 흐름을 직접 보여주는 표현양식	

소설은 사건을 글로써 표현하여 상황을 대사와 지문으로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연극은 무대 위의 상황을 상연함으로써 극장에서 관객에게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만 영화는 연출된 상황을 카메라 프레임으로 담아 영화관에서 스크린 위로 상영한다. 소설은 글로, 영화는 이미지를 이용한 기록매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지만 연극은 오로지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 소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극본 외에는 공연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처럼 각자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표현 방식에 유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⁶²⁾ 현대문학에서는 구성(Plot)이라고 한다. 예컨대, 소설의 3 요소는 주제(Theme), 구성(Plot), 문체(Style)이며, 소설 구성의 3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극과 영화와 같이 문학작품 외의 다른 유형의 예술작품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제2장. 한국 주거사 내 발코니의 의의

2.1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지수인(2009)에 의하면, 발코니에 대한 다수의 정의가 있지만 “이를 모두 종합할 때 들보의 연장이라는 발코니의 어원적 정의가 이미 내재한 특성으로서 발코니의 켄틸레버 구조와 개방된 건축부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2.1.1 발코니 의미: 건축계획 요소로서의 의미

“공동주택에서 사적 외부 공간은 개별 주호에 단독으로 구현되어 사적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화된 외부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축화된 외부 공간으로서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베란다 등이 있다. 이들은 건물 외부에 조성된 마당이나 정원과 같은 ‘사적 외부’의 형식이 건축화 되지 않은 외부공간임에 비하여, 바닥과 천정 그리고 벽이라는 건축 요소의 구축을 통해 건축화된 “인공적인 (artificial)” 외부공간이다.”⁶³⁾ 본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도 일반인들이 아파트 발코니와 베란다는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따라 발코니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⁶⁴⁾ 이외에도 개방된 홀, 알코브, 베이윈도우, 온실 등 유사한 형태의 사적 외부공간의 유형이 있지만 국내 논문에서

63) 지수인, 김진균, “공동주택 사적 외부 공간의 공간배열방식에 관한 고찰: 독일 사례의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및 베란다는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 12 (2007):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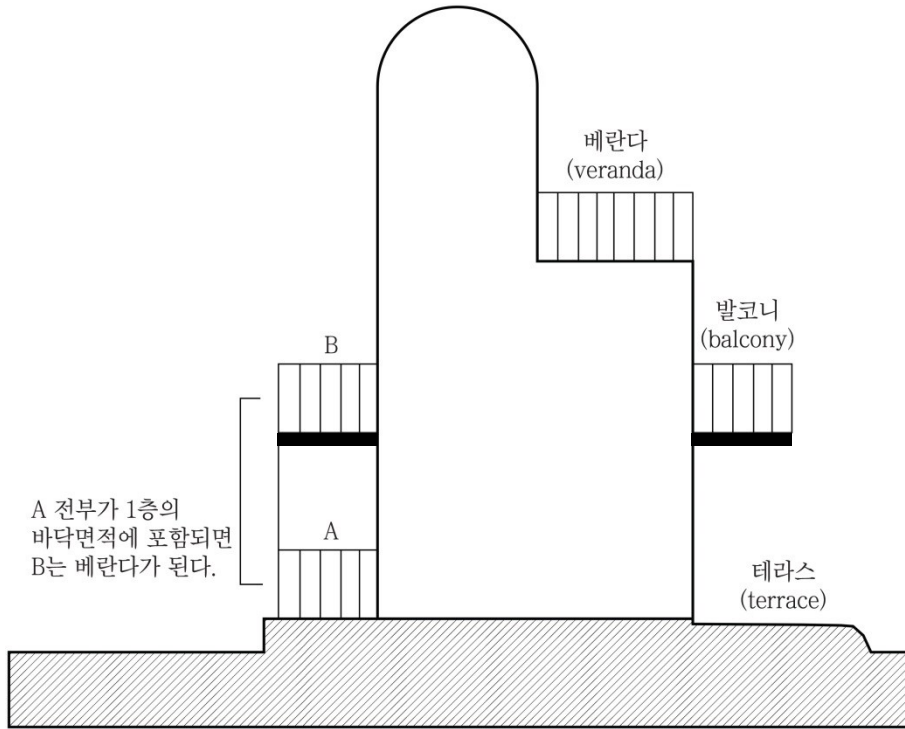
64)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해방 이전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23

가장 빈번히 공통적으로 발코니와 비교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다음 네 가지 요소-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베란다-를 다루고자 한다.

[표 2-1]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베란단의 공간 구축 방식⁶⁵⁾

범주	어원적 정의	건축 사전적 정의	공간의 구축방식
발코니 (Balco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ko (보) · Balcone (보) · Balkon (보의 연장, 짧은 보) 	난간으로 둘러싸인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캔틸레버 구조의 건축부	공간 바닥판의 외부 돌출, 지지 구조 및 보호 구조
베란다 (Veran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ustrade(난간), Varanda(발코니) · Veranda 	경량구조를 가진 지붕을 얹은 발코니	외벽을 따라 부가된 돌출부, 경량 구조의 구성
테라스 (Terr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rra (땅의 표면), Terracea (땅의 축적) · Terrasse (계단, 침전 층, 땅을 계단 형태로 쌓은 언덕) 	주로 1 층에 위치하며 기초의 평평한 구조와 옹벽의 수직적 한정을 통해 얻어진 개방된 공간	땅을 축적하여 조성한 수평 층, 계단모양의 형태적 유추, 보호 구조
로지아 (Logg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ube (나뭇잎으로 완성시킨 지붕을 얹은 정자나 오두막) · Loge · Loggia 	건축선 내부에 배치된, 세 면이 닫히고 전면이 개방되었으며 상부 면도 천정에 의해 닫힌 공간	건축선 내부로의 공간 구성, 박스형 공간의 개방화

65) 지수인, 김진균, “공동주택 사적 외부 공간의 공간배열방식에 관한 고찰: 독일 사례의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및 베란단을 중심으로”, 90



[그림 2-1] 형태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1) 발코니

발코니(露臺)란, 건물의 벽면에서 돌출하고, 지붕 또는 천장은 없으나 실내 생활의 연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바닥 부분이다. 종류로는 극장이나 강당 등에 있는 2층 부분 이상의 좌석, 공동 주택 등의 세탁물 건조대, 화분 받침 등으로서 외부에 돌출한 부분 등이 있다.⁶⁶⁾

“발코니의 공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의 내·외부 사이에서 중간적으로 위치한 특성 때문에 주(住)공간의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체라는 매우 중요한 위치특성을 띤다. ② 내·외부 사이의 전이공간 특성을 띠면서 내·외부에 대한 반복적 체류를 가능하게 해준다.”⁶⁷⁾

66)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AR+건축용어사전*, (고양: 성안당, 2008), 58

67) 지수인, “도시주거의 발코니에서 나타나는 내부이용 및 외부표현 특성: 고대부터 19 세기 말까지의 동서양 주거문화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 2 (2010): 134

2) 베란다

베란다란, 양식 건축의 외부에 돌출한 뒷마루와 같은 곳을 지칭한다.⁶⁸⁾ 베란다의 경우 외벽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부가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발코니와 가장 유사하지만, 베란다와 같은 경우 지붕 면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건축계획적 측면에서도 발코니는 외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방적 공간이지만, 베란다는 지붕이 있어 발코니보다 날씨와 기후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더 내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베란다는 경량구조로 구축되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결합되거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아치구조의 형태를 갖는다.⁶⁹⁾

아파트 발코니는 새시가 설치되고, 상층부의 바닥이 지붕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림 1-3]의 주석을 참고하였을 때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의 면적은 서비스면적이므로 바닥면적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이다. 한국 아파트의 특성-새시 설치로 인한 발코니의 반(伴)-내부화 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각 층 발코니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위층 발코니의 바닥이 아래층 발코니의 지붕이 되는 형태를 갖는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비전공자는 발코니를 ‘베란다’라는 명칭으로 오용하는 등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3) 테라스

테라스란 지상 면보다 한 단 높은 인공 또는 자연의 평탄부⁷⁰⁾ 또는 건물 최고층의 공간으로 편편한 지붕을 가지고 있어 옥외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다.⁷¹⁾ 테라스는 아래층의 천정 슬라브를 바닥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지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는다. 또한 “테라스 공간은 그 위상기하학적 위치에

68)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58

69) 지수인, 김진균, “공동주택 사적 외부 공간의 공간배열방식에 관한 고찰: 독일 사례의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및 베란다는 중심으로”, 89-90

70)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58

71) 백성진,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활성화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20

따라 지상 테라스, 층 테라스 및 옥상 테라스”로 나눌 수 있다.⁷²⁾

한국에서는 아파트의 대체제로 ‘테라스하우스⁷³⁾’의 주거형식을 선택하는 추세 있다. 이는 비교적 저층, 저밀도의 배치형식을 가지며 사용자들에게 아파트 단지가 제공하는 편의성과 주택이 제공하는 자연환경의 풍요로움을 모두 갖고 있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형태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비탈진 경사면을 기반으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테라스하우스는 집의 후면이 개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환기가 어려우며, 장마철과 겨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외기에 면하는 면적이 많아 냉난방 비용이 증가함-이 있어 수요가 한정되어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 경사면을 구축하여 채광성 및 통풍성을 확보한 개량형 테라스하우스 또는 테라스와 다락방 등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공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테라스하우스와 같은 여러 가지 변주 형태의 테라스하우스가 생겨나고 있다.⁷⁴⁾

4) 로지아

로지아는 이탈리아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한 방향 또는 그 이상의 측면의 아케이드가 열주(列柱)에 개방된 지붕 달린 갤러리, 발코니, 베란다 또는 포치코이다. 현관이나 포치처럼 일반적으로 주 건물에 부속되어 만들어지나 독

72) 지수인, 김진균, “공동주택 사적 외부 공간의 공간배열방식에 관한 고찰: 독일 사례의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및 베란다는 중심으로”, 89

73) 집합주택의 형식 중 각 단위주거가 수평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각 주거에서 아래 층 주거의 옥상 또는 직접 뜰로 나올 수 있게 된 집을 말한다. 경사면을 이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해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성문, “테라스하우스”, [검색 2022년 5월 15일]; 인터넷주소:

http://dict.aik.or.kr/main/view.vm?word_id=32563&page=1&q=%ED%85%8C%EB%9D%BC%E C%8A%A4&index=&depart_id=3&perfection=start&is_first=1

74) 최근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심에 조성되는 테라스 하우스는 도심생활권에 친자연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어 희소성도 높다. 수도권 택지지구(신도심)에 조성됐던 테라스하우스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했고 입주 후 프리미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리얼투데이, “단점 보완한 개량형 테라스하우스 웃돈만 ‘억대’”, 네이버 포스트, (2018년 2월 19일); 인터넷주소:

<http://naver.me/xmiZPcCs>

립된 건물로 될 경우도 있다.”⁷⁵⁾ 로지아는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와 달리 건물 외벽의 경계보다 돌출되어 있지 않아 기존 건물의 입면 또는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외부공간으로 비교적 내부공간의 특성이 강하다. 로지아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최소 한 면에서 막힌 벽 대신 반 개방적인 형식의 벽이 구축된다. 이때 ‘반-개방적’ 벽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기둥구조로 구성”된다.⁷⁶⁾ 따라서 로지아는 지붕과 반-개방적인 벽 때문에 외부 자연환경의 영향(바람, 비, 태양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구성 요소(지붕, 기둥, 바닥)로 자중을 지지할 수 있는 독립적 구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발코니와 유사한 형식을 가진 사적 외부공간 요소 베란다, 테라스, 로지아와 비교·대조를 하여 분석한 결과 도출할 수 있는 발코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코니는 건물로부터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내민 보’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로 삽입되어 있는 로지아와 별도의 구조물 또는 쉼터 구조가 필요하지 않는 테라스와 다르며, 지붕의 유무는 선택적으로 가능하되, 아래층 발코니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위층 발코니는 더 이상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지붕구조물을 필수로 하는 베란다와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국내 아파트의 발코니가 베란다 형태를 띠어 용어의 혼용이 빈번한 것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을 지정할 때는 베란단의 언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75) 박민진, “로지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검색 2022년 5월 15일]; 인터넷주소: http://dict.aik.or.kr/main/view.vm?word_id=9913&page=1&q=%EB%A1%9C%EC%A7%80%EC%95%84&index=&depart_id=4&is_first=1

76) 지수인, 김진균, “공동주택 사적 외부 공간의 공간배열방식에 관한 고찰: 독일 사례의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및 베란단을 중심으로”,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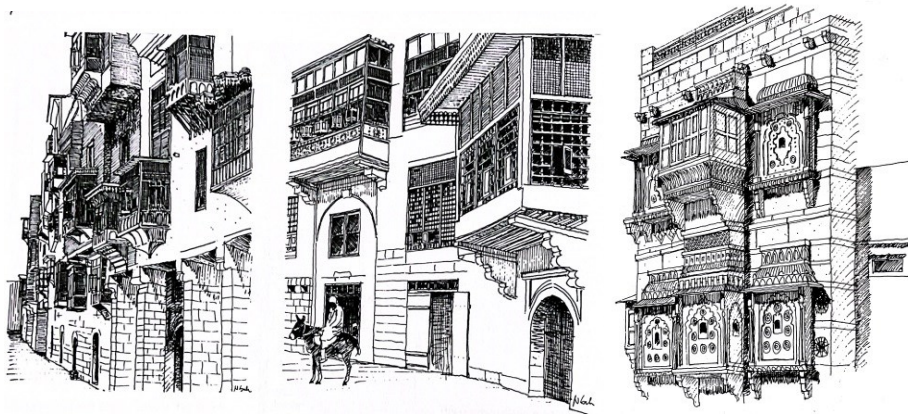
2.1.2 발코니의 기원 및 역사

1) 발코니의 기원

현대 발코니의 시초는 인도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만, 1899년에 시리아 팔미라(Palmyra)에서 발코니와 유사한 외부로 돌출된 상층부를 지지하기 위한 석조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초기의 발코니는 인도의 덥고 건조한 풍토로부터 실내기후를 조절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고대 로마에서는 로마 대화재로 방화구획을 위한 발코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로마제국의 대도시에서 주로 형성된 저소득층을 위한 집합 주거의 형태인 인슐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발코니는 곧 가로 또는 중정에 면하는 주호는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채광과 환기에 용이하여 인기가 높아졌다. 이외에도 ① 위층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도, ② 고층으로 물건을 나르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는 위치, ③ 식물이나 화초를 기르는 텃밭, ④ 화재진압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중정을 향하는 발코니는 점형으로 구성되지만, 가로에 면한 발코니는 선형으로 돌출되어 있어 이용하기에는 비좁지만, 가로에 면한 무미건조한 입면에 장식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2) 고대

발코니는 외부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이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길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열릴 때 이슬람교도 여성들은 가림막이 설치된 발코니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후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가로와 종전에 면한 발코니에서 가림장치인 마쉬라비야(Mashrabiya) 아래 외부 시선을 피해 조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2] 이집트와 인도의 발코니⁷⁷⁾

3) 중세와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에서는 해상무역이 발달하였으며 도시 내 높은 주거 밀도로 인해, 발코니는 도시와 수변 풍경을 즐기는 공간으로 외부의 대체 공간으로 사용되었다.⁷⁸⁾ 그들은 이곳에서 가사작업을 하였고,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수상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였으며 거리의 축제를 조망하였다. 또한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물의 입면을 치장하기 위한 발코니를 파사드의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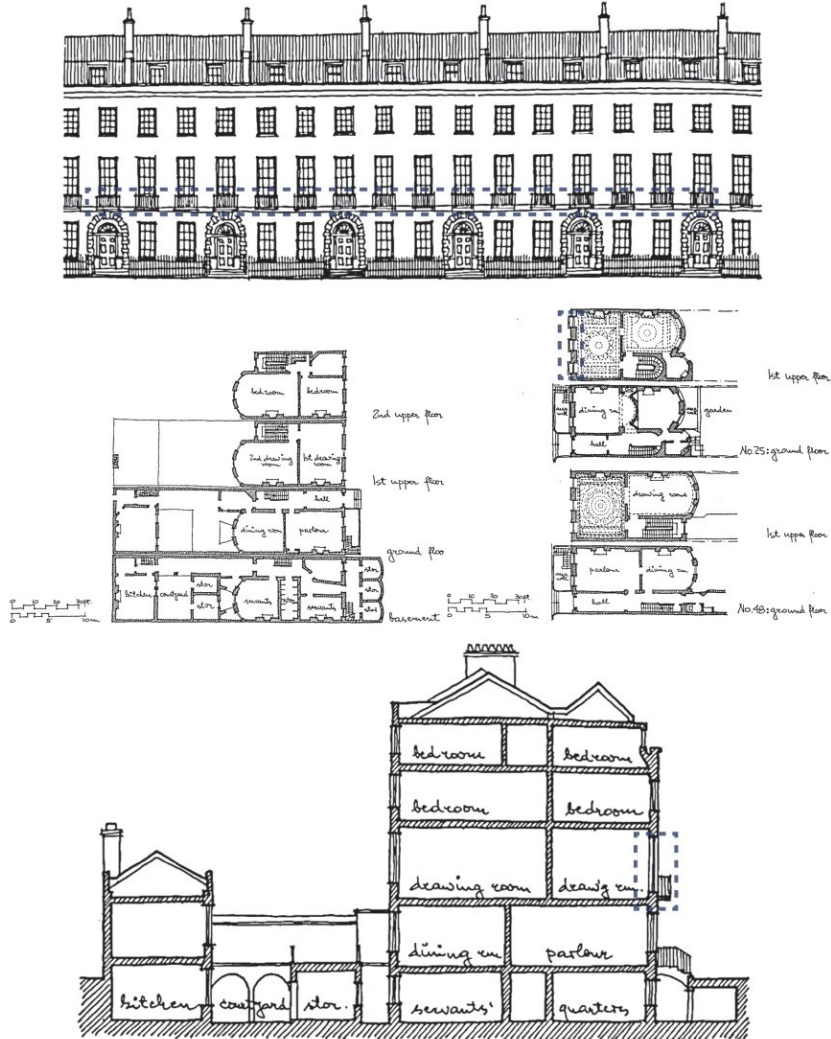
절대 왕권으로 세력이 집중된 바로크 시대의 도시주거는 이탈리아의 팔라쵸(Palazzo)와 프랑스의 오텔(Hôtel)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때 왕은 ‘접근은 제한되나 전망이 좋은 발코니’에서 왕실의 행사 또는 축제를 구경하였으며,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특징을 활용하여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조할 수 있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정면에는 ‘강복(降福)의 발코니’가 있다.⁷⁹⁾ 이곳은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곳이자, 교황이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위력을 가진 장소이다. 이처럼 도시 광

77) Norbert Schoenauer, *6,000 Years of Housing*,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165, 183 그림 인용

78) 지수인, “도시주거의 발코니에서 나타나는 내부이용 및 외부표현 특성: 고대부터 19세기 말까지의 동서양 주거문화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 2 (2010): 139

79) 최권중, *스토리가 있는 발코니*, (서울: 위더스북, 2019), 114

장을 향한 발코니는 권위의 연설이나 특정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2-3] 런던 베드포드 광장에 면한 타운하우스의 발코니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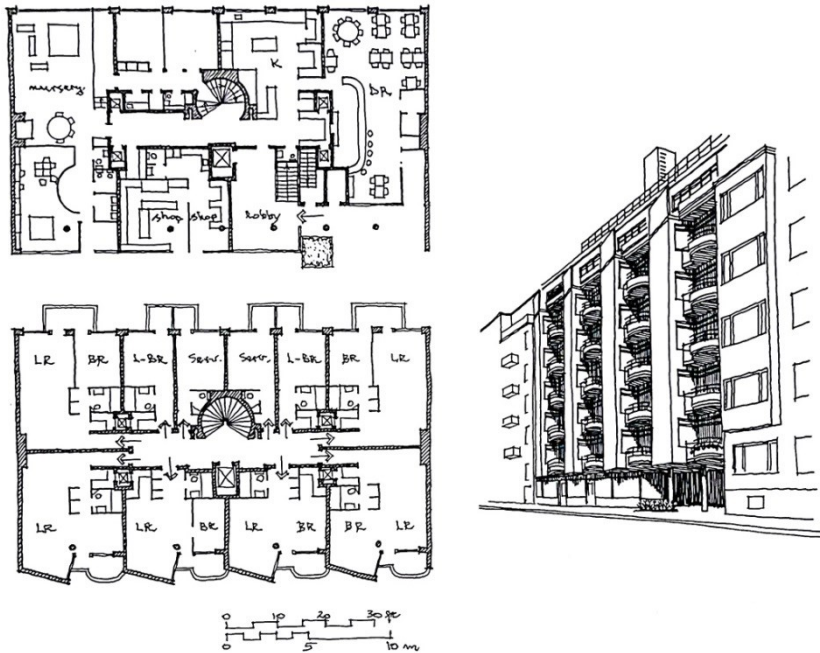
오페라 극장의 발코니석은 공연을 한눈에 보기 쉬우며 프라이버시도 보장된다. 왕족들은 2층 발코니의 중앙에 있는 로얄박스보다 무대 위나 양 옆을 더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 객석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모든 관객의 시선을 받

80) Norbert Schoenauer, 278-279

을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⁸¹⁾ 발코니가 권위를 상징하게 된 것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왕과 귀족들로 인해 비롯된 관습으로 군중이 올려다보는 존엄의 대상을 위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4) 근대

19세기에 들어 근대 도시의 형태가 재구조화되면서 발코니도 영향을 받았다. 오스만(Georges-Eugène Haussmann)이 파리의 파사드에 돌출부를 금지하지만, 발코니는 허용하여 파리의 시민들은 발코니에서 일상적인 날에도 가로와 도시를 바라보며 도시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 도시의 근대화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가 대두되자, 채광과 환기,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창문과 함께 외기로 통할 수 있는 발코니와 같이 환기적인 측면에서 용이한 공간 요소가 사용되었다.



[그림 2-4] 근대 유럽의 아파트 발코니⁸²⁾

81) 최권중, 107

82) Norbert Schoenauer, 403

발코니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축적해왔다. 발코니는 사회적 약자(여성)들의 간접적인 사회참여공간이자, 위계에 따라 권위를 드러내는 위상적인 위치를 가진 공간이며 광장에 면하여 연설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신성하며 존엄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채광과 환기에 유리하고 수납이 가능한 기능적 공간이며 외벽을 장식하는 요소이다. 현대에는 발코니의 변천과정이 모두 내포되어 있어 발코니의 다층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발코니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발코니의 형식으로 기인한 특성과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의 외에도 이와 같은 배경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2 국내 발코니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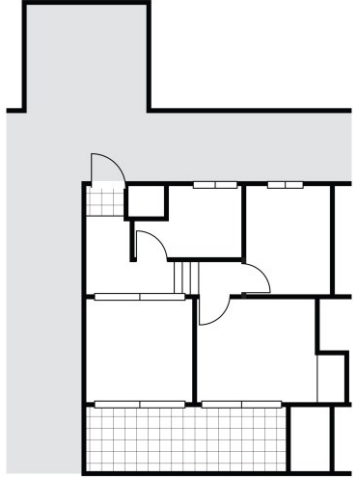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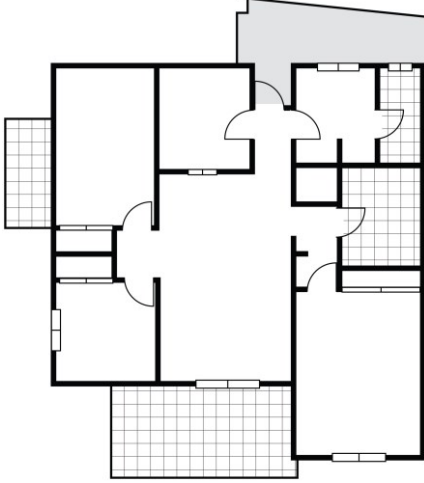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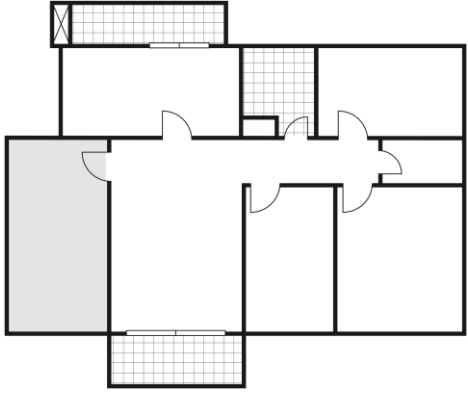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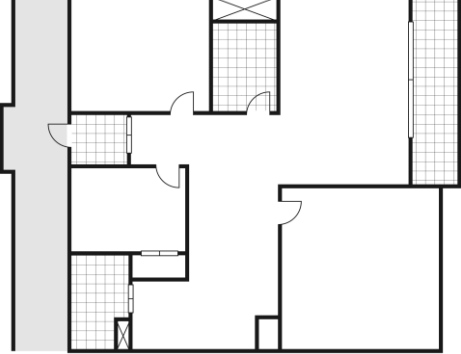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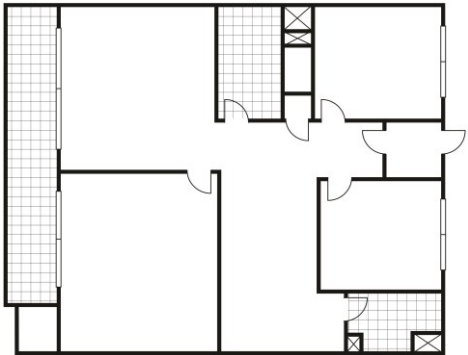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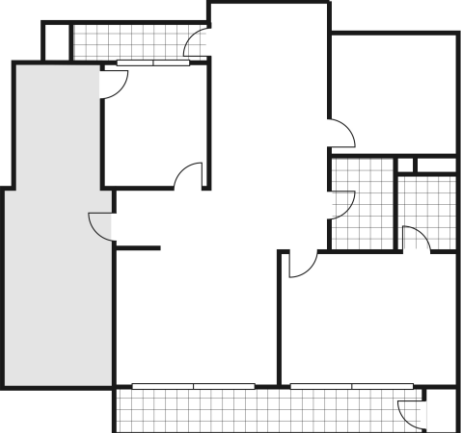
[표 2-2]은 발코니에 관한 건축법의 변천을 정리하였으며 [표 2-3]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한 발코니의 사례를 평면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였다. [표 2-3]에 사용된 아파트의 사례는 지수인(2007)의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국민주택의 규모인 85제곱미터의 평형대의 주거평면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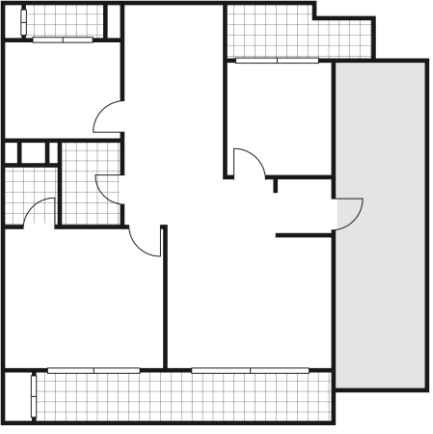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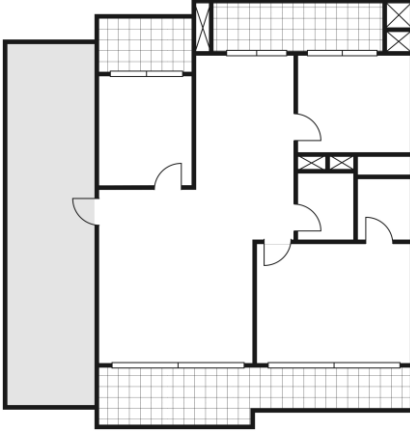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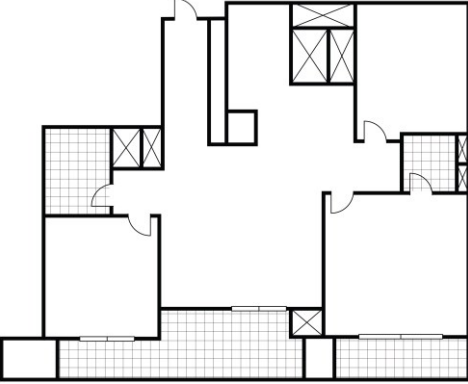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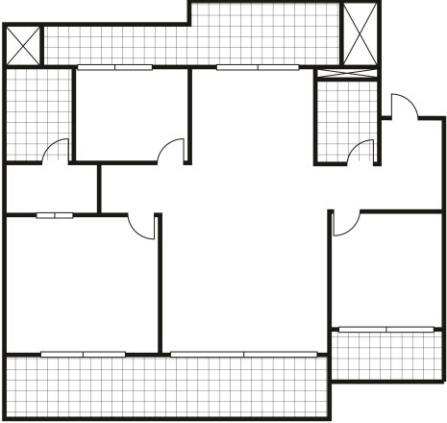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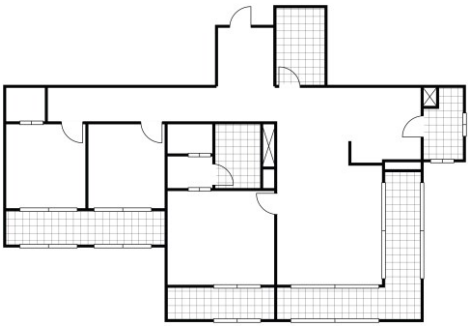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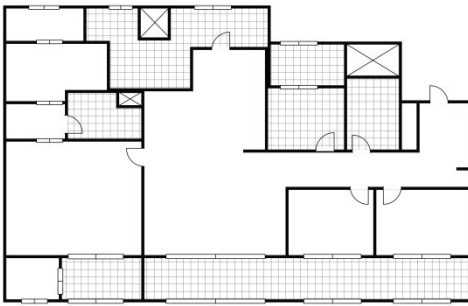
[표 2-2] 발코니에 관한 법 및 자치법규

연도	관련 법규
1962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1973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 벽의 면적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목 나)
1982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1986	다만, 공동주택이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외벽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제101조 제1항 제3호)
1988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을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제101조 제1항 제3목 다)
2000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

	<p>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법시행령 개정 제119조 제1항 제3목 다)</p>
2005	<p>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p>
2008	<p>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 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p>③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p>④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제3항, 제4항)</p>

[표 2-3] 시대별 아파트 평면 내 발코니의 모습의 변천의 예시

종암아파트(1958)	힐탑아파트(1968)
	
한강맨션아파트(1970)	동부이촌동 삼익아파트(1979)
	
대치 미도아파트(1984)	도곡 한신아파트(1988)
	

<p data-bbox="311 152 611 186">분당 수내청구아파트(1992)</p> 	<p data-bbox="811 152 1110 186">산본 신안모란아파트(1994)</p> 
<p data-bbox="339 686 582 719">삼성타워팰리스(2002)</p> 	<p data-bbox="825 686 1096 719">분당 더샵스타파크(2007)</p> 
<p data-bbox="332 1219 589 1252">관교 알파돔시티(2015)</p> 	<p data-bbox="846 1219 1075 1252">광교 아이파크(2018)</p> 

발코니에 관한 건축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시간에 지남이 따라 발코니가 서서히 내부공간화·전용면적화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발코니는 초기에 엄격히 외부공간으로 제한되었지만, 새시 설치를 통해 반-내부화되었다. 새시를 설치한 이후로는 발코니의 바닥높이를 인접실과 같게 한 후 동일한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계를 허물고, 날개벽을 없애는 등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인접실, 주로 거실의 면적을 확장하는 “발코니 확장”이 유행하였다. 발코니 확장과 같은 무분별한 전용면적의 증가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2005년 12월에 개정안을 통해 이를 허용하게 되었다.

2005년 이후 건축법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건축지침에 의해 발코니를 전용면적의 확장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같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를 두어 “획일적인 아파트 입면디자인을 다양화하고, 본래 발코니의 취지를 살려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세대마다 외벽면의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면적 중 70% 미만으로 발코니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⁸³⁾

83) 남성우, 조상규, 124-125

2.2.1 전통적 공간의 계승 및 이전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도시복구 및 주택공급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인구증가 및 핵가족화 현상과 더불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난이 가중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정된 대지에 많은 가구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주택 유형이 도입되었다.”⁸⁴⁾ 아파트 개발 시작 당시에는 공공부문이 공급을 주도하였지만, 이후 아파트가 도시주택의 전형이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때, 발코니는 서양의 근대 아파트의 도입과 함께 부지불식간에 우리나라 주거에 정착하게 되었다.

발레리 줄레조는 우리나라의 발코니는 한국전통주거의 외부공간, 마당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⁸⁵⁾ 초기의 아파트 발코니로 인한 문제는 “적층형 주거형식에서 오는 외부공간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문제, 고층에서의 안전한 대피 문제, 그리고 주호 내부에서 외부 시선으로의 노출문제, 즉 주호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것”으로⁸⁶⁾ 제기되었다. 특히 전통주거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의 역할 부재는 주거생활에 있어 장독대를 위한 공간과 세탁물을 건조할 공간이 없다는 불편함을 초래하였고, 사용자들은 마당을 발코니로 대체하였다. 이처럼 발코니에 대한 인식은 전통주거에서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주거형식인 아파트로의 전환과 함께, 사라진 마당의 쓰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발코니에서 이전의 마당에서 보이던 행동양식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실내’ 개념은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개되는 범주내의 공간이다.⁸⁷⁾ 이와 같이 한국의 고유한 ‘방’의 개념과 한옥의 구성방식을 함께 고려

84) 안은경, “획일화된 아파트 유형의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3), 1

85)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20), 192-195

86) 지수인, 2009, 154

87) "한국의 방은 기능적으로 제한된 공간이 아니다. 방을 사용하는 이의 가족 내 위치가 방의 성격과 위계를 규정한다. ... 이렇게 기능적으로 유연한 방은 형식적으로도 유연하다. ... 이것이 방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단 하나의 변수는 그 위에 오르기 위해 신발을 벗느냐는 것이다." 서현, *빨간 도시*, (파주: 효형출판, 2014) 77

했을 때, 마당은 신발을 신고 나가는 외부 주거공간이다.⁸⁸⁾ 발코니는 완벽한 내부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기후로부터 취약하며, 외부에서 행해지던 활동을 하기 위한 급·배수시설이 있어 바닥 마감은 주로 방수가 되는 타일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는 발코니 바닥에 난방배관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의 바닥에 온기가 없었다. 따라서 발코니에서 슬리퍼와 같이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은 당연한 관습으로 이어졌다. 마당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발코니에서 되풀이되며 궁극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발코니는 외기와 직간접적으로 통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햇빛에 노출이 되어 세탁물을 건조하기 용이하다. 최근에는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세탁기는 다용도실에, 빨래 건조대는 햇빛이 많이 드는 남향 발코니에 위치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발코니 확장 후 빨래 건조대를 둘 공간이 없어 거실에 빨래는 말리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⁸⁹⁾

발코니는 수납 또는 저장공간으로, 부엌 옆 ‘다용도실’에 두기에는 부피가 큰 것, 김치 또는 장류 등으로 집 안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것, 연탄 등을 저장하는 공간⁹⁰⁾으로 쓰였다. 이는 마당에서, 특히 도시한옥의 마당에서 주로 보이는 양상이었다. 주거 내 밀도 집중으로 인해 수납공간이 부족하자, 아파트 창의 외면에 철창을 달아 가사 물건 등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초기 아파트의 발코니는 장독대를 보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며 부엌 옆에 위치하였고, 이후 주방 옆 발코니는 다용도실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예컨대 1960년 대한주택영단이 발행한 『주택』 제 5호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에는 ‘장독대’라는 명칭이 있는 다용도실이 남향 또는 북향의 주방과 연계되어 배치되어 있었다. 그 이

88) "전통 한옥에서 마당은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있는 가족공간에서 신발을 벗고 내려가야 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 발레리 줄레조, 195

89) 김선영, 오찬옥, 161-162

90) "아파트 내 저장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세기 전만 해도 상당히 농촌적이었던 사회에서 물려받은 유산의 지속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저장 공간은 넓고 드나들기 편해야 하며 양념의 강한 냄새 때문에 '밖'에 있어야 한다." 발레리 줄레조, 193

유는 장독대에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함이었다.⁹¹⁾

이처럼 발코니의 속성들-신발을 착화하는 ‘실외’공간, 세탁물 건조장, 수납과 저장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주거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이 갖는 공간적 의미를 계승했다고 보여진다. 1950년대에 일어난 식생활 간소화 운동으로⁹²⁾ 인해 주부의 가사노동 및 아파트의 주생활의 규모가⁹³⁾ 축소되었다.

2.2.2 새시 설치로 인한 발코니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

1970년대에는 사용자들은 임의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외풍으로부터 보호, 외관문제, 도시오염으로부터 보호, 도시 소음 차폐-로 발코니의 새시 설치를⁹⁴⁾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우려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1988년 이전까지는 이와 같이 발코니의 새시 설치를 지양하였지만, 정부는 월드컵과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새시 설치를 허가하였다. 정부는 해외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근대식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소시민들이 위생과 미관에 대한 고려 없이 살림을 발코니에 방치

91) 지수인, 2009, 75

92) 1950년대 우리나라는 기아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곡가 폭등과 같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국가가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개입함으로써 1950년대 음식소비문화의 변화를 선도하였다. 예컨대, 절미운동(節米運動), 혼분식장려운동(混粉食獎勵運動), 수산물 부흥계획, 공업화 정책에 따른 가공식품산업의 발달과 값싼 외래원료의 수입으로 인한 상업주의적 음식소비문화 발달 등 국가정책에 따라 식문화가 변화하였다. 김미혜, 정혜경, “1950년대 국가정책이 음식소비문화에 미친 영향: 신문기사를 중심으로(1950-1959)”,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 1 (2009): 20-21

93) 장독대는 장시적 저장공간을 요구하고, 장류를 제조하기 위해 식자재를 운반하거나 재료를 다듬을 넓은 면적을 필요하다. 또한 거실의 전면에 둘 경우 미관을 해치며 발코니의 구조상 캔틸레버에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건축계획상 장독대를 사용하는 문화는 아파트에 알맞지 않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156-165

94) “외풍, 강풍, 먼지, 소음 및 보안을 중심으로 한 외부요소의 내부로의 진입을 차단시키고, 인명의 추락사고와 발코니의 보조생활 기능 수행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생활물품을 중심으로 한 내부요소에 대한 차폐를 목적으로 확산되었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202

하는 모습을 아파트 발코니 전면에 새시를 설치함으로써 가리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후에는 안전성과 균질한 미관을 위해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되었다.⁹⁵⁾

입식 가구로 인한 주거공간의 가구화와 수납공간 부족 등으로 협소한 내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이 주도하여 발코니를 완전히 내부화하여 전용하자, 정부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당시 발코니는 주부의 자아실현 공간 및 정원으로 인식되었으며 여성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잡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개성적인 발코니 사용 모습이 장려되고 확산되었다.

2.2.3 발코니의 확장에 관한 논의

1990년대 1차 신도시 개발 시 발코니 확장은 상업화 및 광고가 전면화되었고, 이때 발코니의 면적은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지만, 확장 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인식이 성행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인지한 건설사는 발코니 면적을 넓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으로 발코니를 취급하였다.

1998년 안목치수 설계가 도입되어 전용면적을 새로 산정함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에 다양한 주거시설을 양산하는 방안으로 기능형 발코니를 증진시키고자, 발코니 인센티브 제도를⁹⁶⁾ 실시하였다. 예컨대 1999년에는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을 간이화단으로 설치하면 발코니의 깊이를 2m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를

95) 1986 년 발코니 새시설치 합법화 이후 영세시공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설치로 안전성이 염려되자, 주택건설업체 주도의 설치에 대한 일괄적인 시공이 대두됐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288

96) 아파트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주요 채광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 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 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으로 규정된다.

남용하여 사업시행인가 시에만 간이화분대를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철거하는 등 불법으로 면적을 늘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발코니 너비 초과, 발코니 난방, 중량재를 통한 발코니 바닥 높임, 발코니 및 거실 사이의 중문 해체, 그리고 날개벽(내력벽) 철거와 같은 발코니 무단 변경 및 확장행위가 위법으로 단속되어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되었다.

발코니를 단속하는 것은 직접방문 또는 신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단속 기준이 균일하지 않아 많은 갈등사례를 만들었다. 마침내 2005년 무분별한 확장과 모호한 단속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결국 정보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노대”로서의 발코니는 사라지고 확장형 발코니가 오늘날 집합주거 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발코니는 합법적으로 전용면적 확장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계획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건축법규 내에서는 발코니를 노대 등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법>에서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되며, 건축물 내부 및 실내 공연장에 좌석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노대는 “비가 들이치고 이슬이 맺히는 부분으로 외벽 밖에 위치하여 실내 외의 심리적, 물리적 완충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되지 않는 외부공간”을 의미한다.⁹⁷⁾

발코니가 노대 등으로 포함되어 외부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 외벽의 요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닥면적 산정과정 중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서비스면적으로 정의하여 제외한다. 전용면적의 최

97) 박용석,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산업동향(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7 (2004): 16

대 효율을 지향하는 수요의 대세에⁹⁸⁾ 따라 공급자들은 서비스면적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발코니를 적극 활용하였다. 공제받는 서비스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발코니 면적)-<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서비스 면적)>=0 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곧 불문율이 되었고, 발코니는 1.5미터 폭을 가진 복도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건설업체는 경쟁이 과열되고, 그들은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으로 '아파트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확장형 발코니를 앞세워 주택건설업체들은 실내 인테리어 및 설비를 고급화하였고, 1998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경쟁이 더욱 과열되며 발코니 확장은 암묵적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⁹⁹⁾

확장형 발코니를 ① 과대포장, ② 끼워팔기, ③ 무상제공 등 편법을 통해 상품화하여 소비되었다.¹⁰⁰⁾ 확장형 발코니는 특히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을 전시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활용되었다. 단위세대의 모델에 확장형 발코니가 이미 시공된 상태로¹⁰¹⁾ 전시하여 실제 주호의 내부공간을 '과대포장'한다. 이에 2003년 12월 29일 모델하우스에서 확장형 발코니 설치를 금하는 『건본주택 건축기준』이¹⁰²⁾ 마련되며,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과장된 전용면적의 전시

98) "발코니 확장의 확산은 아파트 거주자의 선호에 종속되어 아파트 평면설계를 주도하는 주택건설업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 중심의 개인·문화적 욕구표출의 심화와 거주자 주도의 발코니 확장의 확산은 주택건설업체의 상업주의 논리와 결탁하게 되고, 주택건설업체의 확장형 발코니 계획 관행이 시작된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266

99) 강부성 외 6 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2001), 417

100) 지수인, 2009, 266

101) "건본주택에서 확장형 발코니는 거실과 발코니 바닥의 높이를 맞추거나 문턱을 없앤 방식으로 시공되고 내부공간의 넓은 규모 중심의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인접한 실내에 물리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전시된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270

102) 주택법 제 60 조(건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 15 조에 다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를 제한하였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중간옵션제”와¹⁰³⁾ 더불어 분양 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을 선택품목의 형태로 상품화하여 상업적인 '끼워팔기'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미분양아파트의 잔여세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확장형 발코니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판매 촉진책으로 이용하였다. 요컨대, 발코니는 2000년대에 이르러 상품 또는 상품화 전략으로 현대인들에게 인식되었다.

2.2.4 확장형 발코니의 도래와 이후 변화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안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 패러다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2기, 3기 신도시개발 등에 확장형 발코니와 기본형 발코니를 분양 당시에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현재 발코니는 인접 실의 면적을 늘리는 서비스면적, 기존의 복합되어 있던 각 실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요인, 새로운 알파공간, 그리고 가변형 평면에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설계요소로 되었다.¹⁰⁴⁾ 2005년 발코니 확장을 허가하는 법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건축 심의기준’으로 발코니 확장을 제한할 뿐, 실질적으로 발코니는 시공 절차상의 명칭으로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에 따르면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

② 사업주체는 건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건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 ③ 건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 15 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춰 두어야 하며, 건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103) 중간옵션 선택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당시 선택했던 인테리어 등 마감재를 입주할 때 최신 자재로 바꿔주는 제도이며 입주자들이 일부 비용을 추가부담 해야 하지만 입주 후 다시 개보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남호철, "분양당시 마감재 바꿔드려요", 국민일보, 2000년 8월 27일, 인터넷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018739>

104) 서봉교, 최정오, 149

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 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¹⁰⁵⁾ 단, 입면의 다양화 및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더불어 확장형 발코니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전면확대형 평면(4bay, 5bay 형태의 85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평면)과 같은 왜곡된 비율의 장방형 평면이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2010년대 연구에서는 보편화된 확장형 발코니로 인한 문제점을¹⁰⁶⁾ 조사하여, 역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세대(기본형 세대)는 건축적 환경이 불리해지는 현상을 부각시키고 있다.¹⁰⁷⁾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 새로운 일상이 요구되자, 전통주거의 외부공간으로서 발코니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과 규범으로 전개되는 일상 속에서 한국인들은 다시 발코니의 필요성을¹⁰⁸⁾ 깨닫고 있다.

105) 조상규, 김영현, 남성우, 김신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용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건축공간연구원) 2020, 6, (2020): 18-19

106) 지수인(2009)은 생활상의 모순, 세제상의 모순, 주거 안전상의 모순, 에너지 낭비 상의 모순을 들며 확장형 발코니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325

107) “비확장형 평면으로는 실의 면적이나 형태가 제대로 주거기능을 하지 못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추가 부담하면서도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확장형 발코니와 비확장형 발코니가 혼재하는 경우 단일 문제, 우수처리 문제, 평면문제, 구조설계, 외부 미관적 문제 등이 있어 마치 비확장형 발코니를 고집하는 세대 때문에 확장형 발코니를 사용하는 세대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듯한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김진관, 김근성, “아파트 비확장형 발코니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 15, 2 (2017): 136

108) 이문규, 정영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건축법적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1, 1 (2021): 294

제3장. 소설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모습

소설 속 배경은 인물들의 행위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공간적 기반으로 서 지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 심리적 배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경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전달하거나 뒤의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고,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소설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한국 현대문학 중 도시소설은 “1979년 이재선에 의해 처음으로 ‘도시적 경험의 특질이 표현되는 소설’로 제기되었으며, 그 표상으로 ‘소외와 갇힘, 무력과 결핍, 잃음과 긴장, 압력과 놀림, 비정과 냉혹, 위축과 분열, 공해, 추락’ 등을 들고 있다”고 논의되며 도시라는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기도 한다.¹⁰⁹⁾ 이처럼 배경은 사건의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 근거와 그 자체적으로 주제가 될 수도 있다.

배경은 소설 내에서 묘사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묘사는 이미지나 표상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듯이’ 전개하는 방식이다. 묘사는 관점에 따라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특징을 전달하는 객관적 묘사와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주관적 묘사가 있다. 글로써 소설 속 배경은 언어적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지를 통해 배경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회화나 영화 등의 예술 장르와 달리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배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어려우나, 그 엄선된 서술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유의하여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소설을 토대로 사건의 배경으로서 사용되는 공간의 의미를 유추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¹⁰⁹⁾ 광흥연,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 3, 홍성암, “도시소설의 주인공설정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12 (2000): 273 재인용;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양상”,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34 (2007): 346 재인용

[작품분석 방법]

1. 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파악한다.
2. 배경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서술을 바탕으로 공간을 재현하여 분석한다.
3.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서술은 선택적이고, 세밀하지 않지만 그 점을 유의하여 반대로 작가 또는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인식되는 공간의 의미를 유추한다. 피상적인 서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 속에 내재된 공간의 의미를 또한 주의하여 분석한다.

3.1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삽화〉

3.1.1 작품소개

〈저문 날의 삽화〉는 총 다섯 편의 단편소설의 연작으로 〈문학사상〉¹¹⁰⁾ 연재한 작품이다. 〈저문 날의 삽화〉 1, 2, 5편의 화자는 동일 인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주부 인물을 적극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주부가 집 안팎의 공간에서 어떻게 의미화되며 집 안팎의 인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준다.”¹¹¹⁾ 이외 3편과 4편에는 유사한 인물들의 설정이 드러나지만 다른 세 편과 인물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였다.

1, 2, 5편에서 연속되는 화자는 가부장적 가정 내 노년기 여성 전업주부로 두 명의 친딸과 양아들 한 명을 두었다. 남편이 친구 부부의 연고로 인해 고아가 된 영택이를 양아들로 들이면서 영택이가 남편의 애정을 독차지하자 화자의 질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택이 ‘운동권’에 가담하며 자발적으로 반지하방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면서 가족들과 겉돌게 되었다가 결국 출가를 한다. 이런 양아들로 인해 남모를 고민을 하는 화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 ‘운동권’ 남편을 둔 자신의 옛 제자 가연이를 이웃으로 두게 된다. 화자는 가연이 자신의 남편을 더 잘 내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영택을 떠올리며 시어머니 입장으로 가연을 못마땅히 여기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진실로 공감하며 가연이의 ‘독립’을 돕는다.¹¹²⁾

110) 1972 년 문학사상사에서 자료와 신인 발굴을 위하여 창간한 문예잡지이다. “문학사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2022 년 5 월 15 일]; 인터넷주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9735>

111) 선우은실, 434

112) 나는 가연이 눈치 볼 것 없이 이렇게 씹어빨고는 가연이 눈물까지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집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가연이 넓적다리의 화상은 쉬 지워지지 않고 내 살점에 점점이 와 박히는 듯했다. 가연이가 불쌍해서 내 살점이 아팠다.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다. 그 새로운 느낌이야말로 우정(友情)인지도 몰랐다. 여태껏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보다는 길들이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그녀 남편의 편이었지 그녀 편은 아니었다. 그녀 말쑥으로 그 남자의 역성을 들 때도 물론 그러했지만 역성을 안 들 때도 그러했다. 시어머니가 본질적으로 아들 편이듯이.

이후 서울로부터 벗어난 노부부는 시골집을 마련하여 남편은 짐수리를 소 일거리 삼아 하루를 보낸다. 그는 아내의 요청으로 부엌 옆 나무광을 떼어 방을 만들어 준다. “사랑이 남편의 방이라면 안방은 아내의 방이 되련만 아내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뉘 집이건 안방은 개인의 방이 아니라 식구들의 방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¹¹³⁾ 그렇게 얻게 된 방에서 아내는 남편 몰래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알고 보니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순서껏’ 죽게 해달라는, 연고로 인해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소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지닌 상처로 인해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노부부는 자신들의 아들네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운전자가 즉사하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작품의 끝이 난다. 가족 모두가 무탈하기만을 바랬던 아내의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

3편은 화자가 자신의 친가의 식모살이를 했던 만수네를 관찰자 입장으로 서술한 것으로 만수네가 일제강점기부터 어려운 살림을 유지했는지-식모의 딸로 태어나 시집을 갈 때까지 식모살이를 했어야 했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 모든 집안 일과 굶은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 이전부터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의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었으며 식모살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¹¹⁴⁾

4편에서는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 늦깎이 학생 남편이 출근하는 습관을 유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2>, *저문 날의 삽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05

113)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5>, *저문 날의 삽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64

개인적 공간이 결여된 주부들의 일상 모습은 <저문 날의 삽화>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이는 한 개인으로 존중 받지 못하는 주부들의 삶과 더불어 그녀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만연함을 알 수 있다.

114) 이는 주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1980년대까지 아파트 주거평면에 식모방이 존재했다는 것을 통해 식모살이가 당대 사회에 만연하였는지 알 수 있다. “주문주택이 아닌 아파트에서 식모방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68~1969 년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 평형 미만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던 식모방이 중산층 아파트의 등장과 맞물려 30 평형 규모에 이르러 뚜렷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와 다른 것이라면 외부공간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엌과 짝을 이루면서 다용도실이나 발코니와 같은 부엌 보조공간과 직접 접촉하도록 한 것이다.”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지*, (서울: 도서출판 집, 2018) 116

지하기 위해 퇴직한 친구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의 출퇴근길을 바라보는 주부의 이야기이다. 기계에 약한 남편은 매번 긴장한 채로 운전대를 잡지만, 아내 앞에서는 용감한 척 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화자는 그가 운전을 하며 각종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벌금을 내는 일이 생기지만 그의 자존심을 위해 남편 몰래 화자가 대신 벌금을 낸다. 화자는 남편과 친정에 갈 일이 생겨 기어코 그가 이전에 브로커를 통해 산 중고차를 타고 여행을 하지만, 결국 차가 고속도로 중간에 서게 된다. 견인차를 부르기 아까워 둘은 같이 내려 인터체인지까지 차를 밀고 가며 신혼 당시 미아리 고개 위로 리어카를 밀고 올라가던 일을 상기한다. 그렇게 둘은 고되지만 같이 공유한 추억을 떠올리며, 소유물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저문 날의 삽화〉는 작가 본인의 삶을 일부 투영하기도, 또는 자신의 삶 속 실존 인물의 성격을 반영하는 식의 자전적 글쓰기 방식을 적용한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주거공간과 여성 전업주부의 역할의 상관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며¹¹⁵⁾ 이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냉전과 근대화-를 겪으며 한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상흔과 트라우마적 기억을 담고 있다.

3.1.2 발코니에서 드러나는 상황

화자는 발코니의 화분을 통해 자신의 제자 가연의 상태를 살핀다. 관리실의 권유로 인해 이웃주민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구입한 베고니아 화분이 가연의 집에만 걸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가연이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추측한다. 화자는

115) “우리의 재래식 가옥이 여자에게 더 불편하게 돼 있다는 건 대물림의 한옥에서 처음으로 개량 주택으로 이사갔을 때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름난 반가는 물론 시정의 여염집, 시골 구석의 초가삼간에 이르기까지 일괄되게 악착같이 고수해온 기본적인 틀이 여자에게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악랄하고도 교묘하게 설계된 형(刑)틀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손수 집을 고쳐보고 나서였다.”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5〉, *저문 날의 삽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57

남에게 깊이 공감하는 자신의 성미를 탓하지만, 또한 그만한 사정이 있을 가연
을 걱정하며 자신과 동일시하며 공감하였던 자신의 제자를 떠올린다. 그러한 모
습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가 타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타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발코니에 걸린 화분을 통해 현대인들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무관심과 개성을 상실한 모습, 또한 진정한 자신의 모습보다 ‘남에게 투영
되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알 수 있다. 이때 발코니는 건물의 외
면 또는 파사드를 구성하는 요소로 궁극적 문제 해결이 아닌 피상적으로 문제
를 회피하는, 기성품으로 최저가의 노력으로 걸면만 치장하고 마는 현대사회의
표상이기도 하다.

① 집집마다 일제히 베고니아 화분을 창문 밖 화분대로 내놓아 화사한 봄
기분을 내고 있었다.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실의 권고로 일괄
구입한 장방형의 화분은 소복소복 다복술 만큼씩 한 걸 세 포기씩 심은 거
여서 공장에서 막 출하한 제품 같았다. …… 나에게서는 생명을 건강하게 하
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맹신과 그 힘을 정작 쓰고 싶은 데 다는 쓸 수 없
는 안타까움이 타는 듯한 느낌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속에서 활활 열
불이 날 것 같은 예감에 지레 괴로워하면서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¹¹⁶⁾

② 유리창을 닫으려다 말고 나는 고개를 내밀고 바로 위층 베란대를 올려
다보았다. 아들과 함께 자목련나무 꼭대기를 쳐다볼 때처럼 하늘빛이 너무
밝아 눈이 아렸다. 위층 화분대는 비어 있었다. 베고니아 화분은 꼭 사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샀어도 밖으로 안 내놓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나는 위층 가연이네 화분대만 비어 있는 걸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내외간의 불

116)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2〉, 88

화, 생활에 대한 자포자기의 과시, 정신적 황폐 등등 타고난 팔자인 걱정은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다.¹¹⁷⁾

③ 더는 미움과 두려움 때문에 사위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게끔 가연이 아버지 사업이 망해버린 것이었다. 부도를 냈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도 불원간 내쫓기게 되리라고 했다. 약간 험쵸해지긴 했어도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가연이가 그 얘기를 나에게 해준 게 바로 엇그저께였다. 화분대가 비어 있는 것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걱정도 팔자인 성미 때문만은 아니었다.¹¹⁸⁾

〈저문 날의 삽화〉의 4편에서 아내가 남편의 출근길을 마중과 배웅을 하는 장면이 나오며, 그렇게 운전길을 조심하길 바랬던 그녀의 모습은 복선이 되어 5편에서 그녀가 가장 바래왔던 소원-가족 모두 ‘순서껏’ 죽기를 바라는 것-과 반대로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 또는 며느리가 죽음을 당하는 결말을 맺게 된다.

④ 남편은 그럭저럭 차를 잘 끌고 다녔다. 그러나 매일 아침 목숨을 건 사명을 띠고 출동하는 결사대처럼 비장하게 얼어붙은 남편의 표정을 훑쳐보는 고통으로 피가 마르는 듯 했다. 안방 앞 베란다로 나가면 남편이 차고에서 커브를 틀어 통과하는 축대 밑 길이 뻗히 보였다. 처음엔 그의 앞모습을, 다음엔 옆모습을 그리고 뒷모습을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할 수가 있었다. 떨어진 거리에서 유리창에 얼비친 남편의 표정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것이었다. 정말이든 단지 그렇게 보였던 간에 그때 본 남편의 비장한 표정은 온종일 내 뇌리에 늘어붙어 온갖 망상

117)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2〉, 92

118)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2〉, 103

의 근거가 되었다. 늙음과 필사적은 얼마나 안 어울리는 양극인가. 급한 불
일이나 때돈을 벌러 나간다면 모를까 다만 출근의 습관을 못 잊고 흉내 내
는 데 불과한 출타에 그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고
개를 길게 빼고 그의 퇴근을 기다렸다. 안방 베란다에서 상체 밖으로 한껏
내밀면 우리 골목으로 통하는 큰길까지 내려다볼 수 있었다.¹¹⁹⁾

3.1.3 발코니 표현 및 연출 방법

〈저문 날의 삽화〉 2편은 관리실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과 위 아래층 발코니
(베란다)에 베고니아 화분이 달려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 화분을 둘 수 있는 간이 화분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시공사에 의해 일괄적으로 새시 설치 및 반-내부화된 발
코니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위층의 가연의 가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대신 발코니에서 몸을 빼내어 고개를 올려다보며 화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마중과 배웅의 범위는 집에 오는 타인을 맞이하거나 인사하기 위한 공간
내로 볼 수 있으며 출입객의 왕래를 볼 수 있는 집 ‘밖’ 공간이어야 한다.¹²⁰⁾ 현
대 집합주택의 양태는 집 ‘밖’을 정의하는데 모호함이 있어 마중과 배웅의 범위
를 지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때 화자가 발코니에서 남편의 출퇴근길을

119)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4〉, *저문 날의 삽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147

120) “배웅은 나가는 손님을 일정한 곳까지 따라 나가서 작별하여 보내는 일이고 마중은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웅과 마중의 개념은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예전의 우리나라 전통주거는 집을 감싸는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까지 다다르게 하는 길이 있었다 따라서 방문하는 손님은 이 공간들을
거쳐야 하였고 집주인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배웅을 위해 집밖을 나서야만 했다.”
“show~(somebody)~the door”이라는 표현처럼 집의 현관문까지 손님을 배웅과 마중을 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문 밖까지 손님을 대우하는 것을 예외로 여겼다. 김태식, 최동현,
“사회적 소통을 위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배웅과 마중 개념을 적용한
다가구주택 계획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 10,
(2019): 917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추측하며 같이 긴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방 베란다에서 상체 밖으로 한껏 내밀면 우리 골목으로 통하는 큰길까지 내려다볼 수 있었다”는 화자의 서술을 통해 마중과 배웅의 범위가 집의 현관문에서 발코니에서 상체를 밖으로 내밀면 보일 수 있는 큰 길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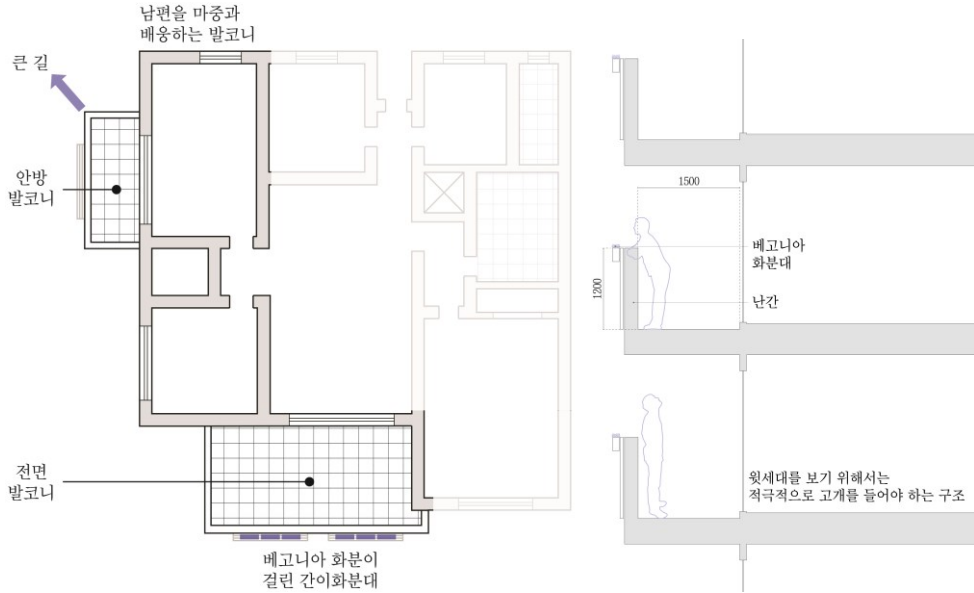
2편과 4편 모두 화자가 위층 발코니를 살피고 멀리 남편의 차를 보기 위해 발코니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바라보는 공통된 자세가 등장한다. 발코니가 난간에 의해 몸이 전부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이에 기대어 몸을 빼면 비교적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또한 외부로 노출되는 만큼, 발코니의 단면적 시선의 범위가 더 확장됨-2편에서는 수직적으로, 4편에서는 수평적으로 시야가 확장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야의 제한은 발코니의 적층형태와 새시 설치로 인한 발코니의 형태로 인해 한정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타인을 살피기 위해 더 멀리 보기 위한 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발코니의 공간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며 동시에 발코니의 공간적 역할을 규정한다.

3.1.4 발코니가 갖는 의미 및 상징성

〈저문 날의 삽화〉 1편과 4편에서 등장하듯이 화자가 발코니와 ‘안방’ 발코니를 구분하는 서술을 토대로 거실과 안방이 인접하여 서로 통하는 ‘전면’ 발코니의 형태가 아닌 다른 면에 달려있는 방식의 발코니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3-1]은 2.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부분형 발코니와 전면형 발코니가 혼재하였던 점을 참고하여 1968년도에 지어진 힐탑아파트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화자의 생각과

121)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4〉, 147

행동을 통해 베란다 또는 발코니라는 공간이 거실 또는 방으로 편입되지 않은 채 다른 주거 공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저문 날의 삽화>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2편의 발코니에서 화자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단순히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공통으로 겪는 마치 운동권 양아들을 둔 화자와 운동권 남편을 둔 가연의 피상적 동정(sympathy)이 아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희생을 강요 당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선택권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는 두 여성의 공통된 상황에서 기인한 같은 심리 상태를 느끼는 공감(empathy)으로 두 여성이 연대하는 계기가 된다. 다른 세대, 다른 위치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하는 상황의 배경으로서 발코니는 동일선상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서로를 볼 수 있게 한다.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단순히 한 사람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화자의 오래된 고통과 상처에서 기인한 것임을 당장의 상황을 통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발코니에서 남편의 귀갓길을 살피는 상황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화자와

작가 모두의 간절한 염원은 한국 현대사에 의해 더 이상 가족들이 희생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었다. 그 간절함이 발코니에서 발현되고 있다.

이처럼 건물에 일괄적으로 설치된 발코니는 서로의 위에 쌓이고 쌓이지만, 외부로는 고개를 내어 그 위·아랫층을 볼 수 있다. 이는 발코니의 형태와 공간 내 배치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주거 내 공간 중 발코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 발코니에서 사람은 위아래를 살필 수도, 더 멀리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타인을 단순히 떠올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웃과의 단절, 삭막한 주거 환경을 떠올리는 아파트에서 타인과의 연결과 만남의 시작인 타인에 대한 관심이 행위로 나타나는 공간으로 발코니는 의미를 갖는다.

3.2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

3.2.1 작품소개

〈아주 오래된 농담〉은 1999년부터 일년간 〈실천문학〉에 연재되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물신주의 풍조 혹은 자본주의의 허위에 관한 주제의식”을 다루었다.¹²²⁾ 영빈과 여동생 영묘를 주인공으로 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영빈의 여동생 영묘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남편을 만나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된다. 의뭉스러운 시집살이에도 시할머니의 귀애를 받은 그녀는 두 아들을 순산하고, 곧 독립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지낸다. 하지만 이도 머지 않아 남편의 유전병으로 인해 곧 행복이 깨지고 만다. 결핵일줄 알았던 남편의 병은 알고 보니 암이었고, 영묘는 영빈의 진료와 치료를 부탁하지만, 송회장댁은 이를 모두 무시한다. 결국 영빈에게 병의 원인조차 비밀로 한 채 양약이 아닌 한약과 무속신앙으로 그를 돌보기로 한다. 남편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묘는 시댁에 떠밀려 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과부가 된 영묘는 시댁의 인사치레에 맞추어 성대한 장례식과 삼우, 백일 탈상, 사십구제 등 진정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하고 시댁의 행사를 주최하느라 정신없이 보낸다. 그 이후로도 어린 아들들을 인질로 잡혀 남편의 유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채 시부모의 꾀임에 속아 시댁에 얽매이게 된다. 빈털터리가 된 영묘를¹²³⁾ 영빈은 이 사실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하는 형에게 전하고

122)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51, (2012) 431-455,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서울: 민음사, 1991) 재인용

123) 송회장댁은 외인인 며느리 영묘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려 용의주도하게 아들의 죽음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음을 깨닫고 영묘는 절치부심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 못다 한 변호사 공부를 더 하겠다고 요구하자 송회장은 종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강조하며 그녀의 발길을 막는다.

그는 한국에 금의환향하여 영묘를 데려간다.

한편, 영빈은 자신의 첫사랑인 현금을 잊지 못하면서도 어머니의 위신에 어울릴 직업과 아내를 맞이하여 크게 불평도 감사해하지도 않으며 세월을 보낸다. 어느 날 현금과 다시 마주하게 되고, 영빈은 그녀와 전남편과 이혼한 채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그녀와 만남을 이어가며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영빈은 주에 한 두 번 그녀를 찾아가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가 사는 집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 다용도실에서 혼자 강변북로를 바라본다. 아내가 기를 써서 아들을 양태하자 현금과 영빈은 헤어진다.

영빈의 어머니와 영묘의 시댁 송희장택은 전근대적 위신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지만 현대적 풍요와 자본을 추구한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실제 소비보다 이미지의 소비에 더 중점을 두었으며” 예컨대, 영빈의 어머니는 남편이 부정공무원으로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했을 때도 남편의 실직보다 그의 불명예를 더 치욕스러워하며, 남편이 죽은 후에 낳은 영묘를 불륜보다 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송희장택과 같은 경우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우리 집안의 장손에다가 우리 Y그룹을 이어갈” 아들로 가족보다 그의 사회적 위치와 효용을 우선시하다가도, 영빈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상훈이 외삼

“경호에 대한 원망이 거기까지 이르자 퍼뜩 눈 뜨고 죽은 경호의 죽음이 떠올랐다. 전신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새삼 경호의 죽음이 무서워진 건 아니었다. 산 사람들이 무서웠다. 경호가 죽는 순간까지 암에 걸렸다는 걸 모르도록 주위사람들이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신경을 쓴 것은 그가 처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유연마저도 남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서울: 도서출판 세계사, 2014) 234

이를 딱히 여긴 영빈은 자신의 형 영준에게 영묘의 사정을 편지로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 뒤 영준은 모교에 10 억원을 기부하며 귀국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송희장에게 과시한다. 이에 속아넘어간 송희장은 영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영묘의 유학을 흔쾌히 허락하며 심지어 비용도 대준다.

“그를 굴복시킨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의 씹힘이야. 그 졸부, 모교에 다 조건없이 백만 불 절대로 못 내놔, 하긴 지 이름이 붙은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준다면 또 모르지만,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하는 걸 보고 질린 거야. 내가 강자로 보인 건 그런 점이지 실질적인 재산의 비교가 아니니까 그런 걱정 할 것 없어.”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97

이와 같은 대목에서도 실질적 소비(영묘의 독립과 유학 비용)보다 이미지 소비(영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비용)에 더 열을 올리는 송희장택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의 모순과 자본주의에 의해 와해되는 가족애(愛)에 대한 경시를 느낄 수 있다.

촌”으로 가족관계를 위시하기도 한다.¹²⁴⁾

〈아주 오래된 농담〉은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현금’이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도의 결합에 의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 치유하여 자기자신 이외의 어떤 외부적 조건에도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지난 날의 상처에 굴복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¹²⁵⁾ 이로써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모순 및 폐해를 고취시키는 근대의 질서를 해소하고 탈근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3.2.2 발코니에서 드러나는 상황

영빈은 현금의 첫 인상을 떠올리며 그 이후로 그녀를 위한 것인지,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 자신도 잘 모르지만 의사가 된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 의사가 되겠다는 장래희망 발표 이후 현금의 짓궂은 장난-영빈과 같이 의사가 되겠다는 친구를 두고 둘 중 누구와 결혼을 할지 앞으로 고민하겠다는 그녀의 선포-뒤에도 계속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의 집을 기웃거리지만 결국 그녀는 이사를 가고 그 뒤로 만나지 못한다. 의사가 되고서도 동기를 통해 그녀가 이미 결혼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현금을 마주치게 되었고, 영빈은 현금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다.

① 영빈은 현금의 집을 알고 있었다. 이층집이었다. 여름이면 이층 베란다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타고 능소화가 극성맞게 기어올라가 난간을 온통 노을 빛깔의 꽃으로 뒤덮었다. …… 이층집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현란한 능소화 때문에 그 집이 그 돈에서 특별나 보인 것이지, 그 안에 누가 사느

124) 최선영, 437

125) 최선영, 449

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이 있는 후 그 이층집은 확실하게 현금의 집이 되었다. 영빈에게 그 집이 특별한 집이 되었을 때는 이미 겨울이어서 능소화의 자취는 이층 난간에 검부러기처럼 겨우 남아있었고 베란다로 난 창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통유리로 된 창문 뒤에서 현금이 내다보고 있을 것 같아 영빈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졌다. 우스꽝스럽게 걸었다는 낭패감 때문에 그 집 앞을 비껴가고 싶기도 하고, 요 다음에는 더 멋있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집 앞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려지기도 했다. 일없이 괜히 배회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창문 뒤에서 현금이 그의 속마음까지 뻘뻘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 무렵 그는 곧잘 능소화를 타고 이층집 베란다로 기어오르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창문은 검고 깊은 심연이었다.¹²⁶⁾

영빈은 현금을 만나지 않는 날에는 집의 다용도실에 혼자 들어가 창 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내 동과 동 사이로 드러나는 강변북로의 모습을 보며 그녀를 떠올린다. 냉난방으로 사시사철 온기가 가지지 않는 집 내부와 달리 다용도실 또는 후면 발코니는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통한다. 이곳에서 영빈은 그 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명예에 대해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현금을 떠올리며 설렘을 느끼기도 한다.

② 곁에 있어도 한강만큼의 거리가 느껴지는 현금, 헤어져 있어도 예민한 현 같은 게 당겨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녀, 그 소통의 끈은 미세한 바람에도 오묘하게 떨릴 것처럼 긴장돼 있었고, 영빈은 그 소리를 가슴으로 들을 때 살아 있음의 번뇌와 희열을 오싹하니 실감하곤 했다. 다용도실은 그의 집에서 유일하게 정돈되지 않은 채 버려진 여백이었다. 그 0.7평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한 개비의 담배보다 더 속절없다 해도 그보다

126)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16-17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텅 빈 느낌은 얼마나 황홀한가. …… 한눈 한번 안 팔고 도달한 지점은 아직도 올려다볼 고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대로 머물 수만 있다고 해도 자족할 만하고, 누가 넘보거나 흔들어댈 수 없는 확실한 자리이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빠끔하니 뚫린 공간을 통해 불빛이 질주하는 강변북로를 보고 있으면 그 모든 성취감이 숨이 막히게 답답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허망감을 모를 때는 설레임도 없었다. 설레임이 시작되자 차곡차곡 쌓아온 경력의 커가 쉬어터진 시루떡 만큼도 중요하지 않아졌다.¹²⁷⁾

③ 그는 이 진부한 평화를 조심스럽게 견디며 식사를 하고 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웬 난방을 이렇게 몹시 하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다용도실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한 구실이기도 했다. 다용도실은 한 평도 채 안되지만 북쪽 벽이 속 시원한 통유리일뿐 아니라 난방이 안 들어오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속 시원하게 강변북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인색하게 뚫린 앞의 동과 동 사이에 낀 강변북로의 불빛은 불뚱처럼 허망하게 생성하고 소멸한다. 강북의 아파트도 한 동이 겨우 보인다. 현금의 아파트가 아닌데도 그 중 볼 꺼진 창이 그녀의 집일 것 같다.¹²⁸⁾

영모는 남편이 입원하는 동안 병간호 때문에 시댁의 권유를 위장한 강요로 이사를 한다. 집의 구조, 동과 집 호수뿐만 아니라 식기의 위치까지 모두 동일하게 그대로 복사해놓은 것과 같은 새 집에서 영모는 편리하기보다 “감쪽같은 이사가 마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공갈협박”으로 느낀다.¹²⁹⁾ 남편의 죽음

127)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83-85

128)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109

129) “영모는 차가 단지 밖으로 사라진 후에도 한참 멍하니 서 있었다. 밖에 나온 김에 동네가 전에 살던 동네와 어떻게 다른가 찾아내려고 했지만 전에 살던 동네가 어떠했는지 거짓말처럼

이후로 영묘의 집은 더 이상 사적 공간이 아닌 시택의 부름대로 사용된다. 백일 탈상을 준비하기 위해 영묘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송회장은 자신의 비서를 보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구 배치를 옮기며 준비를 한다. 이에 질린 영묘는 송회장에게 항의하지만, 효과가 없자 시할머니께 부탁하여 겨우 단지 내 대대적으로 젊은 과부와 어린 두 아들이 사는 집이라고 소문나는 것을 막는다.

④ 백일 탈상을 며칠 앞두고 다시금 영묘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방 차장이 나와서 아파트 내부 구조와 가구의 배치 등을 요모조모 살피며 소파는 뒷베란다로, 의자와 조립이 되는 식탁은 접어서 앞베란다 쪽으로,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실내공간을 넓힐 수 있나를, 영묘하고는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끄덕끄덕 궁리도 하고 수첩에 그려도 보다가 돌아갔다.¹³⁰⁾

⑤ 그래서 사전 답사를 시켰다는 것이었다. 송 회장의 백일 탈상 구상은, 하루 전에 집 안의 가구를 베란다나 주차장 등으로 치우고 당일날은 문상객을 위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방명록을 펼쳐놓고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현관문 앞에서 승강기 쪽으로 화분을 배치하고, 아파트 입구에는 상가 표시판을 설치해서 외부에 알리고 이 모든 관경을 비디오 촬영팀을 불러 촬영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집은 아이들하고 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이지 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버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가구를 내놓는다고 집이 넓어지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넓어진다고 가정집이 행사장이 됩니까? 차라리 벽을 다 허물어버리지 그러세요?”¹³¹⁾

생각이 나지 않았다. 전에도 대단지었는데 여기서도 대단지인 듯했다. 앞뒤 좌우로 아파트밖에 안 보였다.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서 허둥대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습관적으로 숫자를 눌렀는데도 바로 찾아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177-178

130)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37

131)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38

⑥ 이사 오자마자 병구완과 장례 등 큰일을 치르느라 이웃과는 아무하고도 인사 한 마디 없이 지내온 터였다. 아파트란 워낙 그런 곳이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표나게 행복할 필요도, 불행한 집이라고 지지공상을 떨 것도 없는, 오직 평준화된 경제수준만이 안전한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다. 안 알려 해서가 아니라 알릴 필요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 영묘가 과부가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상중도 아닌 백일 탈상에 상가라는 안내판을 써붙여 단지 내에다 나 과부됐네, 광고를 치라구. 상훈이 상국이 요새 한참 나가자고 보채는 아이들을 동네사람들한테 불쌍한 아이로 손가락질 당하라구. 그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막아야 한다.¹³²⁾

영빈은 시댁에 엮매여 온갖 집안 행사일을 도맡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영묘를 친정으로 초대한다. 그는 영묘의 의중을 듣고 싶어하지만 영묘는 쉽게 말문을 열지 않는다. 영빈은 그녀를 위해 시간을 내어 발코니에 같이 앉아 와인을 마시며 영묘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영빈은 영준에게 보내는 편지에 영묘의 속 이야기-시댁은 모두 자신과 남편을 속이고 있었고 며느리인 자신에게 한 푼도 물려주기 않기 위함이었다는 그녀의 추측-을 전하는데 영빈도 또한 그녀의 말에 동의를 하며 동정한다.

⑦ 늦도록 베란다에 마주앉아 포도주도 마시면서 술주정이라도 좋으니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두지만 말고 털어놓도록 유도를 했지. 술이 하루하루 세지면서 차츰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 그 애는 시집식구들이 합세해서 교묘하게 송 서방과 자기를 속여 먹었다고 믿고 있어. 송 서방이 암이라는 걸 알까 봐, 온 식구가 그렇게 철통같이 뭉쳐서 그가 죽는 순간까지 비밀을 지킨 것은 순전히 송 서방이 처자식을 위해 유언이나 그 밖에 대책을 세울 기회를 안 주기 위한 거였다는 거야. 어때? 형. 고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의

132)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39

상상력치곤 너무 끔찍하잖아. 그렇지만 난 지금까지의 각종 정황으로 미루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어. 송 서방도 그 애도 철저하게 속은 거야. 송 서방은 모르고 속고, 그 애는 알고도 속아주고, 둘 다 속여먹기 좋은 순진 덩어리들이었으니까.¹³³⁾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빈은 크게 놀란다. 그는 딸이던 아들이던 상관하지 않고 모두 사랑했으나, 그의 아내와 어머니는 달랐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는 자책감을 매번 느끼고 있었고, 오히려 타박하지 않는 남편에게 반박할 수도 없자 그녀의 자존감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장제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연 중에 매번 아들의 중요성을 드러냈고, 아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아내가 늦둥이 아들을 임신하였고, 이 소식은 영빈에게 경종이 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그는 현금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을 소식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현금에게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다. 현금은 불임 클리닉에서 서로를 모른 채 아내를 만났으며, 아내가 얼마나 아들을 원하고 또한 이를 위한 처절한 노력을 옆에서 목격한다. 현금은 자신도 영빈의 아이를 원했으나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아내를 그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영빈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식을 영빈에게 전한다. 영빈은 현금과의 이별 통보에 오랜만에 다용도실에 들어가 앞으로 현금을 볼 수 없다는 슬픔과 더 이상 그의 삶의 탈출구가 사라졌음에 대한 상실감 사이에서 어지러운 심경을 정리하려 노력한다.

⑧ 그는 아내가 잠들 새를 못 참고 손을 빼낸 김에 일어나서 잠자리를 빠져 나왔다. 목이 말라 나온 것처럼 일부러 소리 내어 냉장고 문을 열었다

133)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60

닫고 다용도실로 갔다. 난방이 안 들어오는 다용도실 속 공기는 상큼했다. 오랜만이였다. 현금이와의 아찔한 혼외정사가 관습적인 게 되고 나서 일부러 다용도실에 들어가는 일도 안 하게 되었다. 그는 오래간만에 강변북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애뜻한 그리움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아내한테서 임신소식을 들으면서 뜨끔했던 것은, 반사적으로 떠오른, 현금이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게 아마 그의 최소한의 양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았다. 나는 새로운 공기가 필요해.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었다. 이 케케묵은 족보냄새에 질식하지 않으려면 별 수 없다고 생각했다.¹³⁴⁾

⑨ 영빈은 구정물을 뒤집어쓴 개보다 더 비참하게 내쫓겼다. 그날 밤 그는 거의 날이 새도록 다용도실에 웅크리고 강변북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관능적인 쾌락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럴 수는 없어. 이견 악몽이야. 그는 위로 받을 길 없는 허전함을 현실로 받아들여기가 싫다.¹³⁵⁾

⑩ 현금이의 명령 한마디로 맥없이 물러난 내 힘으로는 털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리라. 그는 다용도실에서 밤새 차게 식은 몸이 아내에게 닿을까 봐 침대 가장자리에 새우처럼 몸을 오그렸다.¹³⁶⁾

이처럼 〈아주 오래된 농담〉은 아파트 베란다(전면 발코니)와 다용도실(후면 발코니)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노대로서 베란다(발코니)도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①에서 처음 등장하는 어린 시절 현금이 살던 이층집의 베란다(발코니)와 그곳에 핀 능소화는 영빈의 풋사랑과 현금의 야망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소재로 사용되고, ②, ③, ⑧, ⑨, ⑩에서 나타나듯이 영빈의 집 다용도실(후면

134)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79

135)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88

136)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290

발코니)는 영빈의 주체적이지 못한 삶 속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사용된다. ⑦에서는 영빈은 그의 집 베란다(전면 발코니)에서 시댁으로부터 ‘구출’한 영묘의 사정을 들으며 가족간의 정을 느낀다. ④, ⑤, ⑥에서 영묘는 소유를 박탈당한 집에서 송회장의 비서 방실장이 가구를 발코니로 치워도 제지하지 못하며, 이때 발코니는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공간으로써 수납공간으로 여겨진다.

3.2.3 발코니 표현 및 연출 방법

①에서 현금의 집 발코니는 영빈에게 ‘이층집’이라는 동경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층집에 대한 동경은 ‘불란서식 주택’과 ‘불란서식 미니 2층’의 유행에서도¹³⁷⁾ 볼 수 있듯이 영빈이라는 주인공에 한정되어 있는 동경이 아닌 당대의 사회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의 ‘새로 유행하는 주택’은 “멋없이 크기만 한 알루미늄 창틀, 알루미늄 도어들, 어설픈 아취 오픈, 쓸모가 분명치 않은 베란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 모티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¹³⁸⁾ 영빈은 발코니 위의 현금이 자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걸음걸이에 신경 쓰는 등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두 남녀 주인공의 만남처럼 능소화를 타고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는 꿈을 꾀는다. 영빈과 현금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결국 사회의 반대(기혼인 영빈과 불임인 현금)에 부딪혀 사랑이 이어지지 못한다.

137) “ ‘미니 2 층 양옥집’에 윤승중이 지적한 ‘불란서식 지붕’이 보태지며 1970 년대의 주택 양식은 ‘불란서식 미니 2 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에도 없다는 ‘불란서식’이라는 형용어가 집 앞에 붙은 까닭은 세련미와 더불어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그 무엇을 지시하기 위함이었을 게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당연히 서양이고 그림 같은 집이 있을 곳으로 상상되었으니 ‘양옥’을 빼고 ‘불란서식 미니 2 층’하면 욕망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터.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져야 했으니 ‘부잣집’을 표상하는 것 또한 당연했다.” 이층집에서 산다는 것은 양옥집에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당대 재래식 가옥보다 서양식 양옥에 대한 선호는 기능적 효율과 편의성을 넘어 부의 과시와 자산적 가치의 측면에서 더 중시되었다.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관*, 39

138)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관*, 37, 윤승중, “한국 주택 건축의 실상: 1970 년대 주택 건축양식”,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1981, 9 (1981): 38 재인용

“능소화가 만발했을 때 베란다에 서면 마치 내가 마녀가 된 것 같았어. 발 밑에서 장작더미가 활활 타오르면서 불꽃이 온몸을 핏는 것 같아서 황홀해 지곤 했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잔다르크처럼 되는 꿈이 왜 불순해. 이 세상엔 분명히 자기를 희생할 만한 가치있는 것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모독하지 마.¹³⁹⁾”

발코니 아래 핀 능소화는 다홍색의 꽃밭 위의 현금 자신의 모습을 마치 불길 위 놓인 잔다르크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진정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잔다르크가 되고 싶었던 어린 현금의 모습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적 이기심과 대비되며 이후에도 사회적 시선과 자본을 초월한 채 자아를 실현하는 인물로 성장한다. 더불어 자기희생을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보육원의 아이들이 보육기간이 끝난 뒤에 사회에 자리잡을 때까지 터전을 제공-한다.

②, ③, ⑧, ⑨, ⑩에서 나타난 다용도실의 모습은 영빈이 그 동안 주체적이지 못하였던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답답한 심경과 자기연민에 빠져 가족들로부터 숨는 공간이다. 영빈은 다용도실을 집에서 유일하게 정리되지 않은 공간, ‘여백’으로 생각하며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비로소 영빈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아파트의 후면에 위치한 다용도실은 강남에 살고 있는 영빈이 강북에 살고 있는 현금을 향하여 그리움과 설렘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북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은 난방도 되지 않고 단열이 되지 않아, 내부에 있음에도 집밖의 기후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환기는 영빈의 고뇌하는 마음에 환

139)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46

기(換氣)뿐만 아니라 현금에 대한 환기(喚起)이기도 하다.

다용도실은 부엌의 보조공간과 수납공간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전통주택의 마당의 쓰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사용하는 외부공간인 마당이 실내에 들어오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으로 축소되었지만, 다용도실에 대한 필요성은 거주자에 의해 대두되었다. 서구적 생활양식을 답습하면서 더불어 도입된 아파트의 주거형식에 다용도실이 필수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보아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 부엌 보조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면 단열의 이유로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¹⁴⁰⁾ 다용도실은 가사노동에 밀접한 쓰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부가 다용도실을 사용하는 모습은 지극히 일상적일 수 있으나 영빈처럼 가장이 다용도실에서 이와 같은 사색을 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 설정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다용도실에 대한 공간적 해석을 폭넓게 확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⑦에서는 영빈이 영묘와 와인을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주방 또는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시지 않고 발코니에 나와 와인을 마셨다는 점에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④, ⑤, ⑥에서는 송회장의 일방적인 강요로 영묘가 살고 있는 집을 잔칫집 또는 행사장으로 만들려고 집 안의 가구들을 모두 발코니에 두려고 했다는 점을 통해 발코니는 이 ‘행사’에 쓰이지 않는 부수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외부공간이면서도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자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일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진 발코니는 주거공간 내 다른 실(室)보다 다양한 의미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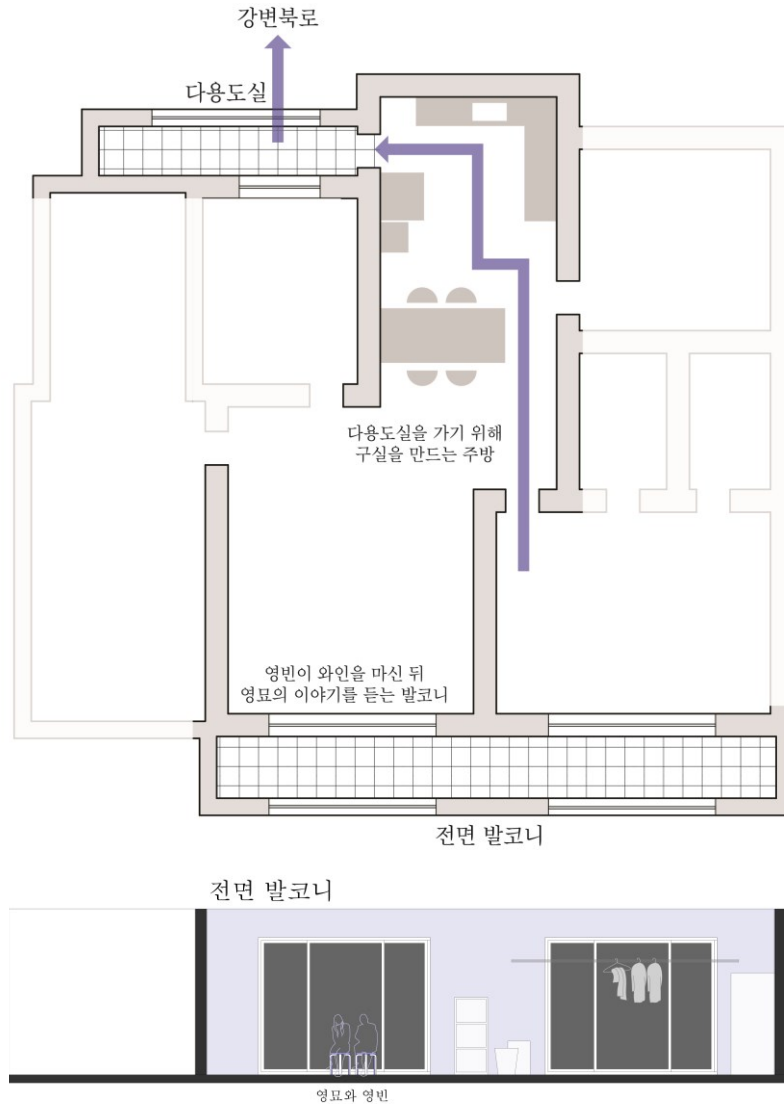
140)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관*, 140-148

3.2.4 발코니가 갖는 의미 및 상징성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발코니는 빈번하게 등장하며 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어린 시절 현금이 살던 집의 발코니는 아파트 발코니가 아닌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이층집 발코니였다. 이에 따라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드높여지는 공간 혹은 단으로써 사용되며 영빈에게는 권위 또는 무대의 의미를, 현금에게는 자기희생의 제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영빈의 집 다용도실은 주방 보조공간의 후면 발코니의 기능보다도 그에게는 피난처이자 안식처이며 자아성찰 하는 공간이다. 자신이 이룬 업적에 허무함을 느끼고 책임과 의무- 장남의 몫까지 떠안아 어머니의 기대와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식구들과 여동생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쳐있을 때 가족으로부터 숨는 개인공간이다. 이때 나타난 현금은 그에게 옛 감정과 함께 신선함과 설렘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에는 발코니는 현금이 그리워질 때마다 찾는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집에 있으면서도 외부로 통하는 공간으로써 발코니는 그가 환기하는 공간이다.

셋째, 영빈이 영묘를 초대하여 와인을 마시는 발코니는 출가외인인 영묘가 친정에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 시댁에서의 곤경을 자신의 오빠인 영빈에게 그녀의 고충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차마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친아들을 속이고, 손주를 인질 삼아 며느리를 시댁에 구속시킨다는 이야기를 남에게도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오빠에게 발코니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발코니가 있다. 집안과 밖의 경계인 발코니는 친정과 시댁 모두 외인 취급을 받는 여성에게는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것이다.



[그림 3-2] <아주 오래된 농담>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그림 3-2]은 작품의 주인공 영빈이 살았음직한 집의 발코니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으로 강남에 사는 영빈이 강북에 사는 현금의 집을 바라보기 위해 북향의 다용도실을 찾았다는 점과 어머니를 모시고, 두 딸 아이와 함께 살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988년에 지어진 도곡한신아파트의 평면을 참고하였다. [그림 3-2]를 통해 안방에서 나와 냉장고에 마실 것을 찾는 시늉을 하다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영빈의 동선을 상상할 수 있으며, 거실을 포함한 거실을 뒤로하고 영빈과 함께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숨을 돌리는 영묘의 모습 또한 다

이어그램을 통해 떠올릴 수 있다.

다용도실과 전면발코니 모두 인물들이 안을 등지고 밖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빈은 북향의 다용도실에서 현금을 떠올리며 바라보고, 영묘는 자신의 오빠와 함께 자신에게 짐이 되는 가족과 친정, 시댁을 등지고 나란히 밖을 바라보는 자세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세를 유발하는 발코니는 그저 주거 내 안과 밖의 중간공간이라는 것을 넘어 ‘집’ 안에서 안을 등지고 ‘집’ 밖을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상황, 그 상황에서의 사람들간의 관계의 양상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송회장의 비서 방실장이 영묘 남편의 백일 탈상을 위해 가구를 발코니로 치우려고 계획하는 장면을 통해 발코니는 손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는, 가려지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외곽에 면해있는 발코니는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이 된다. 발코니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저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무엇을 저장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코니에 보관하는 물건은 당장은 사용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선풍기나 난로와 같이 계절마다 쓰이는 물건들, 병풍과 제기와 같이 의례에 쓰이는 물건들,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가방 등-의례적인 물건들을 치워두었다가 다시 꺼내는 그런 관습이 되풀이되는 공간이다. 발코니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공간처럼 보이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으면서 동시에 일상과 비일상을 오가는 초월의 공간이다.

3.3 조경란 〈2007, 여름의 환(幻)〉

3.3.1 작품소개

조경란의 소설 〈2007, 여름의 환〉은 이전에 언급한 〈아주 오래된 농담〉과 다르게 다용도실이 내밀한 여성의 공간으로 작용하며 일과 함께 집안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의 삶을 다루고 있다.¹⁴¹⁾ 화자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외도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배신감에 남편에게 싸움을 걸기도 하고 혼자 세탁기 소리 뒤에 숨어 숨죽여 울기도 한다. 그녀는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며 자신을 속이는 티를 감추지 못하는 남편과 달리 완벽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낀다.

어느 날, 그녀는 불미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와중에 자신의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온다. 다행히 아이는 집 안에 있었지만, 발견된 곳은 다용도실이었다. 엄마가 다용도실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는 세탁기에 혼자 들어가 잠에 들었던 것이다. 그 광경을 본 화자는 경악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남편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던 반지가 집 안에서 발견되며 결국 남편은 외도한 적이 없었고 모두 화자의 착각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렇게 남편의 ‘가짜 외도’와 화자의 ‘완벽범죄’는 모두 여름의 해프닝이 되었고 모든 일의 근원일 것이라 여겼던 여름이라는 계절은 지나간다.

141) 살구아저씨, “내밀한 여성공간으로서의 아파트 다용도실_조경란의 〈2007, 여름의 환〉에서”, 살구나무 아랫집, 2011년 2월 4일; 인터넷주소: <https://salgustory.tistory.com/entry/내밀한-여성공간으로서의-아파트-다용도실조경란의-2007-여름의-환幻에서>

3.3.2 발코니에서 드러나는 상황

작가라는 명칭을 가진 화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편과 아이 하나와 함께 가정을 꾸리지만 여름이라는 계절은 기승을 부리며 그녀의 심기를 건드린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화자는 남편을 속으로 책망하며 다용도실에 혼자 세탁기를 틀고 소음에 자신의 울음소리를 묻는다. <저문 날의 삽화>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부로서 여성은 개인적 공간이 없다. 화자는 남편과 아이가 들어오지 않을만한 공간 중 울음소리가 가려질 만한 소음을 내는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에서 사적인 감정을 표출한다.

①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발목에 얼음 팩을 두른 채 절룩거리며 다용도실 문을 열었다. 세탁기 작동 버튼을 누르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 건조기가 돌아가면 그 소음에 맞춰 소리 내서 울기 딱 좋다. 마땅히 혼자 울 데가 없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여자가 세탁기 위에 걸터앉아 다리를 거들거리며 울고 있는 카툰은 나의 대표작이 되었다. 지금 갖고 있는 세탁기는 우리 세 식구가 사용하기 좋은 6.5킬로그램짜리지만 곧 10킬로그램짜리 대형 드럼 세탁기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자주 혼자 울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말이다. 울고 싶은 일이 있는데 어쩌다 세탁기가 고장 나 있으면 무척이나 난감해진다.¹⁴²⁾

② 나보다 먼저 집으로 달려온 남편은 다용도실에 있었다. 남편은 나를 쏘아보면서 채이가 거기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자고 있더라. 남편을 공을 차듯 발로 세탁기를 쿵쿵 걷어차며 말했다. …… 내 말은 목구멍에 걸려서 잘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 와서 몸을 웅크린 채 세상 모르게 쿵쿵 자고 있는 채이의 모

142) 조경란, <2007, 여름의 환>, 풍선을 샀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188

습이 떠올랐다. 그래도 세탁기 속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하긴 세탁기 위에 걸터앉아 우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으니까.¹⁴³⁾

화자의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고 엄마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 나름의 해석을 하며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엄마가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 엄마가 세탁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고, 아이는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도 다용도실에 갔었던 것이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인 화자는 아이에게 그 동안 신경을 써주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큰일이 일어났으면 자신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자책을 한다.

3.3.3 발코니 표현 및 연출 방법

화자는 자신의 카툰 중 세탁기 위에서 우는 주부의 모습이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라고 언급한다.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우는 모습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순간은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방이 없는 주부들은 갈 곳을 잃고 마음 놓고 울 수가 없다. 화자는 지금 식구에게 충분한 6.5킬로그램 짜리 세탁기를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10킬로그램짜리 세탁기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는 대목에서 주부로서 인내하는 고독과 우울을 세탁기의 중량으로 표현하고 있다.

143) 조경란, 〈2007, 여름의 환〉, 195-196

3.3.4 발코니가 갖는 의미 및 상징성

〈2007, 여름의 환〉에서 다용도실의 모습에 대한 직접적인 공간 묘사가 없었지만, 이 다용도실이 사적 공간, 자신만의 방이 없는 주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Kim(2013)은 아파트 내 여성관련 공간을 “아파트 단위 공간에서 사용과 관리의 권한이 주로 주부에게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며 “안방, 부엌, 식당, 거실, 다용도실 및 발코니, 안방 욕실 및 드레스룸·파우더룸”으로 유형화하였다.¹⁴⁴⁾ 안방을 제외하고 여성관련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주로 주거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적 공간으로 사용될 수 없는 곳이다. 더불어 안방도 또한 전통주거에서의 안채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오늘날 부부침실의 성격을 갖고 있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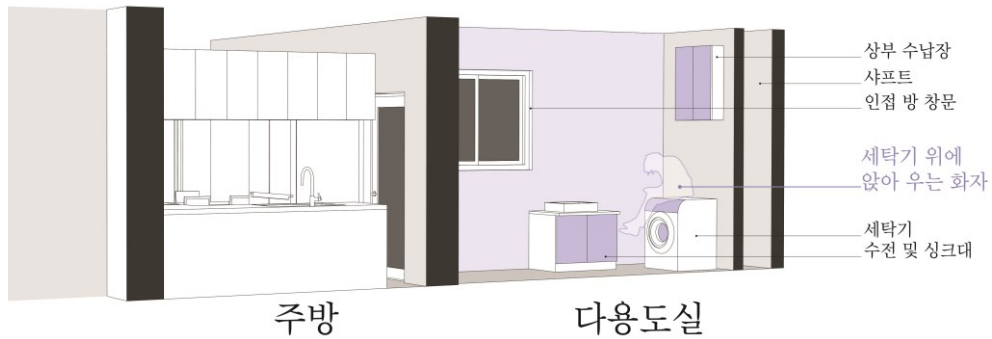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등장하는 다용도실 또는 후면 발코니는 영빈에게 ‘환기’의 공간이 되었다면, 〈2007, 여름의 환〉에서는 이 공간이 화자가 심연으로 빠져 더욱 더 주위를 밀어내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공간이다. 남편과 대화하는 대신 홀로 의심하며 질타하고, 아이가 주는 즐거움을 뒤로 하고 낯선 이와의 쾌락적 만남을 지속하는 화자는 단절과 고립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발코니는 화자의 슬픔을 숨겨주기도, 드러나게 하기도 하며, 또 심화시키기도 한다. 즉, 발코니는 감정의 장(場)이 된다.

작품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작품은 2007년, 즉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2005년 이후에 일어났다. 따라서 화자의 집의 발코니가 확장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주요 사건의 배경이 다용도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발코니의 확장 여부는 사건의 전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2007, 여름의 환〉에서 묘사되는 다용도실의 모습은 다양하지 않지만, [그림 3-3]와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 비로소 솔직해질 수 있는 주부의 삶을 여실히

144) 김준, 조민재, 김원중, “여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공간 형태의 변화 분석”, 한국주거학회 2013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 2, (2013): 207

느껴지게 한다. 다용도실은 전면 발코니와 다르게 세탁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급·배관시설이 있으며,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하지 않도록 단열이 되어 있다. 따라서 다용도실에는 세탁에 필요한 살림물품들-흰 옷과 색이 있는 옷을 구분할 수 있을 빨래통, 세탁세제, 손빨래나 걸레 등을 빨 수 있는 수전, 간이건조대 등-뿐만 아니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수납품들-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김장을 했다면 냉장고에서 금방 쉬지 않도록 내어놓는 김치 등-이 같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3] <2007, 여름의 환>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3.4 소결

소설은 글로써 이야기를 서술 및 전개하는 형식을 갖고 있어 상황 속 배경으로 쓰이는 발코니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물과 상황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인물의 심리나 내면의 표현은 연극이나 영화에 비해 더 직접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 인물들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저문 날의 삽화) 발코니는 건물의 외벽 또는 외면을 구성하는 입면적 요소로, 사람의 얼굴 위 표정같이 발코니를 통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발코니에서 다른 사람의 집의 발코니를 보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집 밖에서 시선이 닿는 곳까지 상대를 기다리는’ 마중과 배웅을 하는 공간으로 아파트라는 주거의 형태에서 기인한 ‘마중과 배웅의 경계-어디까지 마중 혹은 배웅을 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고 있다.

(아주 오래된 농담) 어린 시절 현금의 집에 있는 발코니는 어린 현금에게는 자기희생과 정의실현의 상징인 잔다르크를 상상하며 자신의 열망과 삶의 목적을 깨닫는 공간이었지만, 영빈에게는 욕망과 동경의 대상으로서, 처음에는 부의 상징인 이층집에 대한 부러움에서 자신이 선망하는 현금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투영되는 공간이었다. 영빈에게는 다용도실이 가족들에 대한 책임, 자신의 사회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집에서 ‘바람을 쐬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 영빈은 현금을 떠올리며 현금의 집 방향인 강변북로를 바라보며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괴로워한다. 과부가 되어 남편의 죽음에 슬퍼하기조차도 버거운 영묘에게 시댁의 구속은 영묘를 지치게 한다. 이를 알아본 영빈은 영묘를 친정으로 초대를 하지만 영묘는 시원하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지 못한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모두 외인인 그녀는 발코니에서 비로소 자신의 생각(시댁이 모두 합세하여 자신과 남편을 속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추측)과 더불어 고충을 털어놓는다. 송회장의 부름대로 방실장은 영묘의 집을 정리하며 집안 살림을 발코니로 옮긴다. 이 발코니는 손님들이 출입하지 않는 공간이자 감추어진 공간으로,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밀한 성격을 가진다.

(2007, 여름의 환) 다용도실은 화자가 세탁기 소리에 숨어 가족들 몰래 혼자 울 수 있는 공간을 홀로 감정의 드러내면서도 가족들에게는 감정을 숨기는 공간이다. 내면의 우울을 드러내지 않는 화자는 더욱 심연에 빠지게 되고 고립된다.

발코니에서 인물들은 고개를 빼어 내다보기도, 몸을 기울여 윗집을 보기도, 또한 시선이 닿는 곳까지 멀리 보려고 노력하며 ‘밖’을 본다. 그리고 밖의 풍경을 보며 누군가를 떠올린다. <저문 날의 삽화>의 화자는 가연과 남편의 차를,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현금은 잔다르크를, 영빈은 현금을, <2007, 여름의 환> 속 화자의 아이는 엄마를 떠올린다. 안과 밖의 경계로써 발코니는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하며, 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환기를 통해 타인을 떠올리게 한다.

제4장. 극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모습

대체로 연극의 배경은 무대와 소품, 등장인물들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인물 역할 등을 통해 나타나지만, 마당극과 같은 경우는 ‘무대’의 경계가 없다. 이는 무대의 부재와 무한을 수반한다. 무대가 없다는 것은 ‘뒷무대’가 없으며 ‘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에서 사건은 실시간의 상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막’을 통해 상황을 통제한다. 이때 막은 연극 내에서 직접적으로 배경이 되기도 하고, 인물과 소품들의 등·퇴장을 조정하며, 막을 올리고 내림으로써 사건 진행의 지표가 된다. 따라서 막이 없다는 것은 배경의 측면에서는 물리적 공간의 표현이 연출될 수 없음과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대의 제한이 없다는 것은 연극 내 다양한 가능성을 불러 일으킨다. 예를 들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 배우와 관객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연한 사건 전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의 구성과 시공간의 설정이 자유로워진다. 이에 따라 파편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삽화적 전개방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현대 마당극은 판소리와 전통탈춤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 판소리와 같은 경우 소리꾼이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소리, 아니리, 발림, 추임새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때 “아니리”는 희곡에 있어 지시문과 같은 역할을 하며, 상황의 배경을 주로 묘사한다. 일부 현대 마당극은 이 아니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용하여 무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의 배경을 관객에게 설명하기 위해 지시문을 직접적으로 읽기도 한다. 이외에도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에 유의하여 상황 속에 내재된 배경의 모습을 유추하여 공간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배우들의 연기에 따라 상황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배우들의 연기는 보편적인 관습이나 일상의 관성에 의해 극중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행동을 한다.

따라서 배경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위나 동작, 자세와 동선은 모두 공간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의 속성을 유추할 수 있다. 무대가 없는 마당극에서 상황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작품분석 방법]

1. 아니리와 유사하게 극의 지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발화한다면, 이는 배경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에 해당된다. 묘사되는 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찰한다.
2. 아니리가 없을 경우, 연극이 배경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하는지 관찰한다. 또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관찰한다.
3.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상황적 배경을 유추한다.

4.1 김장하는 날의 〈발코니 Text & Context〉

4.1.1 작품소개

극단 ‘김장하는 날’은 이영은 작의 창작극을 주로 상연하며 가장 대표작으로는 〈발코니 Text & Context〉, 〈피스 오브 랜드〉, 〈에볼루션 오브 러브〉가 있다. 각 작품의 모티브와 사건 전개 양상은 다르지만 모두 공통된 질문에서 출발되었다. 이야기의 플롯을 진행함에 있어 결국 연극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장르이므로, 이영은 작가는 ‘여기가 어디인가?’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극적공간을 계획한다. 무대 위에서 일어날 상황의 공간적 기반을 세우는 것은 건축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림 4-1] 〈발코니 Text & Context〉의 공연 포스터



극단 김장하는 날은 독단적인 일련의 사건 전개 및 결과중심의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운영방침은 극단원 모두가 사건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삽화적 구성을 취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발코니 Text & Context〉와 같은 경우 극단이 여성 배우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연기할 수 있는 기존 텍스트의 부재를 실감한 그들은

이를 기회 삼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노력하였다.

〈발코니 Text & Context〉는 사실주의 내러티브의 Text에 해당하는 부분과 역사 및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Context가 교차하여 극을 전개한다. Text 내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지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줄거리의 내용은 한 개인의 경험-여성으로서 겪는 사회적 차별과 여러 가지 유형의 단절 등-을 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안에서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카르텔에서 배제되어 각자도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 연대하지 못하고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여성들의 현실을 드러낸다.

Text는 일련의 줄거리로 진행되는 데 반면 이와 교차하는 Context는 수많은 짧은 이야기, 콩트(contes)로 구성된다. 이 콩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실존 인물들의 상황과 역사적 사건을 풍자하여 Text에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결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닌 이전부터 되풀이되어 온 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극 안에서 Text와 Context는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교차하며 상황을 드러내지만 지연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하는 결말을 통해 개인의 경험, Text에서 다수의 공감대, 하나의 역사인 Context로 나아가는 전개 양상을 보인다.

4.1.2 발코니에서 드러나는 상황

발코니는 Text의 상황이 드러나는 주된 공간적 배경이자 사건을 이끌어가는 요소로 사용된다. 유망한 피아니스트였던 지연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누명을 쓰고 음악계에서 퇴출당하여 그녀의 재능과 가능성을 모두 뒤로 한 채 성우와 결혼한다. 성우는 지연이 그저 ‘꽃’답게 살길 바라며, 가정부 연이를 두어 지연이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처럼 사회적·물리적으로 단절된 그녀는 이따금씩 피아노를 연주하고 발코니에서 꽃을 관리하며 일상을 지낸다.

#5. 발코니-2

성우, 지연, 연이 등장.

성우 왜 그래? (사이) 여보? 뭐든 말해봐, 우리 공주님.
 일을 하고 싶다구? 하하하. 용돈이 부족한가?

지연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냥 일이 필요해요.

성우 요즘은 꽃꽂이 안 하나? 아, 피아노 열심히 연습해.
 연주회 해야지. 그게 당신 일이잖아. 내가 독주회 멋
 있게 열어줄게.

지연 (울음을 터뜨리며) 피아노 따위...

성우 안정이 좀 필요한 것 같군. 가서 좀 쉬어. 응?

지연 충분히 쉬었어요. 난 매일 매일 쉬는 것 밖에 안 한
 다구요!

성우 (난감해하며) 우리 예쁜 꽃이 왜 이렇게 시들었나.
 그럼 물을 줘야지.
 이따 김비서 보낼게. 좀 있으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
 아. 그걸로 재테크 공부 좀 해 봐. 다 잃어버려도 좋
 으니까 맘 놓고 써봐. 숙제야.

지연 (한숨)

성우 어때? 갑자기 재미있는 할 일이 생겼지?
 그리고 장모님 목걸이 하나 선물 해드렸어. 조만간 장
 모님 환갑 땐 어디 여행이나 보내 드리자구. 장인어른
 건강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당신 우울한 거 알아. 지금 하는 재판 끝나면 어디 오
 분하게 여행이나 다녀오지. 카리브해 크루즈. 좋지?
 당신 가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난 선물로 둘째를 낳아줘, 응? (연이 웃음)

자식들에게 많은 걸 물려줘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당신 닮은 예쁜 딸 하나 갖자구.

우리 부부처럼 훌륭한 유전자를 더 활용하지 않는 건

죄야.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면 우울함이 사라질 거야.

지연 아이! 아이! 아이!

성우 (웃음) 나 같게. 기분 풀고 재미있게 놀아야 돼. 알았

지? 나가서 쇼핑을 하든가 스킨케어를 좀 하든가. 응?

아참, 오늘 저녁에 출장이야. 한 삼일 걸릴 거야.

지연 네? 당신은 매번 그런 얘길 왜 미리미리 안 하는 거
예요?

성우 깜빡했어. 내가 그렇잖아.

오래 전에 예정돼 있던 거야.

성우/지연 아, 샤프로.....

성우 말했잖아, 출장이라고. 처리할 일이 있어.

오랜 고객이 있는데 매년 이맘때만 되면 꼭 한 번 와
달라고 해서.

샤프로엔 아직도 눈이 온다지? 다녀올게.

이렇게 지연은 화병의 꽃처럼 파리한 일상을 보내다 어느 날부터 발코니에
서 괴소음을 들으며 밤마다 시달린다. 이에 연이어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서 살
인사건이 일어나고 토막 난 사체는 이곳 저곳에서 발견된다. 이 중 하나를 찾은
연이는 과거 그녀의 트라우마-가정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친 그녀
의 과거사-에 빠진다. 곧 사건의 범인이 지연이 자주 이용하던 꽃집의 주인여
자로 밝혀지며 지연은 크게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꽃집여자의 안색과 거동을

살피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지만 모른척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며 살인사건 후로 들려오지 않던 괴소음을 다시 듣는다. 성우는 늘 그러하듯, 지연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고 돈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그의 불륜마저 알게 된 지연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고통 받던 지연은 결국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한다.

4.2.3 발코니 표현 및 연출 방법

마당극의 형태를 가진 〈발코니 Text & Context〉의 공연은 무대배경을 위한 세트장이 없이 인물들의 행동과 자세, 동선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관객들은 각자 연출된 상황과 어울릴 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짧은 이야기들의 전환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 장면의 제목을 영상 자막으로 보여주고 텍스트를 발화하여 음향과 함께 관객에게 설명을 하였다.

발코니라는 배경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무대 뒷편에서 사각형 모양의 긴 조명을 설치하여 좁은 폭을 갖고 있는 발코니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배우들은 체스판 위를 움직이듯 사각형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약속된 동선으로 움직이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제약된 공간, 구체적인 공간에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에 반해 콩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구체적 공간 배경보다 사건의 재현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에 무대 또는 마당을 모두 사용하였다. 배우들도 마당극이 가진 속성-뒷 무대의 부재(등퇴장이 없다. 소품을 숨길 수가 없다. 배우들이 휴식을 가지는 동안에도 계속 노출되어 있다.)-로 인해 동선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오히려 이런 모습은 브레히트적 구성방법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극적 환상을 방지하고 이 연극이 실제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현재는 사실이 아닌 연극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4-2] 〈발코니 Text & Context〉 마당극 형식의 무대 연출

브레히트적 구성은 브레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고안한 연출기법으로서 관객의 몰입을 지양하고 기존의 연극의 논리적 사건 전개방식에서 탈피하여 짧은 이야기 또는 에피소드의 나열로 서사극을 전개하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해설자가 등장하여 지문 또는 줄거리와 배경을 발화하거나 배우가 관객과 직접 대화하고, 배우의 대사 중간에 노래를 부르는 등 관객이 그럴 듯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연극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각하는 장치를 사용한다. 브레히트는 ‘Verfremdungseffekt’라는 단어를 만들어 자신의 연출 기법을 나타내고, 이를 한국어로 ‘낯설게 하기,’ ‘소격 효과,’ ‘생소화 효과’으로 번역할 수 있다. 브레히트 기법은 브레히트가 중국의 희극을 보고 착안을 하였듯이 우리나라 창극과 판소리와 유사하여 국내 현대극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효과이다.

#3. 발코니 - 1

배우들 등장하여 다음을 발화한다. 음악.

은선 제목 : 발코니.

등장인물

지연 : 30대 중반. 여자

혜영 : 30대 중반. 여자. 지연의 친구

명선 : 30대 중반. 여자. 지연의 옛 동료

성우 : 30대 후반. 남자. 지연의 남편

연이 : 20대 중반. 여자. 지연의 집 가정부

경인 공간 : 지연의 고급 아파트 거실.

고층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지영 화려하고 정갈하며 꽃과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

철진 한 쪽에 발코니가 있다.

은선 시간 : 현재 / 초봄

경인 1장, 밤. 어디선가 괴 소음이 들려온다.

지영 그것은 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발정 난 고양
이 소리 같기도 하고, 금속이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하
고, 여자의 비명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하다.

철진 하늘거리는 드레스 잠옷 차림의 지연, 발코니로 뛰쳐
나와 창문을 열어젖힌다. 소리 더욱 커진다.

경인 머리가 아픈 듯 괴로워하는 지연.

답답한 듯 숨을 몰아쉰다.

암전.

〈발코니 Text & Context〉도 이와 같이 브레히트적 구성을 하여 Text와 Context가 교차하는 폴라주 구성을 한 것과 더불어 배우들이 직접 보면대에 대본을 펼쳐놓고 지문을 읽거나 동작을 직접 행하는 대신 서술하고, 한 명의 대사를 네 배우가 모두 같이 나눠 발화하는 등 파편화된 구성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작가는 출산을 한 여성은 공감할 수 있는 ‘찢겨짐’의 경험을 작품 속에서 장면을 ‘찢어놓음’으로써 투영시키고자 하였다.

4.1.4 발코니가 갖는 의미 및 상징성



[그림 4-3] 〈발코니 Text & Context〉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그림 4-3]은 극중 인물이 직접 지문을 발화하는 것을 통해 등장 인물들의 집은 ‘고층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이며 2.2장의 발코니의 사례 중 도곡 타워팰리스의 펜트하우스의 평면을 참고하였다. 고층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와 같은 경우

두 세대를 합하기 때문에 주용도의 거실과 부차적인 거실(가족실)이 공존하는 형태의 평면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면발코니의 형태도 변형된다. 단위세대의 면적 또는 배치에도 불구하고 직사각형의 발코니 형태는 일괄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펜트하우스의 발코니는 단위세대의 조합에 따라 주동형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두 세대의 전면 발코니가 서로 이어져 이형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서로 대등하게 위치하는 등 여러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연극 내에서의 배우들의 동선과 표현 방식을 미루어보아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발코니의 창틀이 거실 내부로 그림자를 드리우면 마치 감옥의 창살과 같이 구속과 단절을 연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거공간으로 인물이 숨통을 틔우며 외부와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발코니에서 하루를 때우는 지연은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또는 (집)밖 사람도, 집안을 돌보고 가꾸는 (집)안 사람도 아닌 채 집 안도 밖도 아닌 그 사이의 경계, 발코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

그녀가 발코니에서 듣는 괴소음의 정체도 꽃집여자에게 가해진 물리적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음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연의 피아노 소리는 마치 지연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괴소음과 대비되어 보이지만, 이 또한 지연이 겪는 정신적 피해(가스라이팅)로 인한 지연이 내는 ‘괴소음’이었다. 발코니에서 들리는 각기 소음은 어떤 소통을 하지 못하고, 지연은 꽃집여자와 공감하며 그 부재에 안타까워한다. 이처럼 꽃집여자의 괴소음과 지연의 피아노 연주는 대조를 통해 서로 상응하고 있으며, 걸음으로 드러나기도,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 여성들의 피해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발코니와 꽃이라는 상징물의 병치는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옥상 위의 민들레꽃〉이라는 작품과 유사하지만 또한 꽃의 의미가 다르다.¹⁴⁵⁾ ‘민들레꽃’은

145)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 옥상은 시멘트로 뽀뽀하게 발라 놓아 흙이라곤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 나는 하도 이상해서 톱니 같

작지만 콘크리트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과 달리, 작중 지연이 키우는 화병 안의 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연명해나가는 상태로 지연의 모습을 상징한다. 연이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날아와 벽 틈 사이에 꽃을 피운 민들레 홀씨처럼 지연의 가정으로 들어와 자신의 생계를 꾸리려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지연은 자신의 소용(掃用)을 느끼지 못하고 시들어간다.

은 이파리를 들치고 밑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옥상의 시멘트바닥이 조금 패인 곳에 한 손갈도 안되게 조금 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흙이 아니라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날던 먼지가 축축한 날, 몸이 무거워 옥상에 내려앉았다가 비를 맞고 떠내려가면서 그 곳이 움푹하여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먼지 중에 민들레 씨앗이 있었나봅니다. 싹이 아고 잎이 돋고 꽃이 피게 하기에는 너무 적은 흙이어서 잎은 시들시들하고 꽃은 작은 단추만 했습니다. 그러나 흙을 찾아 공중을 날던 수많은 민들레 씨앗 중에서 그래도 뿌리 내릴 수 있는 한 줌의 흙을 만난 게 고맙다는 듯이 꽃은 샅노랑게 피어서 달빛 속에서 곱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부는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들은 모다 시멘트로 포장한 딱딱한 땅을 만나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련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웅색하나마 흙을 만난 것입니다.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하던 게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습니다. …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사람은 언제 살고 싶지 않아지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없애져 줬으면 할 때 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말이나 눈치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아 배란다나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막아 주는 게 최상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겪어서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자전적 도둑, (서울: 도서출판 다림, 2022), 128-130

4.2 소결

연극은 무대 위로 드러나는 상황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며, 직접적인 무대 세트를 통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선이나 배우들의 연기 등으로 관객들이 공간적 배경을 상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발코니 Text & Context〉와 같은 경우 28편의 짧은 이야기가 나열되기 때문에 고정된 무대 배경보다는 마당극의 형식을 통해 관객들이 상황을 토대로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동선과 행동 반경의 제한이 없었던 Context의 상황 전개와 달리 Text 속 사건 전개는 발코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동선이 계획되어 좁은 폭의 발코니를 연상할 수 있도록 선형의 동선으로 표현하였다.

(집)안사람으로서의 여성의 모습은 발코니라는 공간을 통해 기저에 잠겨있는 고독과 부재, 억압의 현실로 드러난다. 〈발코니 Text & Context〉는 발코니를 소재로 사용함과 동시에 작품 내 가장 큰 심볼로 작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발코니는 (집)밖사람도, (집)안사람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지연을 상징하면서, Text와 Context가 교차하는 연극 내에서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되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장이 된다.

김장하는 날의 〈발코니〉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관점에서 풀어낸 현대사회의 모습으로 연극을 관람한 개개인이 끊임없이 자아성찰과 각성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연대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발코니는 여성이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의 아픔 또한 발견하고 각성하는 공간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더 나아가 함께 연대하는 공간이다.

제5장. 영화에서 나타나는 발코니의 모습

영화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며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 장면을 구성한다. 연극의 미장센은 무대 위에서의 상황을 연출하는 기법이라면 영화의 미장센은¹⁴⁶⁾ 카메라가 담은 장면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영화의 미장센은 영화의 주제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화면구성으로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연출방식이다. 또한 미장센은 이야기와 “함께 동반되는 감정과 분위기, 사상 등을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이미지에 내포된 상징과 은유의 표현 테크닉을 통해 영화의 의미와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활용된다.”¹⁴⁷⁾ 영화는 카메라를 통해 배우들이 연기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 감독이 편집하여 이후 극장에서 관객에게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화의 제작 원리를 기반으로 영화의 특성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분석 방법]

1. 카메라의 구도와 편집 기법에 유의하여 배경에 담긴 감독의 연출 의도와 이야기 전개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46) “미장센은 '장면(화면) 속에 무엇인가를 놓는다'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하였다. 이 말은 그 동안 유럽에서 우리말의 '연출'에 해당하는 연극 용어로 쓰여져 왔다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생각해내고, 화면 속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영화 용어로 정착하였다. 연출가가 무대(stage)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로부터 고민을 시작한다면, 영화감독은 '프레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로부터 생각을 풀어 나간다. 따라서 미장센은 프레임 내부의 조형적 요소-배경, 인물, 조명, 의상, 분장, 카메라의 움직임 등과 이러한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역어(譯語)는 아니지만 '화면구성'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통례이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미장센, (Mise-en-Scène)”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년 1월 30일); 인터넷주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030&cid=60657&categoryId=60657>

147) 안병태, “영화 <기생충>의 미장센 연구: 구도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 9 (2021): 434

2. 배우의 이야기 전달(동선과 대사와 같이 의도된 배우의 상황)과 함께 배우의 표현(표정, 시선처리, 동작 등 배우가 상황에 부여하는 디테일 등)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3. 영화에서의 시공간과 상영하는 시공간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 영화관이 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관객의 공감대 형성 등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분석한다.

5.1 김도영의 <82년생 김지영>

5.1.1 작품소개

조남주의 장편소설 <82년생 김지영>은 현대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 여성들의 보편적 삶의 일상을 보여준다. 과장도 꾸밈도 없는 그녀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끌어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강요된 전통적인 가부장제도 아래 치러진 어머니의 희생과 공론화되지 못하고 개인의 치부로 여기던 현대의 성차별적인 문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딸을 위한 용기와 희생이 담겨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란 “극단적인 사실적 묘사에 의하여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일순간 정지시켜 강조해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는 익숙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82년생 김지영>을 하이퍼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한 대상의 일대기를 나열한 것이 아닌,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현대 한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경험해봤을 일상적 내용을 저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남주의 소설을 영화화한 김도영 감독의 영화 <82년생 김지영>도 원작의 의도를 계승하여 현대여성들의 현실적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을 때 시부모로부터 구박을 받았고, 남동생은 항상 자신과 언니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으며 집안일로부터 제외되었던 유년시절과 학창 시절에는 낯선 남자가 따라와 큰 일이 일어날 뻔한 사건들도 있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남자 직원들보다 승진 기회가 적고, 출산이후 자신은 복직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반대로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고 능력을 쌓아 상사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여선배가 등장하기도 한다. 대중영화로서 <82년생 김지영>은 사회적 반향을 직간접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특히 여자화장

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장면으로 인해 이와 같은 범죄가 여성들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늘상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공론화되었다. 이와 같은 논란을 반영하여 여성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 및 관찰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여성에 대한 새 패러다임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82년생 김지영〉을 연구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장소에서의 상황적 의미”가 건축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는 전향점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5.1.2 발코니에서 드러나는 상황

〈82년생 김지영〉에서는 일생 동안 한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갈등들을 영화에서는 삽화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는데, 회상장면 이후 발코니를 배경으로 한 장면을 통해 인물의 심리상태를 보여준다. 발코니는 영화에서 다섯 번 배경으로 사용되었는데 각 영화 장면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0:01:35-0:02:00]

영화의 시작은 여성 전업주부의 평범한 하루의 모습을 보여준다. 청소와 빨래를 하고, 울고 보채는 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발코니에 나와 노을이 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하루종일 집안일을 하던 거실과 집을 등지고 해가 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에 그는 곧 바로 뒤돌아 아이를 찾아 싱긋 웃는다. “그냥 가끔 옛날 생각 많이 나고, 해 질 무렵이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기는 하는데 자주 그러는 건 아니야”라는 그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끝이 없는 되풀이되는 가사노동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으로 인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절망을 느낀다.

② [0:21:30-0:21:55]

남편이 출근하자 김지영은 발코니로 나와 의자에 기대 앉는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시 휴식을 취해보려 하지만 바로 아이가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발코니에 이미 놓여 있는 간이의자를 토대로 그녀가 자주 발코니를 휴식공간으로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일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직장생활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무료함을 느낀다. 어딘가로 나가고 싶어도 아이를 동반해야 하며, 아이와 잠시 외출하더라도 ‘맘충’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나갈 수가 없다. 집에 갇힌 김지영이 그나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은 발코니이지만, 아이가 부르는 ‘엄마’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③ [1:19:25-1:19:35]

아이와 홀로 남은 그녀는 “이 벽을 돌면 출구가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벽이고 다른 길로 가도 벽이고……. 그냥 처음부터 출구가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Kim, 2019)라며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지친 마음과 허무함을 표한다. 어느 날 그녀는 옛 동료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초대한다. 동료가 전하는 자신의 옛 상사였던 여선배의 개업 소식을 듣고 복직을 고려하게 된다. 아이를 돌봐줄 보모가 구해지지 않자 복직을 포기하려 하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김지영의 복직을 지지해준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크게 분노하며 김지영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에 절망한 김지영은 본인의 복직으로 인한 아이와 남편의 희생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며 고민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발코니에 나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보는 모습과 체념하고자 복직을 위해 공부했던 책을 버리려고 발코니에 쌓아두는 모습을 통해 그녀의 내적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④ [1:40:25-1:42:27]

엄마 : “응, 엄마야.”

지영 : “가게야?”

엄마 : “응, 방금 나왔어. 너는 뭐냐, 아침은 먹었어?”

지영 : “응. 아영이 먹이면서 같이 먹었어. 엄마는?”

엄마 : “네 아빠 아침 꼬박꼬박 드시니, 나야 잘 챙겨먹지.”

지영 : “엄마,”

엄마 : “응.”

지영 : “엄마 내가 태어났을 때 기억나?”

엄마 : “응. 어떻게 기억이 안나니. 생생하지. 너 태어나던 날 벚꽃이 예쁘게 떨어지더라. 양수 터지고 가방 챙겨서 병원 가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꼭 함박눈 같았어.”

지영 : “나 엄마 닮았나봐. 아영이 태어난 날 흰 눈이 내렸거든. 예쁜 이 나왔어.”

첫눈이 내리자 김지영은 가사일을 멈추고 전면유리 앞에 서서 어머니께 전화를 한다. 그녀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께 자신이 태어나던 날의 일화를 듣는다. 눈처럼 벚꽃 잎이 흩날리는 날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이어 함박눈이 내리던 날 자신의 딸을 낳던 것을 추억하며 자신과 어머니가 닮았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어머니와 눈 내리는 날 딸을 낳는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과거의 어머니를 이해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지금 자신이 겪는 이 어려움을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위로를 받는다.

⑤ [1:49:22-1:49:50]

영화의 시작과 수미상관 구조로 김지영이 발코니에 나와 지는 해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전과 다르게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미소를 짓는다. 이 모습을 통해 김지영의 갈등의 해소와 앞으로도 그녀가 고난을 모두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을 암시한다. 발코니는 김지영의 갈등과 이야기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 행복한 결말로 막이 내린다.

5.1.3 발코니 표현 및 연출 방법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발코니를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하여 김지영이 전업주부로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과 그녀가 여성으로서 겪는 희생과 박탈감을 보여준다. 발코니는 김지영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김지영은 비로소 자신이 감추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됨과 어려움을 느낀다. 발코니에서의 장면은 쉴 새 없이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김지영의 일상모습과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의 경험을 보여주는 회상장면의 병치 사이에 삽입되어 그녀의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영화 전개의 리듬에 변화를 준다. 조명의 연출에 따라 실내 형광등 아래 파리한 그녀의 안색은 발코니의 자연채광으로 밝고 따뜻한 색조로 비춰져 생기 있어 보이게 한다. 이처럼 발코니와 집 내부에서의 대조를 통해 일상적인 장소에서 갈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 새로운 현실을 나타내는 극적인 효과를 내고 인물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처럼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발코니가 어떻게 연출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여성 주부에게 발코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다.

발코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밖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발코니에서는 전면유리와 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방해 없이 시야가 확보된다. 발코니에서 사용자는 거리 위의 사람들과 자동차들, 맞은편의 건물과 풍경, 수평선과 하늘을 볼 수 있

다. 밖을 바라보는 자세는 밖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집 안을 등지고 밖을 향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람의 신체는 정면과 후면이 있고 관심을 갖거나 주의를 기울일 때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발코니에서 밖을 향한 채 집 안의 거실과 방을 등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발코니에 있을 때 집 안보다 밖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1] 김지영이 발코니에 서있는 장면들을 풀라주하여 나타낸 다이어그램¹⁴⁸⁾

[그림 5-1]은 발코니에서 밖을 바라보는 김지영의 모습을 담은 장면들을 중첩한 풀라주(collage)이다. 이 풀라주를 통해 김지영이 등지고 있는 상황과 그 시간이 누적되어 그녀의 생활을 구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그녀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또는 그리워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영화를 촬영할 때 인물의 뒷모습에 집중하여 장면을 구성하는 것은 감독의 연출 의도가 담겨있다. 인물의 정면에서 얼굴이나 표정으로 메시지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지만, 인물의 후면은 이를 볼 수 없어 부재와 은폐를 상징하게 된다. 카메라는 전지적 관점에서 사건

148) 방예림, “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 및 의미에 관한 연구: 〈82년생 김지영〉에서 드러나는 상황 내 장소적 의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 2 (2022) Figure 3. 참고

을 전개해 나가지만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로 관객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관객은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카메라의 존재를 느끼지 않다가 (인물의 얼굴이) 보이지 않음을 인지할 때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인물의 모습을 궁금해 하게 되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고, 관객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면의 상황에 참여하게끔 유도한다.

관객은 배우와의 시선 방향이 일치하게 되어 뒷모습을 통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 이를 통해 관객은 배우의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발코니에서 김지영의 뒷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아기와 혼자 남겨져 집안일을 하며 긴 하루를 보내는 그녀를 보는 관객은 주인공의 감정에 동화된다. 그녀의 쓸쓸하고 초라한 뒷모습에 관객들은 위로의 손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다가갈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며 오히려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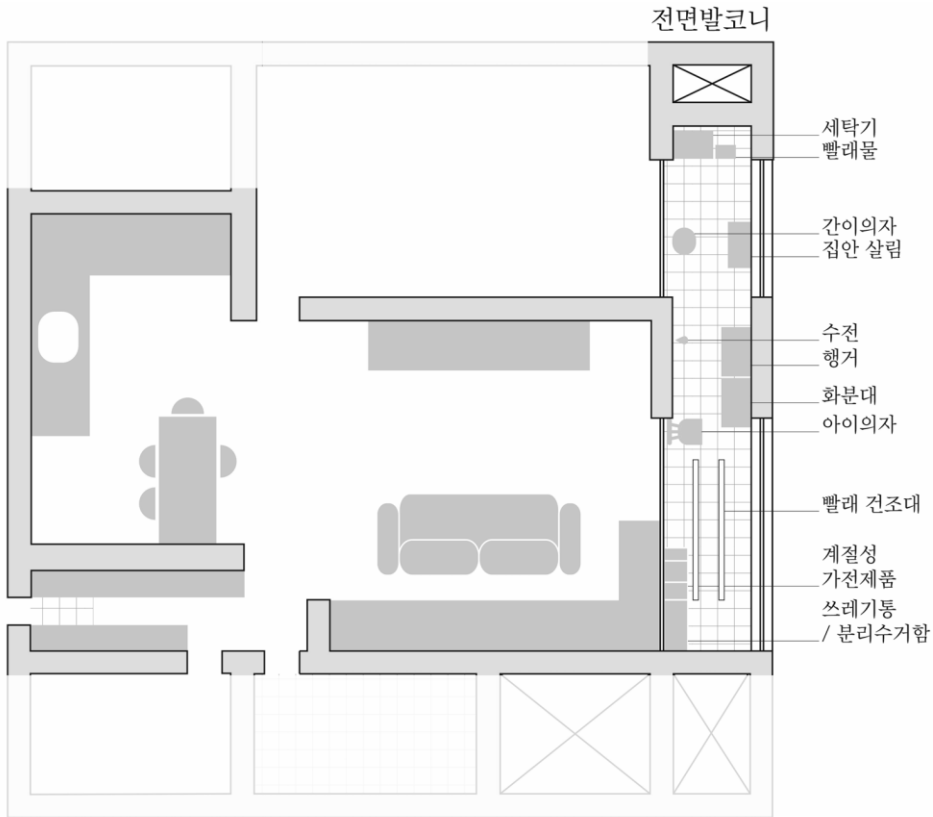
5.1.4 발코니가 갖는 의미 및 상징성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발코니를 “갈등을 보여주는 무대”로 사용하여 여성 주부로서 김지영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민을 드러난다. 갈등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녀가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복직을 위해 공부한 자료집을 정리하거나 혼자 실망감을 삭이는 모습, 고독과 절망감으로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김지영의 갈등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닌, 한국 여성이 직·간접적으로 흔하게 겪어왔을 만한 있음직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도 관객들은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발코니가 배경으로 사용되는 장면들은 짧게 대사나 특별한 줄거리 없이 지나가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김지영이 오롯하게 홀로 보내는 사적인 시간들을 담아 김지영의 고민과 갈등을 보여준다. 발코니는 이 상황의 공간적 기반으로서 상황을 전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사건의 요소로써 쓰이기 보다 김지영이라는 인물과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으로 물려서 있다. 발코니에서 육아와 집안일의 반복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상황, 아기와 홀로 남겨져 외출도 할 수 없어 집에 틀어박혀 있는 상황, 노을을 보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 상황, 성취나 보람없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지쳐가는 상황, 육아와 경력을 병행할 수 없어 경력단절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발코니는 영화 내 여성 주부들이 겪는 갈등이 드러나는 무대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림 5-2]는 영화 속 장면들을 토대로 만든 김지영의 집을 추정하여 그린 평면 다이어그램이다.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김지영의 집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지어진 소형평수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¹⁴⁹⁾ 발코니에는 주로 세탁기와 빨래를 하는 데 필요한 가재도구와 함께 집안 살림들이 있지만 이에 어울리지 않는 간이 의자도 보인다. 이 의자는 ②, ④ 장면에 등장하며 발코니에 따로 의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통해 김지영이 발코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닌 자주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준다. 아이와 외출하고 싶어도 ‘맘충’이라는 뒷담을 들어야 하는 그녀에게 발코니에서의 휴식은 그녀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일탈이다.

149) “1980년대 후반 이전에는 별도의 구획된 다용도실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과 함께 소형평형에서 최대한의 주거 전용면적을 확보하면서 외기에 면하는 세탁공간을 원하는 거주자의 요구와 분양성 제고를 위한 공급자의 필요가 맞물려 1990년 이후에는 주로 세탁기를 설치하거나 수납공간으로 활용되던 활용하면서, 전면발코니가 수납공간 및 세탁행위 등을 보조하는 다용도실공간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백혜선, 박광재, “한국 공동주택에서 다용도실의 성립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 3 (2000): 16



[그림 5-2] <82년생 김지영>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¹⁵⁰⁾

와츠지 데츠로(Tetsuro Watsuji)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관관계와 존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는 객관화된 환경을 뜻하는 ‘자연’이 아닌 ‘풍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환경이 갖고 있는 다층적 의미와 그 안에서의 위계와 위상을 내포하였다. 와츠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풍토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 공동의 감각을 일깨워 ‘나(개인)’의 느낌에서 더 나아가 ‘우리(공동)’의 경험으로 확장되는 것을 주장한다. 사람들은 날씨와 기후에 대응하여 삶의 공간을 구축하고 공간의 구성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적 관습을 형성한다.

사람들을 발코니에서 밖을 보며 날씨를 확인한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날씨가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나라는 날씨에 비롯한 관습이 많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날씨는 우리나라의 풍토 중 하나이며, 이 풍토를 기반으로

150) 방예림, Figure 2. 참고

사람들은 집에서 날씨를 보는 공간으로써 발코니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날씨를 확인할 때, 날씨가 어떤지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이 날씨를 겪고 있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걱정한다. 즉, 발코니에서 사람들은 날씨를 보고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면 비나 눈이 내리면 이를 대비하여 우산을 챙겨야 하므로 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특히 눈이 내리면 첫눈일 경우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또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한다. 박완서의 <목마른 계절>에서도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에 피난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눈을 맞이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불췌사납게 마당에 돌출했던 바위와 그 바위 위에 비스듬히 마당을 향해 나 있던 소나무가 눈에 덮여 절경을 이루고 있었다. 열은 안방 미닫이를 활짝 열고 창백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띤 채 이런 설경을 감상하고 해순을 피난 보따리에서 붉은 모본단 저고리까지 꺼내 입고 소녀처럼 들떠 있었다. 세상사로부터 완전히 고립 단절된 생활에, 기후의 변화로부터나마 단절되지는 않았다는 증거로 내려준 눈이 그들에겐 그렇게 반가웠다.¹⁵¹⁾

<82년생 김지영>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딸을 낳았을 때를 떠올리고, 또 자신을 낳으신 어머니께 전화 드리는 상황은 우리나라 풍토로 인한 관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눈처럼 꽃이 내리는 날 딸을 낳은 어머니와 유사한 경험을 한 김지영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강조를 하는 표현방법으로 이 영화 내에서도 발코니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김지영의 모습을 병치하여 갈등의 발생과 해소, 인물의 심리변화 등을 보여준다. 영화의 처음에는 텅 빈 표정에 웃음기 없는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면 끝에서는 극복 의지를 다지는

151) 박완서, *목마른 계절*, (파주: 세계사, 2013) 287

생기 있는 얼굴로 지평선을 바라본다. <82년생 김지영>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농담>도¹⁵²⁾ 발코니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프랑스에서는 동이 트는 새벽이나 해질녘을 ‘개와 늑대의 시간(heure entre chien et loup)’이라고 하며, 양치기들이 낮과 밤의 경계에서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나의 개인지, 나를 해치려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움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익숙한 것도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낮과 밤의 경계에서 안과 밖의 경계인 발코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김지영의 모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결심을 다지는 삶의 전환점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코니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밖을 바라보는 자세는 우리나라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바탕으로 한 문화 및 관습과 더불어 발전하여 타인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익숙한 것이 낯설어 보이는 비일상의 영역에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순응하고 있었던 현실을 타개하고 자·타의에 의해 형성된 고립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을 하고자 결심하게 된다.

152) “내가 좋아하는 어느 불문학자의 글에서 읽은 건데 불란서 사람들은 해가 지고 사물의 윤곽이 흐려질 무렵을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이라고 한대. …… 낯설고 적대적이던 사물들이 거짓말처럼 부드럽고 친숙해지는 게 바로 이 시간이야.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도 나는 그 말이 좋아. 빛 속에 명료하게 드러난 바깥 세상은 사실 나에게겐 맨날맨날 낯설어, 너무 사나워서 겁도 나구, 나한테 적의를 품고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 괜히 긴장하는 게 피곤하기도 하구. …… 그렇게 위협적인 세상도 도처에 잿빛 어둠이 고이기 시작하면 슬며시 만만하고 친숙해지는 거 있지. 얼마든지 화해하고 스며들 수도 있을 것 가운 세상으로 바뀌는 시간이 나는 좋아.”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97

5.2 <베란다>

5.2.1 작품소개

손지수 감독의 영화 <베란다>는 한 주부가 아파트 발코니에 갇히게 되어 한 나절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영화의 제목은 ‘베란다’이지만 2.1.1에 의하면 이곳은 주방 발코니임을 알 수 있다. 발코니에는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 테라스 걸상이 있고 음식 자재가 보관되어 있으며 주방과는 문으로, 인접 방은 창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베란다>라는 영화 사건내용을 통해 주인공은 밖을 나갈 수 없는 건물 내부에 있었음에도, 집 외부의 공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코니는 이처럼 안과 밖의 중간공간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출입은 발코니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가고 집을 통해 밖을 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안으로 들어 가야 하고, 안에 들어가지만 밖과 더 가까워지는 발코니의 모순적인 상황은 영화와 같은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5.2.2 발코니에서 드러나는 상황

평범한 가정의 주부인 주인공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평일 낮에는 집안일을 주로 하며 때때로 낮잠과 TV시청, 그리고 지인과 통화하며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방’ 대신 온 거실이 그녀의 방인 듯, 주인공은 일도 휴식도 모두 거실에서 취한다. 거실에는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창 가까이에 선반을 마련하여 화병에 담긴 화초들을 두고 있다.

빨래를 하려고 주방 발코니에 들어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갇히고 만다. 아침에도 아들이 세탁기에서 체육복을 꺼내다 갇히는 모습에 문을 고쳐야 한다

고 생각했음에도 그새 그녀도 갇혀버리고 만다. 아침에 아들이 발코니에 갇혔을 때는 이를 빨리 발견한 남편에 의해 나올 수 있었지만, 홀로 남아있는 집에서 그녀를 꺼내줄 사람은 없다. 한 여름의 열기로 대낮이 될수록 발코니는 점점 뜨거워지고, 그녀는 땀을 흘린다.

핸드폰 대신 리모콘을 들고나온 그녀는 이제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그저 발코니 걸상에 앉아 마른 멸치의 내장을 떼며 시간을 보낸다. 리모콘으로 음악을 트는데 성공한 그녀는 택배기사가 오는 소리도 못 듣고 노랫소리에 흥얼거리며 다 된 빨래를 널어 건조대에 걸고, 화초에 물을 준다. 밖에서 냄새가 나자 그녀는 창문을 닫는다. 발코니 창으로 피약벌이 비치고, 빨래의 물기와 화분의 흙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와 그녀를 더 답답하게 만든다. 그녀는 또 멸치의 내장을 분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땀을 계속 흘린다.



[그림 5-3] 주방 발코니에 앉아 멸치 내장을 손질하는 주인공

발코니 철문(대피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한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멸치가 바닥에서 뚫뚫하고 있다. 그녀는 재빨리 대야에 물을 받아 멸치에게 손으로 물을 퍼부어 준다. 다시 그녀가 정신을 차리니 멸치는 마른 멸치였고, 그녀는 김이 샌 채 그 멸치를 다른 멸치가 담겨 있는 바구니에 던

져 넣는다. 해는 저물고, 주인공은 낮에 손질한 멸치를 먹는다. 점심과 저녁은 물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그녀는 이미 땀으로 머리카락은 모두 젖어있고, 얼굴의 붓기도 빠져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발코니 청소를 한다.

아들과 남편은 집에 도착한다. 아들은 택배를 받아두지 못한 엄마에게 짜증을 부린다. 그들은 어두운 집의 불을 밝히며 주인공을 찾는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잠을 자다 그들의 기척에 깬다. 문에 말없이 서 있는 그녀를 찾은 남편은 그녀에게 왜 발코니에 있는지 묻지만, 주인공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아들은 발코니 문을 열어주고, 택배를 받지 않은 그녀에게 타박을 하고, 아침까지 체육복을 빨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발코니에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 장바구니를 들고 멸치가 다 떨어졌으니 장을 보러 나간다고 한다. 주인공은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고 밖으로 나간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밖에 나온 주인공은 크게 숨을 내쉬 뒤, 가벼운 걸음으로 나간다. 남편은 물을 마시며 발코니의 멸치와 창 밖으로 지나가는 아내를 번갈아 본다.

5.2.3 발코니 표현 및 연출 방법

주인공은 멸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집 안에서는 여행 다녀온 지인의 통화 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발코니(베란다)에 갇힌 그녀는 갈수록 말라간다. 발코니에는 마른 멸치뿐, 퇴약별의 열기와, 빨래와 화초로 인한 습도로 인해 아무 것도 먹거나 마시지도 못하는 그녀는 탈수 상태가 되어간다. 마른 멸치를 물에서 나와 퍼덕이는 살아있는 멸치로 착각한 주인공은 체내 수분 부족의 증상으로 환각을 본 것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집에서 밖(발코니)으로 나와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본 것이기도 하다. 점점 땀으로 젖어져 생기를 잃어가는 <베란다>의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을 홀로 견뎌야 하는 주부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림 5-4] 발코니에 갇힌 주인공이 땀을 흘리며 멸치를 손질하는 장면

멸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은 한국 현대시인 최승호의 〈북어〉¹⁵³⁾ 속 상황과 유사하다. 현대 시 〈북어〉는 말라붙고 생기 없는 북어와 화자 자신을 동일시 하며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자아성찰을 하게 한다. 〈베란다〉도 밖으로 나갈 의지조차 없는, 단조로운 일상과 집안일의 반복으로 지친 주인공을 마른 멸치에 비유하여 외롭고 지루한 주부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 북어들의 뽀뽀한 지느러미. // 막대기 같은 생각 /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 느닷없이 /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 거봐 /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 귀가 멍멍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한편, 가족들은 그녀를 걱정하는 듯, 배웅 나가려는 그녀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 대사에서 그녀는 심심하다며 아들에게 일찍 돌아오라 부탁한다. 그녀의 앞에 굳게 닫힌 문은 자·타의에 의한 속박임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사적 공간이 침식되어 가며, 사적 생활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주거외부 공간에서 ‘홀로됨’의 상태를 만족시키게 되고, 주거는 주부들만의 환경으로 심화되어 주부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증대시

153) 최승호, 〈북어〉, *대설주의보*, (서울: 민음사, 1983)

킨다.”¹⁵⁴⁾

① [1:21-1:35]

남편은 걸옷을 입고 현관을 향한다. 주인공은 남편의 가방을 챙겨 같이 현관으로 나간다.

남편: (아내가 건네는 가방을 받아 들고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나오지마.”

주인공: “응. 다녀와.”

카메라는 그녀의 무안한 미소를 옆에서 비춘다.

② [1:35-2:10]

아들은 급하게 나가며 주인공과 어깨를 부딪힌다.

아들: (바빠서 급하게) “어. 미안 미안 미안.”

주인공: “체육복 챙겼어?”

아들: (급하게 신을 신는다.) “어. 가방에 있어.”

주인공: “오늘 경태 만나서 온다고 하지 않았어? 몇 시에 와?”

아들: (거울을 보며 머리 손질을 한다.) “글쎄. 모르겠는데.”

주인공: “빨리 들어와 엄마 심심해”

아들: “알았어, 갖다 올게. 나오지마, 갖다 올게. ”

주인공은 면전에 닫힌 문을 계속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있다.

멀리서 TV에서 나오는 앵커 목소리, “…… 하루하루 삶의 무게도 무거운 주민들에게 폭염과 열대야는 감당하기 어려운 2주일 것입니다. SBS 뉴스… … .”

154) 김혜정, “우리나라 근대 주거 공간의 변천을 통한 여성 주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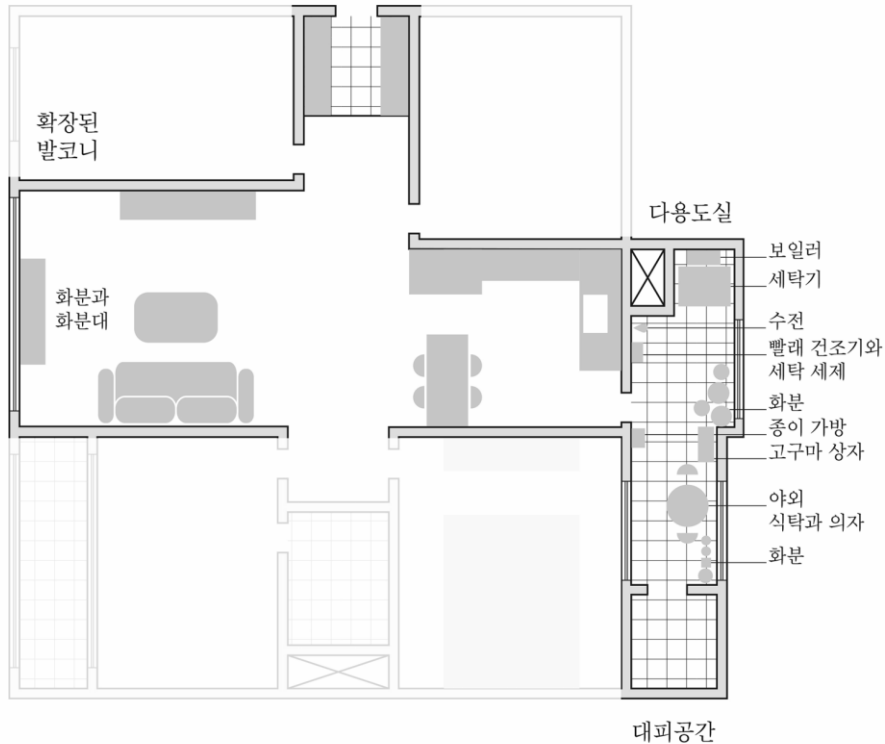
카메라는 물이 담긴 화병의 뿌리를 비춘 뒤, 주인공의 발을 프레임 속에 담으며 그녀도 같은 상황에 있음을 암시한다. 멸치의 비유를 확장하면, “**주인공: 멸치=집:어항**”과 같은 비례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주인공에게 집은 멸치가 어항에 사는 것처럼 편하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갇힌 공간이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 발코니에 갇힌 그녀를 꺼내어주자, 주인공은 바로 멸치가 부족하다며 밖으로 나간다. 아파트 현관에 나서자 선선한 바람이 분다. 머리를 고쳐 묶고 비장한 표정으로 길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한 의지가 보인다. 어항에 갇혀있던 멸치가 바다로 나아가듯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녀의 모습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주인공을 멸치에 빗대어 표현하며 주부의 단절된 일상과 집에서의 고립을 나타내고 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 가둔 주인공은 가족들의 걱정 또는 감사함을 요구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기에, 집안 살림을 돌보아야 했기에, 주부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뒤로 하고 스스로를 희생한다. 발코니에 갇혀서도 집안일을 하고, 늦은 밤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으며, 가족들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주부의 고단한 일상과 외로움을 보여준다.

5.2.4 발코니가 갖는 의미 및 상징성

[그림 5-5]은 영화 <베란다>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주인공의 집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다용도실에 갇히기 전임에도 ‘방’이 아닌 부엌과 거실을 배회하는 주부의 일상으로 인해 영화 내 드러나는 집의 내부 모습은 제한되어 있다. 부엌은 단순 조리 및 식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공용공간으로, 안방은 부부전용의 공간으로, 거실은 가족 공용의 공간으로 치부되어 “주거 내 모든 공간은 주부의 가사 작업의 공간일 수는 있지만, 여성들 또한 자

신만을 위한 공간은 소멸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¹⁵⁵⁾



[그림 5-5] <베란다>에 등장하는 발코니를 재현한 다이어그램

영화 <베란다>는 다른 작품에 비해 전면 발코니가 확장 되어있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사건은 다용도실 또는 후면 발코니에서 진행되고 있어 발코니의 확장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다. 손지수 감독은 거실에 편입한 확장된 발코니보다 ‘엄마’라는 존재를 더 구속할 수 있는 다용도실을 배경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극적인 현실-주부와 사회의 단절과 끊임없는 가사노동의 굴레가 연속되는 삶-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발코니에 갇혀도 크게 저항하지 않고, 발코니에서 자신이 할 수

155) 김혜정, “우리나라 근대 주거 공간의 변천을 통한 여성 주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42

있는 일을 찾는다. 창문을 닫은 채, 찌는 더위에도 그녀는 앉아 멸치를 다듬을 뿐이다. 탈수 증세가 심각해지고 그녀는 대피공간에 남아있던 멸치를 살아있는 고기로 착각한 후, 멸치를 두고 가만히 앉는다. 해가 떨어지고, 더위가 지나가자 그녀는 다시 힘을 내서 발코니 청소를 한다. 밤이 되고, 가족들이 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발코니 바닥에 누워있다.

땀은 모두 마르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이 프레임에 들어왔을 때, 관객은 주인공이 기절 또는 죽음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한다. 누워있는 자세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 있는 인간은 깨어있으며, 자주적이며, 살아있다. 반대로 수평의 자세는 침대 위에 자는 자세, 제단에 놓여있는 자세, 땅으로 묻히는 시신의 자세를 연관하여 무의식과 순종 및 희생, 죽음 등을 상징한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빌라 스타인(Villa Stein-de-Monzie) 사진을 위해 하얀 타일의 부엌의 조리대 위 생선을 놓고, 선풍기를 생선에 향하도록 배치했다. 그는 다른 작품에서도 생선과 같이 일상적 물건(잘라진 식빵, 외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자와 선글라스, 조리할 생선 등)을 두었다. 사진의 오브제는 모두 연출된 것이지만, 건축의 순간 또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포착한 듯이 구성하였다. 수평대에 죽은 생물을 놓는 것은 제사 또는 의식을 위해 희생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행위와 유사하다.¹⁵⁶⁾

이와 같은 행위의 유사성은 상징을 통한 환유가 가능하다. 발코니 바닥에 누운 주인공의 모습은 주인공의 희생을 상징하며 주부로서 자신의 숙명에 순종

156) *These compositions are absolutely deliberate on Le Corbusier's behalf. Between 1929 and 1931, it seems, the architect had thus populated the emptiness and solitude of some of his architectural works. The metaphor is evident: the objects and things are often placed on tables, as if on altars; they are offerings. And the triviality of some of these objects and of some of these things paradoxically only reinforces the enigmatic and dramatic dimension of the gesture. ... If the kitchen is not exactly a sanctuary, at least the table is, without a doubt, an altar. The table is a surface for offerings. It is thus the exact equivalent to the toit-jardin where the spectacle of a free and objective architecture is offered.*

Jacques Lucan, "The Search for the Absolute", In the Footsteps of Le Corbusier, (New York: Rizzoli, 1991) 201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이 계속 손질하고 있었던 생명이 다한 마른 멸치와 동질화된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멸치는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다. 넓은 바다에서 잡혀 말라 죽은 멸치는 물이 있다면 살 수 있겠지만, 바다에서 사는 삶과 어항 또는 수조에서 사는 삶과는 달랐을 것이다. 주인공도 그렇다. 넓은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다 주부라는 지위와 함께 집에 속박되어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안전성과 쾌적함이 보장된 집 안에서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외로움과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집에서 발코니로 나와 갇힌 그녀는 수분 부족으로 서서히 말라갔고,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그녀는 잠에 빠진다. 밖으로 나간 그녀는 다시 세상을 마주한다. 바다로 돌아가는 멸치처럼 그녀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자신이 속하게 될 공동체(다른 멸치들)를 찾는다.

일반적으로 발코니에서 취하지 않는 자세인 누운 자세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영화의 메시지와 주인공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발코니는 단순히 주인공이 갇히게 되는 공간이 아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자아 실현의 부재, 가족들의 경시, 자존감 결핍을 깨닫는 비일상의 공간이다.

5.3 소결

영화는 소설 및 연극과 다르게 상황 속 배경이 모두 연출되어 이미지로써 모두 표현된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묘사나 연상하기 위한 장치적 수단이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인물이 발코니라는 공간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로써 배경은 배경답게 발코니는 상황을 뒷받침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존재를 감춘다.

(82년생 김지영) 발코니는 주인공 김지영이 육아와 가사, 경력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눈 오는 날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희생에 공감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는다. (베란다) 발코니는 “**집:발코니=밖:안**”과 같은 관계로 발코니가 주거 내 외부공간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오히려 더 내밀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발코니에 갇혀 집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신과 마른 멸치를 동일시하며 자·타의에 의해 집에 갇힌 주인공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강요된 자기희생과 구속을 발코니에 갇힌 경험을 계기로 깨닫고 스스로 탈피한다.

〈82년생 김지영〉과 〈베란다〉 작품 모두 여성 전업주부로서의 일상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여성들이었지만 발코니라는 공간을 통해 각성하여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82년생 김지영〉에서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해 용기를 얻어 자신의 정신적 질환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직장에 곧바로 복귀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베란다〉에서는 자신이 발코니에 갇혔음에도 걱정조차 해주지 않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집 밖으로 나간다. 주인공의 보폭에 맞춰 롱테이크로 담긴 이 장면에는 배우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고 의연해 보이기까지 하다. 이를 통해 더 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누군가 열어주어야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여성 전업주부의 굴레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 영화 작품에서 보여지는 발코니는

간혀있는 일상적 공간, 일상으로부터 모면하는 공간, 부조리를 깨닫고 각성하고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제6장. 여성의 관점에서 본 발코니의 의미

6.1 여성과 발코니의 상관관계와 그 의미

6.1.1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발코니의 의미

3, 4,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발코니는 여성 전업주부들에게 전용면적을 확장하는 수단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진 공간이다. [표 6-1]은 앞장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일상으로 가려진 여성 전업주부들의 모습이 발코니라는 공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저문 날의 삽화>와 <아주 오래된 농담>과 같이 2000년대 이전에 쓰인 작품과 같은 경우 여성 전업주부의 희생과 고난을 지각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데에 그친다면 <2007, 여름의 환>과 <발코니 Text & Context>와 같은 작품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이 되어 미투운동¹⁵⁷⁾과 <82년생 김지영>¹⁵⁸⁾ 패러다임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여성들의 겪는 성

157) 미투운동, 또는 미투 캠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2017년 10월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해시태그 #metoo를 달아 게시물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나서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이 연대하였고, 이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에서는 법조계, 문화예술계, 정치계로 확산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의미로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도 연결되었다. 박문각, “미투 캠페인”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20-12-15; 인터넷주소: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4337008&categoryId=43667>

158) 조남주의 소설을 영화화한 김도영 감독의 영화 <82년생 김지영>도 또한 원작의 의도를 계승하여 ‘삼포세대’ 여성들의 현실적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대중영화로서 <82년생 김지영>은 사회적 반향-2017년 ‘남녀 임금 차별 방지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발의 및 2018년 ‘미투(Me Too) 운동’-을 직접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었다. ‘역차별’을 우려하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대중들의 반응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관찰과 더불어 사회의 패러다임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82년생 김지영>을 연구자료로 사용함으로써 ‘미투운동’이 일지 않았던 건축계에 전향점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영엽, “[82년생 김지영①] 개봉 전부터 극과 극의 반응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소설과 어떻게

차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82년생 김지영〉과 〈베란다〉에서 드러나며 여성들이 현실에 수긍하여 타협하기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려움을 극복하되, 이분법적 사고의 성대결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건설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표 6-1] 이야기로부터 도출한 발코니에서의 상황과 의미

작품	상황 속 발코니의 의미	발코니에서의 상황
〈저문 날의 삽화〉	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공간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상황
	② 타인과 공감하는 공간	
	③ 현대사로 인한 개인의 상처를 되짚는 공간	
〈아주 오래된 농담〉	① 자기희생을 통한 헌신과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를 복돋는 공간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는 상황
	② 동경과 선망의 대상	
	③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환기”하는 공간	
	④ 일상에서 필요하지 않는 의례적 물건을 저장하는 공간	
	⑤ 친절과 시댁에서 모두 외인 취급 받는 여성이 수용되는 공간	
〈2007, 여름의 환〉	① 개인적 공간이 없는 주부가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공감을 넘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는 상황
	② 감정의 장(場)	
〈발코니 Text & Context〉	① 삶의 방향성을 잃은 여성들의 중간적 위치	공감을 넘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하는 상황
	②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연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공간	
	③ 현실과 허구의 경계	
〈82년생 김지영〉	① 육아와 가사노동으로부터 지친 주부가 휴식하는 공간	삶의 목표의 부재에 대한 자아성찰과 자아실현을 위해 각성하는 상황
	② 경력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좌절을 삭이는 공간	
	③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유대하는 공간	
	④ 현실을 극복하고자 다짐을 하는 공간	
〈베란다〉	① 여성들의 수동적인 삶을 나타내는 공간	삶의 목표의 부재에 대한 자아성찰과 자아실현을 위해 각성하는 상황
	② 여성들이 강요당한 희생이 드러나는 공간	
	③ 자·타의에 의한 속박과 굴레를 경험하는 공간	
	④ 순응적인 삶을 탈피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	

6.1.2 발코니의 의미에 기여하는 공간적 속성

김혜정(1997)에 의하면 “사적 공간에 대한 요구는 산업화에 따른 개인주의가 심화될수록 강해지고, 주거 내 사적 공간의 요구는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부를 제외한 타 가족 구성원들은 주거 외 공간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을 충족하여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지만 “주거는 주부들만의 환경으로 심화되어 주부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증대시킨다.”¹⁵⁹⁾ 이러한 가운데 발코니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집에 갇힌 여성들에게 **도피처(a haven)**가 되어 개인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주거 내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중간공간적 성격과 서비스면적으로써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은 발코니의 계획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도피처의 기능을 충족시킨다. 우선, 발코니는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냉난방 시스템과 조명으로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와 조도를 유지하는 실내와 달리 발코니는 날씨와 기후에 따라 그 기온과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발코니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서도 외부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방수의 기능을 하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내부의 바닥 면보다 낮게 단차를 설계하여 실내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획한다. 발코니 사용자는 차갑고 물기 있는 바닥을 피하기 위해 슬리퍼를 신는다. 우리나라는 “방 문화”¹⁶⁰⁾ 발달되어 있어 공간을 출입할 때 신을 신고 벗음으로써 그 공간의 영역범위 및 경계선을 인식한다. 그 결과 사용자는 발코니에 출입할 때 발코니에 ‘나가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어휘의 표현처럼 발코니를 “집 안의 외부공간”으로 인식한다. 다른 가족들처럼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여성들은 외출을 하는 대신 발코니에서 사적인 시간을 보낸다.

159) 김혜정, 41-42

160) 서현, 빨간 도시, 파주: 효형출판, (2014) 77

또한 발코니에서 공통적으로 집 내부를 등지고 밖을 보는 모습이 관찰된다. 사람은 신체를 갖고 있어 앞과 뒤, 정면과 뒷면이 양립하며 무엇을 향해있는가에 따라 위상학적 위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발코니 사용자가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는 신체적 자세를 통해 사용자는 외부에 관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는 밖에 있는 마주하는 건물이나 거리 위 풍경, 날씨, 지평선과 하늘 등을 본다. <저문 날의 삽화>에서는 서둘러 차를 몰고 가는 남편과 윗집에 사는 가연이를,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는 현금이 있을 강변북로를, <발코니 Text & Context>에서는 소음이 들리는 허공을, <82년생 김지영>은 노을과 밖의 거리의 풍경을 본다.¹⁶¹⁾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다양하지만 모두 밖을 향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으며 발코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밖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1.5미터의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코니는 1.5미터 폭의 직사각형 형태를 갖는다. 이와 같은 좁은 폭의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식 가구의 배치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코니는 가족들의 관심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모두에게 배척당한 이 공간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발코니에 내재된 공간적 특성 때문에 발코니는 여성에게 ‘도피처’가 되었다.

161) <베란다>에서만 예외적으로 발코니에 갇힌 주인공이 남편이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문 앞에서 집 안을 지켜본다, 이는 감독이 발코니를 집의 외부공간이 아닌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6.2 발코니의 부재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오늘날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여성들의 권리향상과 제도적 유리천장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부장제도의 악습들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거 형태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리한 공간 구조를 고집하고 있으며 아직도 변화의 필요성이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한국의 근대사적 흐름에 따라 여성들에게 집이란 ① 지켜야 하는 살림, ②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일터, ③ 임대수익을 내는 경제적 수단, ④ 부동산 재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냉전 이후 평화시대의 도래로 인한 남자의 부재의 이유가 사라지자 부동산적 가치로서의 의미만 남고 나머지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더불어 발코니의 확장 허용은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이라는 인식을 관습화하였다. 전용면적과 전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bay’ 수를 증가시키고 아파트 주동의 3면을 모두 개방하는 등 발코니를 늘려 서비스면적을 증대하는 모순은 집이 부동산적 재산이라는 인식을 강조할 뿐이다. 전용률에 대한 욕심은 발코니 확장을 장려하고, 발코니 확장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려 한다. 최근에 거주성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다.¹⁶²⁾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르면 제2조 제1항에 “각 사무구획 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만약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면, 현재 오피스텔의 바닥면적의 설계 기준 제한범위가 120㎡에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처

162) 1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가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에 제한되어 있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여 거주공간을 확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거 내 활동시간이 증가하여 소형 주거형태에서도 거주성 향상과 쾌적함, 양질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정부는 앞서 2021년 9월에도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완화한 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를 통해 유추하건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의 승인이 유력하다. 이소은, “[단독] 투룸 늘리고 발코니 설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풀다”, 머니투데이, 2022년 07월 26일, 인터넷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75136>

럼 발코니의 확장과 집의 경제적 환원 가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발코니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

도피처였던 발코니의 상실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유일하게 확장형 발코니가 등장하는 <베란다>에서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주부가 다용도실에 갇히게 되어 결국 가족들에 대한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이 덧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여성들은 참거나 외면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하였다. 그러나 도피처마저 잃은 여성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자 결국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 현실을 타개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우선순위에 밀려 사적공간을 박탈당한 여성들이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생긴 알파룸을 공용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여 알파룸을 홈오피스나 홈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으므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발코니 확장으로 생긴 알파룸은 이전처럼 한 구성원 소유의 방이 아닌 공유공간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알파룸을 공유업무공간으로 사용하여 출산과 육아로 직장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¹⁶³⁾

한편 타 가족 구성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갇혀’있게 되자 비로소 여성들이 겪는 고립과 이로 인한 우울감(코로나 블루, Corona Blue)을 경험하게 되었다.¹⁶⁴⁾ 또한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느낀 이들은 심지어 발코니에 대한 필요

163) 하지만 이 또한 여성들을 계속 집에 구속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또한 여성이 물리적으로 집에 고립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지만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이후 복직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64) “마스크 쓰기와 개인 위생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고, 재택근무, 온라인 화상수업, 화상회의, 홈트 등 직장이나 학교, 헬스장 등의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이 제기하였고¹⁶⁵⁾ 집에 갇혀있으면 누구나 해방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공간 구성, 물리적 공간의 한계 극복과 시스템 구축, 유사경험을 통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여성해방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약해지며,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다시 새롭게 꾸미고자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문영아, “팬데믹시대 소규모주택의 공간변화: 소규모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주거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주거(한국주거학회) 2021-12 (2021) 14

165) “최근 해외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봉쇄(lock-down) 등의 극복을 위해 주택의 발코니 등을 활용하여 식물 재배를 통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거나, 이웃과 함께 운동하는 공간, 공연장을 대신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콕’과 ‘홈트’, ‘홈콕’ 트렌드가 대거 확산되며 집의 용도와 의미가 다양해짐에 따라 바깥 자연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발코니, 테라스 등의 공간이 선호되고 있다. 종전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단순히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놀이공간, 라운지, 화단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남성우, 조상규, 121

제7장. 결론

7.1 연구의 결론

르페브르의 일상과 그 일상의 기반으로써 공간이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이야기 속 일어나는 일상적 상황의 배경으로써 발코니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다. 소설, 연극, 영화에서 담긴 공간에 대한 서술뿐만 아니라 상황을 구축하는 공간적 배경으로서 발휘되는 가치를 살펴보았다. 단순히 아파트 발코니를 단지 전용면적 확장의 수단, 주거 내 정원 또는 여가공간의 기능, 수납과 세탁 건조 등의 가사 공간 등으로 발코니를 대상화하지 않고, 여성의 삶과 주부의 일상 속에서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아파트 발코니는 주방의 보조공간, 외부 작업공간으로써의 마당의 기능을 내부화한 공간으로 국내 초기 아파트에 도입되었지만 여성 전업주부들의 일상에서 다양한 의미로 재생산되었다. 여섯 편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발코니의 상징과 가치는 모두 서로 다르면서도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과 희생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발코니는 타인(다른 여성)을 상기시키며 공감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연극에서는 여성이 사회로부터 각인된 수치심을 이겨내고 같은 아픔을 가진 타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영화에서는 발코니에서 사회적·제도적 억압을 던고 자아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통해 발코니는 단지 여성 전업주부들의 일상적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주체적인 삶을 되찾는 상황을 보여준다.

[표 7-1]은 작품 별 등장하는 발코니의 모습을 시대적 배경과 그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소설과 연극은 시대적 배경과 직접적인 서술과 상황을 통해 실제 아파트 평면을 토대로 상황 속 함의되어 있는 인물들의 집의 구조와 발코니 모습을 유추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영화 작품들은 장르적 특징-상황을 직접적으로 전개하는 요소가 아니어도 배경이 프레임 속에 등장한다-으로 인해 인물들이 사는 집과 발코니를 직접 볼 수 있었다.

[표 7-1] 작품 별 등장하는 발코니의 유형별 분류

작품	시간적 배경	발코니 종류	전면 발코니 확장 여부
〈저문 날의 삽화〉	1970년대	전면 발코니	비확장
〈아주 오래된 농담〉	1980년대	전면 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
〈2007, 여름의 환〉	2000년대	다용도실	-
〈발코니 Text & Context〉	2010년대	전면 발코니	비확장
〈82년생 김지영〉	2010년대	전면 발코니	비확장
〈베란다〉	2010년대	전면 발코니, 다용도실	확장

작품 내 시간적 배경과 인물들이 사는 집의 연식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경우 2010년대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었지만 영화에서 나타나는 집의 구조와 세탁기와 같이 가전제품의 위치 등을 통해 이는 1990년대에 지어진 집임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을 통해 발코니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도 또한 유의미하지만, 물리적으로 구축된 주거 양식이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치환되지 않고 축적되어 일상을 구성하고 있음을 또한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7-2] 작품 별 발코니의 모습을 유추한 다이어그램 종합정리 표

<p style="text-align: center;"><저문 날의 삽화></p> <p style="text-align: center;">베고니아 화분이 걸린 간이화분대</p>	<p style="text-align: center;"><아주 오래된 농담></p> <p style="text-align: center;">영민이 외원을 바싹 뒤 영묘의 이야기부 뜬는 발코니</p>
<p style="text-align: center;"><2007, 여름의 환></p>	<p style="text-align: center;"><발코니 Text & Context></p> <p style="text-align: center;">전면 발코니-2</p>
<p style="text-align: center;"><82년생 김지영></p>	<p style="text-align: center;"><베란다></p>

〈2007, 여름의 환〉 외의 네 편은 전면 발코니의 확장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 〈베란다〉와 같은 경우 전면발코니가 확장되었지만 주요 상황은 다용도실에서 일어났다. 이를 통해 발코니로 인식하는 곳은 인접실과의 위치적 특성보다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방수재질의 바닥마감과 단열이 되지 않은 내외부의 경계에 있는 공간을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적 공간으로 여겨지는 집에서는 또한 볼 수 없었던 잠재되어 있던 여성 전업주부들의 현실이 완전한 내부가 아닌 발코니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다.

3장에서는 〈저문 날의 삽화〉, 〈아주 오래된 농담〉, 〈2007, 여름의 환〉과 같은 소설 작품을 다루었으며 이들은 2010년대 이전의 작품으로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상황에서 그친다면 4장에서 다루는 연극 〈발코니 Text & Context〉와 같은 경우 공감을 넘어서 서로 연대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5장에서는 영화 〈82년생 김지영〉과 〈베란다〉를 다루며 삶의 목표의 부재로 인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아성찰과 각성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발코니는 여성들이 자기희생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하다.

소설, 연극, 영화 작품을 통해 여성 전업주부들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순간에도 발코니를 사용하는 양상에 공통점이 있었다. 이 공통점은 발코니가 안과 밖의 경계 또는 중간공간으로써 공간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첫째, 발코니에서 주로 인물은 집 안을 등지고, 밖을 향해 바라본다. 밖의 풍경이나 날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타인을 생각한다. 둘째, 발코니는 주로 단열이 되지 않고, 외기에 면해있기 때문에 외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집에서도 발코니를 통해 바람을 쐬어 답답함을 풀어내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 셋째, 전면 발코니인 경우 좁은 폭을, 후면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한번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자만의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와 같은 공통점은 한국 여성들이 주부로서 겪

는 단절과 고립, 자아실현의 부재와 삶의 목표 상실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며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 다른 여성들의 상처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여성들의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발코니는 집에서 고립된 여성들에게 현실의 도피처와 같은 공간이다.

여성에게 집은 다층적인 의미로 존재해왔으나, 오늘날 핵가족화와 자본주의화가 확산되어 집은 부동산적 재산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전용면적의 최대화, 전용률의 효율을 위해 발코니는 전용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면적 수단으로써 여겨지며 이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도피처를 잃은 여성들은 집에서 설 곳을 잃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여성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비일상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집에 가둠으로써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여성들이 매일 겪었던 고립과 희생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불편함을 깨닫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이제 여성들은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생긴 알파룸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여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일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였고, 상황적 기반인 주거공간의 변화로 여성해방에 기여할 수 있었다.

7.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2018년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주류로 떠올랐다. 이후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남녀 모두의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 주거의 양식은 가족-이성애-재생산의 제도에 의한 규범을 따르고 있다.¹⁶⁶⁾ 우리나라 주거 양식의 현주소는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파트 형태의 주택 보급’에 그쳐있다.¹⁶⁷⁾

비혼 또는 1인 가구로서의 여성들의 삶을 담는 대안주거의 형태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 또는 주부가 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전업주부’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 또한 정형화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여성들을 위한 주거건축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예술 작품의 형식 중 소설 세 편, 연극 한 편, 영화 두 편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었지만 이외에도 분명 발코니가 상황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작품을 조사하여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대한 다소 일방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상황 속 배경으로써 발코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발코니 공간이 여성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대상의 관점에서 관찰을 함으로써 발코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었다.

166) 신유진, 1-4

167) 신유진, 1, 하성규, “공동주택 대량공급에 따른 주거규범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 (2000) 123-146 재인용

현재 아파트 발코니는 인허가 단계에서 도면 위에서만, 또는 분양 시 옵션의 한 보기로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시공되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발코니를 부수적인 공간으로, 서비스면적으로써 전용면적을 늘려주는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그 중요성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는, 발코니는 여성 전업주부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 집에 구속되어 있는 이들에게 현실로부터의 도피처, 숨을 돌릴 수 있는 한 뼘의 공간이었으며 발코니의 상실은 여성들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계기가 되었다. 알파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용공간의 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이전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의 고립이 모두의 경험으로 확산되자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발코니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당연시되는 일상을 당연하지 않은 관점을 취해 일상적 공간으로서 발코니의 의미를 살펴본 것에 의의를 갖는다. 발코니를 대상화하지 않는 연구방법론을 취하였기 때문에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분석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발코니가 갖는 의미와 이에 기여하는 공간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피상적인 기능과 전용면적의 확장 수단으로서 의미에 한정된 발코니 계획에서 벗어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김미혜, 정혜경, “1950년대 국가정책이 음식소비문화에 미친 영향: 신문기사를 중심으로(1950-1959)”,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 1 (2009): 10-22

김민규,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및 비확장 발코니의 계획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 8 (2009): 145-152

김선영, 오찬옥,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 2 (2012): 152-162

김용범, “일제강점기 여성지에 나타난 생활개선 담론의 경향 고찰: 주생활 및 부엌개량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 4 (2011) 51-61

김주현, “집과 가정: 젠더와 주거 디자인”, 한국여성철학 26 (2016) 39-72

김준, 조민재, 김원중, “여성 정책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공간 형태의 변화 분석”, 한국주거학회 2013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 2, (2013): 205-209

김진관, 김근성, “아파트 비확장형 발코니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 15, 2 (2017): 135-143

김태식, 최동혁, “사회적 소통을 위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배움과 마중 개념을 적용한 다가구주택 계획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 10, (2019): 913-922

김혜정, “우리나라 근대 주거 공간의 변천을 통한 여성 주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생활연구(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 (1997): 31-48

남성우, 조상규,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로서 국내외 발코니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 2 (2021): 121-130

문영아, “팬데믹시대 소규모주택의 공간변화: 소규모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주거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주거(한국주거학회) 2021-12 (2021) 14-16

- 박경옥, 이상운,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분양된 아파트 평면의 발코니 특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군 이하지역의 아파트 평면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 2 (2008): 61-70
- 박용석,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산업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7 (2004): 16
- 박인석, “발코니 확장, 이대로 좋은가?”, 한국주거학회지 1, 1 (2006): 13-17
- 박철수, “박완서의 문학작품을 통해 본 서울 주거공간의 이분법적 시각”,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 2 (2006): 63-75
- 박철수,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년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주거공간의 인식과 체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 3 (2014): 191-201
- 박철수,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설계관행 탈피방안 연구: 법령정비 방향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 4 (2004): 67-76
- 박혜경, “신자유주의와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26, 2 (2010): 127-158
- 방예림, “아파트 발코니의 실존적 가치 및 의미에 관한 연구: 〈82년생 김지영〉에서 드러나는 상황 내 장소적 의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 2 (2022) : 13-21
- 백성진, 심우갑, “기능확장형 발코니 공간의 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2, 2 (2002): 211-214
- 백혜선, 박광재, “한국 공동주택에서 다용도실의 성립과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 3 (2000): 11-20
- 서봉교, 최정오, “LH 공사 발코니확장형아파트 단위세대 평면계획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 1 (2011): 146-153
- 선우은실, “〈저문 날의 삽화〉속 주부 화자의 젠더 정치성: ‘주부’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젠더 문제 및 주부 공간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우리문학회) 69 (2021): 429-458
- 신현수, 김동훈, “발코니 확장제도가 단위세대 평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8, 1 (2018): 73-76

신혜경, “기혼취업여성이 느끼는 도시주거환경”, 김대년 외 4 인 편역,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서울: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1999) 99-111

오민정, 류성룡, “구술생애를 통한 주거의 의미에 관한 이해: 부천 역곡 고택 가옥주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3, 2 (2022): 53-62

운효진, “아파트 주동형태 및 확장형 발코니에 따른 단위세대 평면계획 변화특성”,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논문집* 14, 1 (2019): 61-69

이근혜, 안은희, “1970 년대 단편소설 속 일상 경험 분석을 통한 ‘집’으로서의 아파트 의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5, 6, (2020): 47-59

이문규, 정영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건축법적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1, 1 (2021): 293-321

이범훈, 장동민,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건축 밀도의 변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집* 19, 9 (2018): 298-303

이예진, 최정민, “근미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알파룸 공간의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1, 2 (2019): 423-426

이철호, “‘무소유’ 시대: 1970 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과 그 의미”, *개념과 소통(한림과학원)* 27 (2021): 137-169

이현재, “현대도시의 일상성 분석을 위한 페미니즘의 개념적 제안: “사회적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일상과 “수행적 반복”으로서의 일상실천”, *시대와 철학(한국철학사상연구회)* 26, 2, (2015): 162-189

정미란, 임소연, 안옥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발코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0, 2 (1999): 52-59

정미숙, “박완서 소설과 ‘아파트’ 표상의 문화사회학: ‘아파트’ 표상과 젠더 구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 (2012): 307-332

정지창, “리얼리즘 연극과 서사극”,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 1990 년 가을호 3, 3 (1990): 1277-1283

조혜영, 조현신,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1970 년대 이전 한국 부엌의 공간 변화”, *기초조형학연구(한국기초조형학회)* 13, 1 (2012): 461-474

지수인, “도시주거의 발코니에서 나타나는 내부이용 및 외부표현 특성: 고대부터 19 세기 말까지의 동서양 주거문화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 2 (2010): 133-144

지수인, 김진균, “공동주택 사적 외부 공간의 공간배열방식에 관한 고찰: 독일 사례의 발코니, 로지아, 테라스 및 베란다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 12 (2007): 83-94

진경일, 안병욱, “아파트 실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실의 장단변비 변화와 거주자의 선호도 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1 (2003): 104-111

진승현, “리얼리즘 미학에 나타난 미장센의 내적 의미 연구: 홍상수 영화의 일상과 리얼리즘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2 (2015): 130-138

진정화, “특집-여성과 주거공간”, 건축(대한건축학회) 45, 3 (2001): 47-52

최병숙, “수도권 신도시 근교 농촌 아파트 주거의 내부 공간구조 변화: 주부인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2, 2 (2010) 13-22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51, (2012) 431-455

허은, “80 년대 한국연극의 리얼리즘과 90 년대의 전망”, 오늘의 문예비평 1991 여름호 통권 2, (1991): 73-83

Bonnie Loyd, “Women, Home and Status”, 이경희 옮김, 김대년 외 4 인, *여성의 삶과 공간 환경*,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31-53

H. Lefebvre, “The Everyday and Everydayness”, *Everyday Life*, Yale French Studies(Yale University Press) 73, (1987): 7-11

Jacques Lucan, “The Search for the Absolute”, In the Footsteps of Le Corbusier, (New York: Rizzoli, 1991) : 196-207

Jin Baek, “Climate, Sustainability and the Space of Ethics”, *Architectural Theory Review* 15,3 (2010): 377-395

Joseph Rykwert, “The Sitting Position-A Question of Method”, *The Necessity of Artifice*, (London: William Clowes, 1982), 23-32

Robin Evans, “Figures, Doors and Passages”, *Translations from Drawing to Building and Other Essays*, (London: Architectural Association, 1997), 55-91

학위논문

곽홍연,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

김은영,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와 회화적 재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7

백성진,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활성화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송혜진, “엔·엔가와와 텃마루의 비교에 관한 연구: 이야기에서 발췌한 ‘상황’의 구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7

신유진, “페미니스트 대안 주거로서의 ‘함께 살기(living together)’: 비혼 청년 여성들의 ‘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20

안은경, “획일화된 아파트 유형의 원인분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3

지수인, “한국 아파트 발코니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단행본

- 강부성 외 6인,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서울: 세진사, 2001
- 김대년, 신혜경, 이경희, 최재순, 홍형옥 편역,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
-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3
- 발레리 줄레조, *아파트 공화국*, 길혜연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20
- 박철수, *(박철수의) 거주 박물관*, 서울: 도서출판 집, 2018
- 박완서, 〈낙토의 아이들〉, *조그만 체험기*, 서울: 문학동네, 2001
- 박완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기나긴 하루*, 파주: 문학동네, 2012
-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2〉, *저문 날의 삽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4〉, *저문 날의 삽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5〉, *저문 날의 삽화*,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서울: 도서출판 세계사, 2014
- 박완서, 〈옥상의 민들레꽃〉, *자전거 도둑*, 서울: 도서출판 다림, 2021
- 서현, *빨간 도시*, 파주: 효형출판, 2014
- 이영은, 극단 김장하는 날, 발코니 〈Text & Context〉, 2018
- 전경옥, *한국여성문화사 2*,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5
- 조경란, 〈2007, 여름의 환〉, *풍선을 샀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2019
- 조상규, 김영현, 남성우, 김신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용화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20. 6*, 건축공간연구원, 2020
- 최권중, *스토리가 있는 발코니*, 서울: 위더스북, 2019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서울: 시공문화사, 2003

최승호, 〈복어〉, *대설주의보*, 서울: 민음사, 1983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파주: 창비, 2021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AR+건축용어사전*, 고양: 성안당, 2008

H.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h, Blackwell(Oxford U.K. & Cambridge U.S.A.), (1991): 241~242

Norbert Schoenauer, *6,000 Years of Housing*,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온라인자료

남호철, "분양 당시 마감재 바뀌드려요", 국민일보, 2000년 8월 27일, 인터넷주소:<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0018739>

“리얼리즘”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검색 2022.06.10]; 인터넷주소:<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9888&cid=60657&categoryId=60657>

리얼투데이, “단점 보완한 개량형 테라스하우스 웃돈만 ‘억대’”, 네이버 포스트, (2018년 2월 19일); 인터넷주소: <http://naver.me/xmiZPcCs>

“문학사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2022년 5월 15일]; 인터넷주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9735>

박문각, “미투 캠페인”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20-12-15; 인터넷주소: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4337008&categoryId=43667>

박민진, “로지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검색 2022년 5월 15일]; 인터넷주소:http://dict.aik.or.kr/main/view.vm?word_id=9913&page=1&q=%EB%A1%9C%EC%A7%80%EC%95%84&index=&depart_id=4&is_first=1

살구아저씨, “내밀한 여성공간으로서의 아파트 다용도실_조경란의 〈2007, 여름의 환〉에서”, 살구나무 아랫집, 2011 년 2 월 4 일; 인터넷주소: <https://salgustory.tistory.com/entry/내밀한-여성공간으로서의-아파트-다용도실조경란의-2007-여름의-환에서>

이소은, “[단독] 투룸 늘리고 발코니 설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풀다”, 머니투데이, 2022 년 07 월 26 일, 인터넷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75136>

장영엽, “[82 년생 김지영①] 개봉 전부터 극과 극의 반응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영화 〈82 년생 김지영〉은 소설과 어떻게 같고도 다른 길을 갔을까,” 씨네 21, 2019 년 10 월 30 일, 인터넷주소: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129&utm_source=naver&utm_medium=news

정성문, “테라스하우스”, [검색 2022 년 5 월 15 일]; 인터넷주소: http://dict.aik.or.kr/main/view.vm?word_id=32563&page=1&q=%ED%85%8C%EB%9D%BC%EC%8A%A4&index=&depart_id=3&perfection=start&is_first=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미장센, (Mise-en-Scène)”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 용어사전, (2006 년 1 월 30 일); 인터넷주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030&cid=60657&categoryId=60657>

부록

A.1 이영은 작가와의 인터뷰

Question.1)

명선이와 혜영이라는 인물간 갈등 관계, 그리고 context에서 주어진 남녀의 모습들을 통해 남자들의 연대와 여자들의 연대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 고통, 그리고 희생에 있어 남자들은 이를 영예, 훈장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보상(benefit, prize)을 원하는 것에 비해 여자들은 이를 수치, 금기로 여겨 침묵하거나 서로를 경계하여 유대관계를 쌓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발코니에서 몸을 던져 안에서 밖으로, 하나의 이야기이자 개인의 경험인 text에서 다수의 공감대, 하나의 역사인 context로 나아가는 결말을 통해 여자들의 연대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말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또 따로 시사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nswer.1)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심을 잡아 준 말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처음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지금은 다들 알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인사로 치부하고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일도 왕왕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범죄가 아닌 영역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 예민한 영역, 어떤 이들은 그것이 상처이고 고통인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작품 속 context는 말씀하신대로 나아가야 할 하나의 역사이자 여성혐오의 역사이기도 하여, 이를 통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지연, 연이, 명선, 혜영 등 여

성들의 각기 다른 비극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직간접적인 맥락들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망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지연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발코니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다는 결말을 통해 이 비극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context 없이 원작 text만 가지고 공연을 했다면 자칫 개인적인 서사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였기에 이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함께 가지고 갈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연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대개가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익 집단의 성격이 크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위계질서가 내재하는 수직적인 구조가 많은데, 자신의 차례,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력적인 문화를 견디고 각종 부당함을 희생하기도 하며 그 집단성을 유지해 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이 것처럼 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는 남성들만큼 체계모니를 잡지 못한 탓이 있고, 잡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파이 때문에 혹은 남성들의 기득권에 편승한 일부 여성들로 인하여 ‘여적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여성들을 넘어서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노력도 있지만 결국 ‘계급 이전에 젠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시금 여성은 여전히 약자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이유에 출산과 육아 부분 또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연대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저부터도 참 쉽지는 않은 것을 보면, 결국 개개인의 끊임없는 각성과 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성의 몸과 여성의 삶에서 오는 ‘찢어짐 혹은 찢겨짐’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치에서 오는 이미지가 매우 컸고, 그래서 원작 텍스트를 ‘찢어 발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야기들과 엮어 풀라주 구성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정말 여러 신문, 잡지, 색종이들을 조그맣게 찢어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 듯이, 그런 방식의 장면 구성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구성뿐 아니라 장면 연출에서도 한 명의 대사를 조각내서 모든 배우가 함께 나누어 발화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였고, 마지막 장면인 ‘두려움에 관한 고찰’ 장면에서는 실제로 배우들의 발화도 조각내고, 눈·코·입 등을 조각조각 촬영하여 편집해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의 연출의 글에 보면 ‘동서고금’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정말로 다른 시공간의 조각들을 한데로 가져오고 싶었고, 그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Question.2)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도, 집안을 돌보고 가꾸는 집’안’사람도 아닌 지연은 집 안도 밖도 아닌 그 사이의 경계, 발코니와 같은 자신의 삶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물의 상황과 공간 요소를 상관시켜 이야기의 배경뿐만 아니라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여 전개를 하는데 있어 매개체로 사용하신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피스오브랜드>라는 작품에서도 집(땅)과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셨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집(땅) 또는 공간을 직간접적으로 주제 삼아 줄거리를 풀어내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2)

‘피스오브랜드’를 찾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의 작품 <발코니 TEXT & CONTEXT(2017-2018)>와 <피스 오브 랜드 Piece of Land(2019-2020)>와 <에블루션 오브 러브 Evolution of Love(2021)>의 세 가지 작품의 경우 ‘비서사적인 여러 장면들의 모음’이라는 구성 때문에 사람들이 세 작품 다 비슷하게 여기고 저게 연출 스타일인가 보다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비슷한 결과에 이른 것인데요,

먼저 <발코니 TEXT & CONTEXT>의 경우는 ‘찢겨진 여성의 삶을 대변하기 위한 풀라주 구성’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극단은 구성원이 정리되면서 여자 연출 및 배우들만 남게 되었고, 미투도 일어나기 전, 페미니즘이 아주 뜨겁지도 않던 시기였는데요,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연기할 수 있는 기존 텍스트의 부재를 느껴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자 했고, 더불어 제가 출산과 육아 및 경력단절을 겪던 시기였기도 해서 페미니즘 공부를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공부할 때 보통 가장 처음 배우는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인데요, 아시겠지만 ‘플롯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교본이 되는 작품입니다. 저에게도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그러한 플롯에 대한 감각이 분명 내재되어 있으며, 작품 속 작은 장면들 속에서는 아마 활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소위 선이 굵고 서사성이 강한 작품을 쓸 능력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으나 도통 그런 쪽에 관심이 가지 않고 체질적으로도 맞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고전플롯·단일플롯이 저에게는 매우 남성적(남성적 사고방식, 발화방식, 해결방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주동인물과 그의 사건을 떠받치는 반동인물 및 조·단역들이 하나의 사건을 끌고 가는 그러한 방식은 저희 극단 운영방침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두 같이 고생하는 만큼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함께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여성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context였는데, 남성들은 대체로 결론만을 들으려 하고 context를 고려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한 서사 방식 및 발화 방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스 오브 랜드 Piece of Land>의 경우에는 땅, 즉 우리의 대지가 조각조각 분할되어 각기 다른 소유주들에게 점유되어온 역사를 표현함에 있어 ‘복잡계 (complex 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학에서 활용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작품 내에서 그러한 경제학적 측면

을 다루기도 하고, 전혀 다른 시공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고자 이것을 플롯에 연결시켜 ‘복잡계 플롯’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에볼루션 오브 러브〉는 ‘경계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결국 이것은 페미니즘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 구성으로 해설자를 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플롯 얘기가 길었는데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결국 작품을 쓸 때, 저 같은 경우 종종 이러한 비서사적인 스토리를 구상하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거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나 master symbol을 늘 염두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지난 작품들을 돌이켜 보면 반드시 공간에 의미를 두어 작업을 했다고보다는 작품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발코니 TEXT & CONTEXT〉의 경우는, ‘출산과 육아 및 경력단절을 겪으며 집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그 집에 갇혀 있는 자신이 마치 꺾여서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은 처지라고 여겨지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해가 들어오면 발코니의 창틀이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 쳐서 그게 마치 창살 감옥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숨이 막혀 답답한데 유일하게 바깥과 연결되어 숨 쉴 수 있는 공간 또한 발코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코니는 바깥으로 나 있지만 집에 딸려 벗어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안식처가 되지만 매우 불안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피스 오브 랜드〉의 경우는 애초에 ‘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한 작품이라서 땅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땅들은 땅따먹기 할 때처럼 조각나고 부유하는 공간입니다. 커다란 대지의 품에 안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뱀새가 황새 따라가듯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뛰어 다녀야만 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연극은 무대 위에서 표현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 항상 극적

공간을 창조함에 있어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라는 것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공간을 무대 위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우들이 살게 할지를 고민하는 일이 연출가가 하는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연극은 건축과도 닮은 것 같습니다.

Question.3)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연극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text에 해당되는 이야기와 context에 해당되는 이야기, 즉 여러 이야기가 풀라주 구성을 취하는데, 공간적 배경 또한 스토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당극의 형태를 취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때 무대 연출이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공간이 변화했음을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발코니임을 표현하기 위해, 예컨대 발코니 난간에서 밖을 내다보는 동작을 취하는 방법 등처럼 배우의 연기나 제스처, 소품 사용 등 어떤 장치나 효과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가님들과 배우들이 장면 속 상황이 발코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 및 전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Answer.3)

우선, 위에서 말씀 드린 세 가지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인데 각 장면의 제목을 영상 자막으로 보여주고 텍스트를 발화하여 음향으로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1. 혐오시대** 라는 영상 자막과 ‘일, 혐오시대’라고 녹음한 사운드를 함께 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면의 개수가 너무 많고 순차적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장면의 제목을 알려주어 관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좀 더 편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적인 장면들을 공연 말미에 관객들이 연결시켜 각자 의미망을 형

성하기를 바랐습니다.

또 배우들이 지문을 읽거나 발화하였습니다. 버전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초연에서는 아예 무대 한 쪽에 보면대와 원작 대본을 두고 ‘제목, 발코니. 이영은 작, 때 현대, 등장인물 누구누구, 지연이 발코니 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을 아예 컨셉으로 대본을 펴 놓고 읽었습니다. 재연에서는 이 부분마저 다 외워서 해설자(지문발화자) 역할을 돌아가며 했고요. 그게 버전을 거듭하면서 방식을 조금씩 달리했지만 이 자체를 하나의 공연 양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브레히트적이고 또 판소리에서 아니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또 세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배우들은 등퇴장이 없었습니다. 관객입장이 완료되면 배우가 등장하여 자기 자리에 앉았고, 장면 자막이 플레이 되면 공연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주의에서 요하는 극적 환상을 창조하기 위해 숨고 가리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공연할게. 걱정하고 공연할게’, 그런 방식을 취한 건데요, 소품도 보란 듯이 다 꺼내 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연습 시에 ‘중립’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등퇴장 및 휴식 모든 상황이 무대 위에 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황에서 인물이 아닌 중립의 상태로 연기를 하거나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문을 읽는 것 자체도 중립 상태로 읽되 정서는 넣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장면들은 주로 약속된 공간과 동선을 활용했습니다. 초연극장은 정말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이어서 관객들을 마당극처럼 둘러앉게 했고 무대 뒤편의 일정 공간에서 발코니 장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객석과 무대를 어느 정도 분리하면서 행화탕 공연 때는 2면 객석, 최종 공연에서는 한쪽 면의 스크린 공간을 제외한 3면 객석을 만들었고 무대는 사각으로 썼습니다. 그 무대의 사각 공간 안에 배우들이 각 코너에 앉아서 장면 별로 in/out 하였습니다.

폰트 장면들은 사실상 재현적 방식에 가까워 큰 문제가 없었고 마당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사실주의 원작 〈발코니〉 장면들을 비사실적으로 연출하

였는데, 스퀘어와 대각선 등의 직선 공간 내에서 체스판 위를 움직이듯 약속된 동선들로 해결하였고, 스퀘어로 길게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적 약속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면하는 장면들이지만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고 각자의 시공간에서 연기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소극장이라 사실 인물들이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로·세로·대각선을 활용하여 스치고 엇갈리듯 하며 별도의 공간에서 각자의 상황들로 다시 파편화시킨 건데요, 전체 대본에서 일부 장면들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는 일인지 지연의 회상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또 지문을 발화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섬세하고 사실적인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정서와 의도는 대본대로 가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제스처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신체적 접촉을 지시하는 지문을 읽어도 실제로 그 액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서와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움직임을 선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객들에게는 그 상황들이 지연의 머릿속에서 다시 그려지는 이미지들로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풀라주 개념이 연출적으로도 이어진 것인데요, 한 명의 대사를 넷이서 나누어 한다든가, 한 줄의 대사를 어절 단위로 쪼개어 발화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배우들은 그 부분의 대사를 결국 다 외워야 하고, ‘따로 또 같이’의 느낌으로 같은 호흡을 가져가되 다르게 표현해야 하니 혼자 긴 독백을 자유롭게 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고 테크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이 동선이나 대사의 큐가 일반 공연에 비해 엄청 많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풀라주’의 그림이 결국 ‘연대’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A.2 손지수 감독과의 인터뷰

Question.1)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집:발코니=집 밖:집 안] 과 같은 상관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발코니를 개방적인 공간(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내부 공간)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영화는 발코니(베란다)를 폐쇄적인 공간으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작가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1)

저에게 베란다라는 공간은 '집안일 거리가 있는 또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이 외부로 완전히 뚫려있든 내부에 있든지 간에 집 '안'이라면 엄마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말려도 굳이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집안일을 하고야 맙니다.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헐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더 몰아 넣어보자”

집안에서 더 폐쇄적이고 갑갑한 공간에 넣어보자.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엄마는 그 곳에서도 집안일을 찾아냅니다. 가족들이 외출하고 하루가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엄마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베란다는 폐쇄적이고 답답한 공간이고 엄마의 행동 역시 자식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Question.2)

주인공이 식물과 멀치에게 물을 주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반면 자신은 습기로 인해 더 답답해지는 상황을 연출하셨는데요, 가

족들을 위해 희생을 할 수록 자신의 삶을 옥죄이는 주부들의 삶을 연상시킵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 전업주부의 일상 또한 어머니의 삶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Answer.2)

어머니의 삶은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리셰적인 발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어머니들은 아직까지 희생정신을 못 놓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절대 그러지 않죠. 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스스로의 모습 아닐까요?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통해 '편안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간헐을 때 엄마는 패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안에서 집안일을 찾아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봤을 땐 답답하지만 엄마는 그 누구보다 그곳에서 평온합니다.

Question.3)

보통 발코니 또는 베란다가 지칭하면 거실 앞에 있는 전면 발코니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주방 옆에 있는 발코니(다용도실)를 배경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의 제목을 '베란다'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3)

전면 발코니보다 주방 안쪽 베란다가 더 갑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실이라는 좀 더 시원하고 개방적인 공간보다는 주방 베란다가 더 폐쇄적이니까요. 그리고 길쭉한 구조로 돼있는 베란다 끝에는 대피용 창고?같은 것이 있는데 그 공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열 일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판타지스러운 요소로 사용하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베란다'인 이유는 이 영화는 '사실' 그대로를 담담하게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목도 직설적이고 팩트만 내놓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베란다가 이 영화의 전부이기 때문에 베란다로 정했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Existential Meaning of Balconies in Female Narratives

-Based on Korean Novels, Plays and Films-

BANG, Yerim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ly balconies in Korean balconies have been discussed limitedly on functional aspects; a mean to maximize residential area, to use as a spare room or to store loads. In Korea, balconies only exist on paper solely to be used for expansion, never to be realized. However, the abnormality from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and application of local architectural guideline to avoid unilateral façades brought balconies to attention.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essence of balconies inherent in the contextual foundation of daily situations.

In discovering of meaning of a space serving as a situational background, it is imperative to witness how space contributes to the situation while dissolving into the background, by using peripheral vision. Hence the situations are derived from fictional realist narratives, which depicts the authenticity and ingenuity in daily lives (however banal they might seem). Following a close observation of inter-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and their changes during the given situations, analyses are draw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spatial displacement and mise-en-

scene.

Several narratives placed on balconies have been chosen in this research to observe how balcony is depicted and presented as a foundation of situational background. Also, to investigate how balconies engage in everyday lives of Korean female housewives, only works that include female protagonists have been chosen. Korean novels, films, and a play were selected in case of narratives, and each genre has a way of storytelling per se, but shares a common ground that space exists in relations to its background in a situation.

The concept of balconies was applied to Korean apartment as an auxiliary kitchen space, storage or a pantry, and a succession to an exterior space in Korean traditional housing, “madang”. However balcon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emales unrecognized. Six narratives unveil different symbolic meaning and values, all disclosing realities of female housewives. For instance, balconies were used to provide situations which express solidarity and empathy towards other females, breaking free from shame and vulnerability. Furthermore, female protagonist would be awaked to the sense of folly and reclaim their independence while at the balcony. Through narratives, balconies reveal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very day throughout the history but also how they empathize, unite, and reestablish their identity with each other.

Females have been restrained to stay home and become ‘housewives’, while at the same time deprived of personal private space. Female spaces in housing a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a master bedroom, a kitchen, a dining area, a balcony, and a dressing room, all of which are serving spaces to maintain household except for a master bedroom, which is shared by the couple. Therefore no place is found for females to have privacy at home but for a balcony. This outdoor space whilst inside home becomes a haven or an asylum for females to avoid social isolation and take a break from serving their families.

However, the loss of balconies in Korea has robbed female housewives of this sacred space. Meanwhil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numerous changes in

daily lives starting with lockdowns and social distancing. The longer people stay indoors at home, the more unhesitant people became to go outside. Lack of social contact induced depression which prevailed globally resulting in Covid-Blue syndrome. What had been limited to female housewives-the feelings of helplessness without any self-determination and social interaction-has proliferated to the common and Koreans who were deprived of outdoor space felt desperate need for balconies. To overcome spatial constraints, measures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have been developed such as untact meetings and gatherings, new systems to accommodate working from home and home education, and arrangement of communal spaces to shelter civic life at home. These new attempts to cope with shapeshifting reality liberated women in ways that they can now continue their careers and social life while at home. Although this temporary fix cannot be the ultimate solution to women's rights but provides a stepping stone to suggest alternatives other than termination of their careers.

Keywords : Balcony, Female Spaces, Female and Housings, Space in Narrative Settings, Housing and Covid-19

Student Number : 2020-25484